정답 및 해설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100발100중

고등 기출 문제집

공통 국어 2

2학기 · 전과정

미래엔

신유식



1 한국 문학의 길

01 옛 노래 감상하기_❶ 제망매가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12~015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④	05 ④	06 ③	07 ①	08 ①
09 ②	10 ②	11 ②	12 ④	13 ③	14 ②	15 ③	16 ②
17 ④	18 ⑤	19 ⑤					

01 4음보는 한 호흡으로 느껴지는 의미의 덩어리가 4개씩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운율로, 시조나 가사에서 두드러진다. 향가인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운율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원문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현한 향찰로 표기되었다. 원문을 보면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음을 활용한 부분(예 1구의 隱[숨을 은])과 뜻을 활용한 부분(예 3구의 吾[나 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5~8구에서 인간의 죽음을 떨어지는 잎에 비유하여 시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1~4구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5~8구에서 이를 심화·확장한 다음 9~10구에서 전환하여 시상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4구 + 4구 + 2구'의 3단 구성 형태로 볼 수 있다. ⑤ 누이의 죽음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고뇌가 미타찰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는 종교적인 숭고함으로 승화되고 있다.

02 10구체 향가의 '4구 + 4구 + 2구'의 3단 구성과 낙구(9~10구)에 감탄사가 오는 형식적 특성은 시조의 3장 구성과 종장의 첫 구가 3음절로 고정되는 형식으로 계승되었다.

Plus 〈참고〉 악장과 경기체가

악장	조선 전기에 발생한 시가 형태로, 궁중의 제전(祭典)이나 연례(宴禮) 때 부르던 노래. 조선 건국을 찬양하고, 선대 임금의 위업이나 공덕을 기리며, 조선의 번성을 기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경기체가	노래 끝에 '경(景) 긔 엇더하니잇고'라는 후렴구를 되풀이하는 노래. 고려 후기에 나타난 신흥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학식과 체험을 노래한 시가 형식으로, 일종의 귀족 문학이다. 사물이나 경치, 인물 등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언어유희의 느낌을 준다. 예 〈한림별곡(翰林別曲)〉

03 8구에서는 '모르온저(모르겠구나)'라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고, 9구에서는 '아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정서의 고조와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의지를 부각하는 어미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다리겠노라'의 '-노라' 정도인데,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② 5~6구에서 누이의 죽음을 떨어지는 잎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냄새와 관련된, 즉 후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④ 5~8구에서 자연물인 잎과 인간의 유사성을 활용해 인생무상의 정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을 대비한 것이 아니다. ⑤ 1~8구에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확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점층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04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인간적·현실적 슬픔이 '아아'라는 감탄사를 기점으로 재회에 대한 믿음과 다짐으로 전환되면서 종교적으로 승화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경과는 드러나지 않으며, 대상의 모습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②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죽음과 관련된 정서가 심화되다가 전환되고 있다. 자유로운 연상과는 거리가 있다. ⑤ 선경후정(先景後情; 앞부분에 자연 경관이나 사물에 대한 묘사를 먼저하고 뒷부분에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그려내는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이 글과는 관련이 없다. 이 글에서 자연은 단지 비유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05 이 글에는 누이의 죽음(= 헤어짐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1~8구에서는 누이의 죽음에 대하여 슬픔과 안타까움, 탄식의 태도로 대응하다가 9~10구에서는 미타찰에서의 만남을 기다리겠노라는 다짐을 통해 그러한 슬픔과 고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5~8구에서 누이의 죽음을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에 비유하면서 그것이 예기치 못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며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자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1~8구에서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 슬픔과 안타까움, 탄식의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헤어짐의 상황으로 인해 비애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5~8구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떨어질 잎'에 비유하면서, 이를 언젠가는 죽게 되는 자연의 섭리, 인간의 숙명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③ 9~10구에서는 미타찰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며 그 만남을 위해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헤어짐의 상황이 미타찰에서 극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9~10구에서는 미타찰에서의 만남을 위해 '도 닦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헤어짐의 상황을 '도를 닦으며 기다리는' 주체적 노력을 통해 극복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6 5~6구에서는 누이의 죽음, 나아가 인간의 죽음을 '바람에 떨어지는 잎'에 비유하면서, 죽음이 자연의 섭리이자 인간의 숙명이라는 인식과 그로 인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생사 길'이 '예 있'다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이 현존하는, 즉 늘 죽음과 대면하고 사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위협 당하는 위기'와 같은 협소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간 존재는 화자가 아니라 시적 대상인 누이이다. 화자는 그런 누이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④ '가는 곳 모'른다는 것은 제각기 죽게 되는 인간의 숙명에 대한 무상감을 표현한 것이다. '현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처지로 추리할 근거는 없다. ⑤ '미타찰에서 만'나기 위해 '도 닦아 기다리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믿음과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종교적 승화의 의지이지 저항의 의지로는 볼 수 없다.

07 ㉠은 잎이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누이의 죽음을 가져온 원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시련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A의 '바람'은 '도화'를 지게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떨어진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은 '잎'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B의 '바람'은 나무가 쓰러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은 비애와 무상감을, A의 '도화'는 감회와 흥취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은 죽은 누이를, B의 '나무'는 임이 그리워 병이 든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모두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수동적인 존재들이다.

Plus 〈보기〉 작품 이해

A	뜰에 떨어진 복숭아꽃을 보면서 느끼는 감회와 흥취를 노래한 시조이다. 여유로운 삶 속에서 자연 현상을 응시하면서 사색에 잠기고 풍류를 즐기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B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든 자신을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에 비유하여 노래한 시조이다.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가 비가 온다고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임 그리워 병이 든 화자의 상태도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며, 오직 임의 사랑만이 해결책임을 하소연하고 있다.

* **만정 도화(滿庭桃花)**: 뜰에 가득히 핀 복숭아꽃.
* **낙화(落花)**: 떨어진 꽃. 또는 꽃이 떨어짐.

08 '단원의 제목'은 수록된 작품의 주제나 특징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글은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

므로, 이러한 주제를 포괄하는 '그리움의 숲을 거닐며'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③ '우국충정'이나 '자연애'는 주제와 거리가 멀다. ④ '후회'나 '절망'은 작품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⑤ 조롱의 형식은 작품의 특징과 거리가 멀다.

09 ⓐ는 죽음이나 이별 같은 인간적 비애가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 ⓑ는 종교적 믿음과 의지를 통해 그러한 비애가 승화되는 이상적 공간이다. ⓐ를 '가는 곳'도 '모르'는 처지에서 가야 하는 비애의 공간으로 본 것은 맞지만, '도달해야 하는' 공간은 ⓐ가 아니라 ⓑ이다.

오답 해설 ③ 화자는 ⓐ에서 이별한 대상을 ⓑ에서 만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④·⑤ ⓑ는 ⓐ에서 느끼는 인간적 비애와 안타까움이 극복된 이상적(소망의) 공간으로, 화자는 ⓐ에서 '도'를 닦는 행위를 함으로써 여기에 도달하고자 한다.

10 [A]에서는 극락에서 재회할 날을 위해 종교에 정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승에서의 삶과 죽음이 미타찰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승과 저승의 거리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삶과 죽음을 괴리(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된 것으로 본 것도, 그로 인해 자포자기(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③·⑤ 도를 닦는 행위를 통해 삶과 죽음의 거리를 뛰어넘고자 하고 있다. ④ 현실에서의 정진을 다짐하고 있지만 현재의 삶에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11 이 글은 향가 중 10구체 작품에 해당한다. 향가는 화랑이나 승려들이 지은 노래로, 민요로는 볼 수 없다.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이 표현된 일종의 민요'라는 표현은 고려 가요에 어울리는 설명이다.

12 예기치 못한 누이의 죽음과 그로 인해 느끼는 안타까움과 무상감을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 잎'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누이의 말(나는 간다)이 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지만 두 인물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② 시구의 반복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색채와 관련된 표현(색채어: 빛깔을 나타내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⑤ 정상적인 어순을 뒤바꾸어 의미를 강조하는 도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13 [B]에서는 떨어지는 잎과 인간의 죽음을 비유적 표현으로 연결함으로써, 죽음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자연의 섭리임을 부각하고 있다. 역설(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참뜻이 숨어 있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생사 길'이 '예 있'기 때문에(원인) '머뭇거'린다는(결과) 인과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② '어찌 갑니까'라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예기치 못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한 가지에 나고/가는 곳 모르온저.'에서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각자 죽게 되는 인간의 숙명에 대한 허무감을 토로하고 있다. ⑤ '아아'라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인간적·현실적 슬픔이 종교적으로 승화되는, 인식 및 태도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14 3~4구는 누이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무심한 누이에 대한 원망'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생사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누이의 죽음을 통해 실감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다. 따라서 '머뭇거림'은 생사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와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죽음을 '떨어지는 잎'에 비유하면서 '떨어지는'이 지닌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④ '한 가지에 나고' '이에 저에' 떨어지는 잎과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각자 죽는 인간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둘을 비유로 연결하고 있다. ⑤ 도를 닦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슬픔을 극복·승화하려 하고 있다.

15 누이의 죽음에 대해 슬픔, 괴로움, 연민, 안타까움, 무상감 등을 느끼고 있지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분노는 '분하게 여겨 몹시 성을 내는 상태'인데, 화자는 상황에 대해 체념하며 받아들이고 있을 뿐, 이를 분하게 여기며 성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누이라는 대상의 죽음, 즉 누이의 부재가 화자가 경험하는 시적 상황에 해당한다. ② 1~4구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5~8구에서 드러난다. ⑤ 9~10구에서 나타난다.

16 화자는 누이의 죽음(= 누이와의 헤어짐)을 수용하면서 미타찰에서의 만남을 기약하고 있다. 화자는 이 만남을 위해 '도 닦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헤어짐의 상황을 '도를 닦으며 기다리는' 의지적 행동을 통해 극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도를 닦는' 것을 스스로를 고통 속에 던지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③ 누이의 이른 죽음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으므로 삶의 허무를 느낀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화자가 그런 허무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공동체적 연대가 아니라 종교적 자세이다. ④ 현실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거리를 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생사의 운명을 수용한 것이므로 '초월'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다. ⑤ 누이의 죽음을 화자에게 가해지는 '현실적 고난'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극적 저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17 ㉠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종교적 이상 공간으로, 화자가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지향하는 곳이다.

오답 해설 ① 현실로부터 도피한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슬픔을 극복한 공간이다. ②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③ 비애를 극복한 공간이다. ⑤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현실적 세계에 해당하는 것은 '예'이다.

18 '가지'는 떨어지는 잎이 났던 곳이다. 여기서 '잎'은 누이동생을 비유한 것이므로, '한 가지'는 그런 누이와 화자가 같이 났던 곳, 즉 같은 부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③ '이른'이라는 표현은 상황이 예상보다 빨랐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바람'은 누이에 해당하는 잎의 떨어짐과 연결되므로, '이른 바람'은 예기치 못하게 빨랐던 누이의 죽음, 즉 요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 ⓐ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간 존재로, 예기치 않게 죽음을 맞이한 누이에 해당하고, ⓑ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존재로, 시적 화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③ ⓐ의 누이가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16~019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④ 06 ④ 07 ⑤ 08 ①
09 ③ 10 ② 11 ② 12 ④ 13 ② 14 ④ 15 ③ 16 ④
17 ① 18 ④ 19 ③

▸ (나) 오백 년 도읍지를~_길재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회고적, 감상적
주제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와 인생무상
해제	고려의 옛 신하인 작자가 폐허가 되어 버린 고려의 옛 도읍지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회를 노래한 시조로, 망국의 한과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음. 자연('산천')과 인간('인걸')을 대비하여 무상함을, 비유적 표현('태평연월'='꿈')을 사용하여 고려 멸망의 한을 드러내고 있음.

01 10구체 향가인 (가)는 9구에서 '아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시조인 (나)는 종장에서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공통점은 10구체 향가와 시조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근거 중 하나로 간주된다.

오답 해설 ① 4음보의 율격을 가진 것은 시조인 (나)이다. ②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가)의 '미타찰에서 만날 나'에서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나'로 드러나 있다. ③ 두 작품 모두 3단 구성의 짜임을 취하고 있다. (가)는 '4구 + 4구 + 2구' 형태의, (나)는 '초장 + 중장 + 종장' 형태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3단 구성이라는 공통점은 10구체 향가와 시조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또 다른 근거로 간주된다. ④ 두 작품 모두 정서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서정 갈래에 속한다. 이야기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징이다.

02 (가)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비애'와 '안타까움'을 느끼며 '한탄'하고 있다. 나아가 죽음을 인간의 숙명이라고 인식하면서 '무상감'도 느끼고 있다. (나)의 화자는 고려 왕조의 멸망이라는 현실에 대해 '비애'와 '안타까움'을 느끼며 '한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변함없는 자연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 대비하면서 '무상감' 또한 느끼고 있다. 그러나 '다짐'은 미타찰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며 도를 닦겠다는 (가)의 화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태도이다.

03 (가)의 '아아'는 앞부분에서 심화된 고뇌와 슬픔이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되는 순간이다. 또 (나)의 '어즈버'는 몰락한 고려의 수도를 돌아보며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이 집약된 감탄사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감탄사를 사용하여 작품의 시상을 전환하고 정서를 집약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기다리겠노라'에 사용된 어미 '-노라'에는 의지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나)의 '하노라'에 사용된 어미 '-노라'에는 영탄(탄식)의 의미만 담겨 있다. ② (가), (나) 모두 구절의 반복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구절을 맞세우는 방식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대구이다. 대구는 (가)가 아니라 (나)의 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물음의 형식으로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가)는 4구에서 물음의 형식으로 슬픔과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다.

04 ㉤은 '태평연월(영화로웠던 고려 왕조)'을 '꿈'에 비유함으로써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고려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누이의 죽음을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에 비유하고 있다. '이른 바람'이라는 표현 속에는 누이의 죽음이 예기치 못할 정도로 빨랐다는 인식과 그로 인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② 누이와 이별한 인간적 슬픔을 미타찰이라는 극락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며 도를 닦는 행위, 즉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③ '오백 년'이라는 시간, '도읍지'라는 장소의 제시를 통해, 오백 년 동안 도읍지였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은 현재의 상황, 즉 단절된 고려 왕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④ 자연('산천')은 변함없는데 고려의 옛 충신들('인걸')은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인생무상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05 (가)의 '미타찰'은 인간적 슬픔이 승화된 공간으로,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나)의 '태평연월'은 영화로웠던 옛 고려 왕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이상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생사 길'은 화자가 처한 현실의 상황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나)의 '인걸'은 현실에 부재하는 존재이므로 화자가 처한 현실의 상황과 거리가 멀다. ② (가)의 '예'는 화자가 경험하는 현실에 해당하고, (나)의 '오백 년 도읍지'는 화자가 처한 현실의 과거 모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 (가)의 '잎'은 대상의 죽음, (나)의 '필마'는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함축하는 것이다. 이상에 이르지 못하고 좌절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⑤ (가)의 '도'는 이상에 이르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꿈'은 화자의 허망감을 표현한 것일 뿐 노력과는 무관하다.

06 (가)의 '잎'은 인간의 삶과 공통적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그려졌고, (나)의 '산천'은 인간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그려졌다. (나)의 중장에서는 변함없는 자연('산천')과 변해 버린 인간(간 데 없는 '인걸')을 대비하면서 무상감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잎'이나 '산천'이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그려진 것은 아니다. ② '잎'은 한 가지에 나고 제각기 떨어진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과 공통적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그려졌을 뿐 친화나 합일의 대상은 아니다. ③ '잎'이 '도'를 닦는 자세를 일깨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화자가 '산천'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유와 향락의 대상은 아니다.

Plus 〈참고〉 자연(물)의 역할

향유·향락	'향유'는 '누리어 가짐.', '향락'은 '쾌락을 누림.'을 의미하는 말로, 자연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얻는 경우에 해당한다.
친화·합일	'친화'는 '사이좋게 잘 어울림.', '합일'은 '둘 이상이 합하여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말로,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자연 속에 살거나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감정 이입	'감정 이입'은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자연물을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그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07 ⓐ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간 인물로, 시적 대상인 누이이다. 그러나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그런 누이와 이별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인물로, 시적 화자이다. 따라서 ⓐ가 '미타찰에서 만날 나'로 변모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는 행위를 하는 주체로,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유발한다. ③ 화자로 하여금 '어찌 갑니까'라고 묻게 하는 인물이다. ④ 5~8구에서 화자는 가는 곳 모르고 가는 것을 인간의 숙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와 ⓐ 모두 그런 숙명을 지닌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08 '한 가지'는 출처가 같다는 의미이므로 같은 부모, 혹은 혈육을, '가는 곳 모르고 떨어지는 잎'은 제각기 죽게 되는 인간의 숙명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9 화자가 '오백 년 도읍지'였던 곳에 돌아와 현실의 변화를 한탄하는 한편, 옛 왕조의 영화를 떠올리며 회한에 잠기고 있다는 점에서, 왕조가 바뀌는 역사의 전환기, 곧 변혁기에 선 지식인의 고뇌를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전의 시대를 그리워하며 한탄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결의(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해학(익살스럽고도 품위 있게 희롱하는 방법)과 관련된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비애와 한탄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 속에서의 호연지기(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와는 거리가 있다. ⑤ 부당한 현실을 감내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

▸ (나) 강우(降雨)_김춘수

핵심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감각적
주제	아내와 사별한 슬픔과 절망감
해제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허전함과 슬픔을 그린 작품.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날 법한 장면을 통해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비가 내리는 상황과 화자의 슬픔·절망감을 연결 지어 표현함.

10 (가)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 무상감을 종교적 다짐을 통해 승화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내('이 사람')의 죽음을 인식해 가면서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고 체념하고 있다. 누이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은 그 대상들이 화자와 같이 있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대상의 부재(不在: 그곳에 있지 아니함.)'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의 부재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드러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누이나 아내가 죽은 현실을 '부정적 현실'로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이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두 작품 모두 한 명의 화자가 이야기하는 형식이다. (가)의 '나는 간다'는 화자가 누이의 말을 인용한 것일 뿐, 누이가 시적 화자가 되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④ 자연과 인간의 대비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는 자연('잎')과 인간을 공통적 속성을 지닌 관계로 보고 있으며, (나)는 자연('비')을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⑤ (가)에만 바람직한 세계('미타찰')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은 아니다.

11 (가)는 '떨어지는 잎', (나)는 '내리는(퍼붓는) 비'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떨어짐'이나 '내림'은 모두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로, 하강(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여 내려옴.)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오답 해설 ① '아아'라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나타낸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가)와 (나) 모두 반어나 역설은 보이지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 곧 의인법이 사용된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대구법은 보이지 않는다.

Plus 〈참고〉 반어, 역설, 의인, 대구

반어	반대로 말하는 방법. 겉으로 표현된 의미와 속에 숨어 있는 참의미가 서로 반대되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참의미가 부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역설	말이 안 되게 말하는 방법. 얼핏 보기에는 이치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법이다.
의인	사람에 비겨 표현하는 방법.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이 느끼거나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대구	구절을 짝 지어 나타내는 방법. 비슷한 어조나 가락을 지닌 어구를 짝지어서 표현의 묘미를 살리는 방법이다.

12 [C]에서 아내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 아내를 찾던 화자는 '아니 아니'를 계기로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체념하게 된다. 따라서 [C]에서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던 화자가 [D]에서 현실의 실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B]는 '아아'를 계기로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C]→[D]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화자가 '아니 아니'를 계기로 현실을 받아들이며 절망하게 되는 것이므로,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다. ② [A]→[B]에는 시간의 흐름이, [C]→[D]에는 공간의 이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③ [A]에서의 개인적·현실적 슬픔이 [B]에서 종교적으로 승화되고 있지만 화자의 관심이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앞부분에서 풍경을 묘사하고 뒷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선경후정의 방식인데, 두 작품 모두 이와는 관련이 없다.

13 3~4구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간, 즉 예기치 못한 죽음과 그로 인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자유가 억압되는 '억압적 현실'이나, 그에 대한 '반발심(반항하려는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생사 길'이 늘 '예(여기=현실)에 있기 때문에 머뭇거린다(두렵다)고 표현하고 있다.

14 밥상이 차려진 일상의 풍경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일상의 풍경 속에서 이제는 일상이 아닌 존재(죽은 아내)를 찾다가 그의 부재를 깨닫게 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애상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화자의 정서는 만족감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감이다.

오답 해설 ① '어디로 갔나'라는 구절의 반복을 통해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② 후각(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 청각(메아리가 되어 들리는 화자의 목소리), 시각(어둠 속에서 내리는 비)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부재라는 현실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③ 객관적 상관물인 '비'를 활용하여 화자의 슬픔과 그것의 고조를 그리고 있다. 즉 '어둠을 적시며' 오다가 '느닷없이' 퍼붓는 '비'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자연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아니 아니' 이전의 부분에서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내를 찾는 화자의 모습을 독백조로 나타내어 애상감을 부각하고 있다.

Plus 〈참고〉 객관적 상관물

개념	화자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대상(소재)으로서 화자의 정서나 사상(생각)을 표현하는 데 활용되는 사물이나 정황, 사건 등을 말한다.
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연 → 화자의 비통한 심정을 물(냇물)에 이입하여 표현함. '물'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

15 화자는 아내가 곁에 있던 때 그랬던 것처럼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는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의 밥상은 사실 아내가 차려놓은 것이 아니다. 아내는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와 관련된 화자의 마음 상태를 평온함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는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들어주어야 할 아내가 없어서 화자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④ ㉱는 아내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서 느끼는 허전함과 쓸쓸함을 표현한 것이다. ⑤ ㉲에는 아내를 만날 수도 없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는 현실에 체념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16 ㉠과 ㉡은 모두 의문의 형식을 빌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것인데, ㉠과 달리 ㉡은 계속 반복되면서 이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비판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질문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③ ㉠과 ㉡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⑤ ㉠과 ㉡ 모두 시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17 ⓑ, ⓓ는 시적 화자, ⓐ, ⓒ는 시적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② ⓐ와 ⓒ의 죽음이 각각 ⓑ와 ⓓ의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④ ⓐ의 죽음은 ⓑ에게 인생무상을 환기하고, ⓒ의 죽음은 ⓓ에게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리는 공허감을 환기하고 있다. ⑤ ⓑ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지만, ⓓ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다.

18 (나)의 화자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체념하고 있다. 따라서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거나 '삶의 의지를 다지려' 한다는 말은 (나)의 화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② (나)의 화자가 아내가 부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③ (가)의 5~8구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와 부합한다. ⑤ (가)의 9~10구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와 부합한다.

19 '밖을 기웃거'리는 이유는 혹시나 밖에 아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밖을 기웃거린다'는 표현은,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화자의 심정을 행동으로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어둠을 적신다'는 시각을 촉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으로, 내리는 비와 어둠(=화자의 어두운 심정)을 조응하는 것으로 그리면서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Plus 〈참고〉 공감각적 표현

개념	한 종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
예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김광균, 〈외인촌〉 → 청각인 종소리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것으로 시각화된 공감각적 표현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20~021쪽

01 (1)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불행(예기치 못한 죽음) (2) 죽은 누이(언젠가는 죽는 인간의 숙명) (3) 같은 부모(혈육) **02** (1) 1~4구에서는 누이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 안타까움을 제시하고, 5~8구에서는 그러한 슬픔을 인생무상의 정서로까지 확장시키고, 9~10구에서는 앞서의 인간적·현실적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2) '아아'라는 시어를 기준으로 둘로 나뉘는데, '아아'는 정서의 고양을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03** 10구체 향가와 시조는 모두 3단 구성 형식이고, 10구체 향가의 낙구에 나타나는 감탄사는 시조 종장의 첫 구에서도 나타난다. **04** ㉠은 시적 대상인 누이이고 ㉡은 시적 화자이다. **05** '예'는 삶과 죽음, 슬픔이 있는 이 세상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공간, 이별의 공간이고, '미타찰'은 현실의 슬픔이 승화·극복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소망의 공간, 만남의 공간이다.

04 ㉠은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간 시적 대상이고 ㉡은 그런 시적 대상과의 만남을 다짐하는 화자이다.

05 화자는 '예'라는 현실의 공간에서 이별과 슬픔을 경험하지만, '미타찰'이라는 공간을 소망하면서 그러한 슬픔을 승화·극복하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22~02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05 '체념과 탄식 → 인생무상 → 종교적 승화'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07 3단 구성 형식과 9구에 사용된 감탄사가 시조와의 연관성을 보여 준다.

08 구절의 반복은 드러나지 않는다.

11 '나는 간다'는 말도 이르지 못한 것은 화자가 아니라 시적 대상인 누이이다. 따라서 '화자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은 적절하지 않다.

12 무심한 누이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이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18 5~8구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비유적으로 연결하면서 인생무상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1 옛 노래 감상하기_❷ 속미인곡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26~031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⑤	05 ②	06 ②	07 ⑤	08 ⑤
09 ⑤	10 ④	11 ①	12 ②	13 ①	14 ④	15 ④	16 ②
17 ②	18 ④	19 ⑤	20 ④	21 ②	22 ④		

01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엇디ᄒᆞ야 디내시며 / 츄일(秋日) 동텬(冬天)은 뉘라셔 뫼셧ᄂᆞᆫ고.'에서 계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정서를 노래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4음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 가사이다. ② '낙월(落月)', '구즌비'와 같은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③ '하ᄂᆞ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 '내 ᄆᆞᄋᆞᆷ 둘 ᄃᆡ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등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④ '놉픈 뫼 → 믈ᄀᆞ → 모쳠(茅簷)'이라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행동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02 꿈에서 본 임을 '옥(玉) ᄀᆞᄐᆞᆫ 얼굴'이 늙어 버린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임의 곁에 없는 상황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랑의 허망함과 인생무상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ᄒᆡ 다 뎌 져믄 날'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화자의 쓸쓸한 처지가 조응하면서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 '놉픈 뫼'에 오르고 '믈ᄀᆞ'를 찾아가는 화자의 행동이 '구롬, 안개, ᄇᆞ람, 믈결' 등의 방해로 인해 좌절되고 있다. 따라서 '구롬, 안개, ᄇᆞ람, 믈결' 등을 장애물로 설정하여 화자의 소망이 좌절되는 상황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차다(← 촌 자리)'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독한 화자의 심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ᄃᆞᆯ'은 멀리서 대상을 비추기만 하므로 소극적 태도, '구즌비'는 대상을 직접 적시므로 적극적 태도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ᄃᆞᆯ'보다는 '구즌비'가 되라고 한 것은, 자신의 사랑을 직접적·적극적으로 전하는 태도를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다.

03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싸혀시니 / 하ᄂᆞ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 / 셜워 플텨 헤니 조믈(造物)의 타시로다'를 보면, 화자는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임에 대한 원망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작품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기나긴 밤의 ᄌᆞᆷ은 엇디 자시ᄂᆞᆫ고'에서 알 수 있다. ④ '모쳠(茅簷) 촌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 반벽(半壁) 청등(靑燈)은 ᄂᆞᆯ 위ᄒᆞ야 ᄇᆞᆯ갓ᄂᆞᆫ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ᄇᆞ라보니 / 어엿븐 그림재 날 조ᄎᆞᆯ ᄲᅮᆫ이로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놉픈 ᄆᆡ'에 올라가고 'ᄆᆞᆯᄀᆞ'에 가 뱃길을 보려 하는 등 애를 쓰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과 ㉡은 주도적 인물의 사설을 이끌어 내는 보조적 인물의 사설이고, ㉢부터 '조믈(造物)의 타시로다'까지는 주도적 인물의 사설이다. ㉣은 주도적 인물을 위로하는 보조적 인물의 사설이고, ㉤부터 ㉧까지는 다시 주도적 인물의 사설이다. ㉦은 주도적 인물의 사설에 의견을 덧붙여 첨언을 하는 보조적 인물의 사설이다. 따라서 주도적 인물의 사설(가)은 ㉢, ㉤, ㉧이고 보조적 인물의 사설(나)은 ㉠, ㉡, ㉣, ㉦이다.

05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 즉ᄒᆞᆫ가마ᄂᆞᆫ'은 작자가 조정을 떠나기 전의 상황, 즉 임금의 곁에 머물던 때의 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처하게 된 자신의 상황, 즉 조정을 떠난 상황에 대한 자책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텬상(天上) ᄇᆡᆨ옥경(白玉京)'은 임금이 있는 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텬상(天上) ᄇᆡᆨ옥경(白玉京)을 이별한 이유를 묻는 질문은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조믈(造物)의 타시로다'에는 자신의 상황을 조물주에 의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어엿븐 (자신의) 그림자'만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뜻이므로, 임금의 곁을 떠나 홀로 지내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죽어서도 달이 되어 임금을 비추고 싶다는 뜻이므로,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6 임과의 만남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기 때문에 꿈에서 임을 만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꿈은 임과의 만남이라는 소망의 간절함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꿈속의 상황은 실제 현실의 모습이 아니다. ③ 꿈이 미래의 만남을 암시한 것은 아니다. ④ 임과의 만남은 화자의 변치 않는 소망이다. 따라서 그 소망이 발현된 현상인 꿈은, 그 헛됨을 풍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임과의 만남이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기는 하지만 '당위성(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과는 거리가 있다.

07 〈보기〉의 '개'는 미운 임이 오면 반기고 고운 임이 오면 짖어서 돌아가게 하므로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며, 화자에게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된다. ㉤도 화자의 잠을 깨워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며,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된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 곧 임에 해당한다. ②·③ 쓸쓸하고 처량한 화자의 처지가 투영된 객관적 상관물이다.

Plus 〈보기〉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_작자 미상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
해제	임이 오지 않는 책임을 개에게 전가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함.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개의 행동을 해학적·사실적으로 그림.

08 화자는 대상(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텬상(天上) ᄇᆡᆨ옥경(白玉京)'에 있는 임과 이별한 후의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②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기나긴 밤의 ᄌᆞᆷ은 엇디 자시ᄂᆞᆫ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놉픈 뫼'에 올라가고 'ᄆᆞᆯᄀᆞ'에 가 뱃길을 보려 하는 등 애를 쓰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반벽(半壁) 청등(靑燈)은 ᄂᆞᆯ 위ᄒᆞ야 ᄇᆞᆯ갓ᄂᆞᆫ고', '어엿븐 그림재 날 조ᄎᆞᆯ ᄲᅮᆫ이로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09 마지막 부분에서 '여인 1'이 '각시님 ᄃᆞᆯ이야ᄏᆞ니와 구즌비나 되쇼셔'라며 '여인 2'에게 조언하고 있지만, '여인 2'가 이에 따라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ᄃᆡ 가ᄂᆞᆫ 뎌 각시~눌을 보라 가시ᄂᆞᆫ고'에서 '여인 1'은 백옥경을 이별하고 홀로 있는 '여인 2'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 이유에 대한 '여인 2'의 발화를 유도하고 있다. ② '여인 1'은 '어와 네여이고~조믈(造物)의 타시로다'라며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자책하는 '여인 2'를 '글란 싱각 마오'라고 위로하며 사연을 들어주고 있다. ③ '여인 2'는 'ᄆᆡ친 일이 이셔이다~번드시 비최리라'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하소연하며 홀로 지내는 서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④ '여인 1'은 'ᄎᆞᆯ하리 싀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 님 겨신 창(窓) 안희 번드시 비최리라'라고 말하는 '여인 2'의 소망을 이해하고 '각시님 ᄃᆞᆯ이야ᄏᆞ니와 구즌비나 되쇼셔'라며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권유하고 있다.

10 '오뎐된 계셩(鷄聲)'은 꿈에서나마 임과의 만남을 이루려는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고, 임과 이별한 현실을 일깨우는 존재이다. 따

라서 화자가 원망하는(탓하는) 대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 원망에 담겨 있는 것은 임금과의 만남을 방해한 것에 대한 감정이지 자신을 잊은 임금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임금을 떠난 작가의 처지를 임을 잃은 여인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군신 관계를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별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내 몸의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어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③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놉픈 뫼'에 올랐던 화자는 구름과 안개의 방해로 인해 '쳔 리(千里)'를 바라볼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여기서 '쳔 리'는 화자와 임 사이의 거리감을 나타낸 것으로, 유배지에서 느끼는 이별의 슬픔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낙월(落月)'에는 죽어서라도 임 곁에 있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데, 이는 임금을 연모하는 작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Plus 〈참고〉 우의적 형상화

개념	특정 내용을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예	임금을 떠난 작가의 처지 → 임과 이별한 여인의 상황 – 정철, 〈속미인곡〉

11 이 글은 가사, 〈보기〉는 시조인데, 두 갈래 모두 4음보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는 '어와' 등의 감탄사가 사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시상이 전환된 것은 아니다. 〈보기〉에는 감탄사의 활용도, 시상의 전환도 보이지 않는다. ③·④·⑤ 이 글과 〈보기〉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다.

Plus 〈보기〉 이 몸이 주거 주거~_정몸주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직설적, 의지적
주제	임금(고려의 왕)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
해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단호하게 표현함. 직설적인 언어와 반복법, 점층법, 설의법 등의 표현 기교를 통해 굳은 의지를 드러냄.

12 이 글에서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놉픈 뫼'에 오르거나 '믈ᄀᆞ'를 헤매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화자의 절실한 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는 화자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죽어서 '낙월(落月)'이 되어서라도 임 곁에 있고 싶다고 하였고, 〈보기〉에서는 죽어서도 임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 화자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죽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③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이 글의 주제 의식이 〈보기〉에서는 '일편단심'이라는 시어를 통해 직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④ 〈보기〉의 초·중장은 '주거'를 반복하고 점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단호한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층적 반복이 보이지 않는다. ⑤ 이 글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정서의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보기〉는 직설적이고 남성적인 목소리로 단호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13 ㉠은 화자가 임을 좀 더 잘 보고 싶어서 선택한 곳일 뿐, 탈속적 공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임을 보려는 화자의 소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③ 임에게 갈 수 있는 길이므로, 화자가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통로에 해당한다. ④ 밝음을 누릴 사람도 없이 홀로 켜져 있는 청등은, 임 없이 외로이 지내는 화자의 처지와 유사하다. ⑤ 임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서 임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14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고자 높은 산에 올라갔으나 구름과 안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강가로 내려와 뱃길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세게 이는 데다가 사공마저 보이지 않아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에 적합한 내용은 임의 소식을 더욱 알기 어렵다는 내용이 와야 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시냇물이) 넓거든 길지나 말고, 푸르거든 희지나 말 것이지.(송순, 〈면앙정가〉) ②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많기도 하구나.(정철, 〈사미인곡〉) ③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가는 것이 어찌 이상할까.(정철, 〈관동별곡〉) ⑤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저 들녘이 바로 그것인가.(정극인, 〈상춘곡〉)

15 실제의 뜻과 반대로 말하는 반어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 '내 ᄆᆞᅀᆞᆷ 둘 ᄃᆡ 업다 어드러로 가잣 말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여인 1의 질문 → 여인 2의 답변 → 여인 1의 위로 → 여인 2의 하소연 → 여인 1의 조언'과 같은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③ '잡거니 밀거니', '오ᄅᆞ며 ᄂᆞ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사랑의 감정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Plus 〈참고〉 반어

개념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예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16 화자는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한 상황에서 그와의 연결을 바라며 높은 산에 오르기도 하고 뱃길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여러 방해물들로 인해 좌절되자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꿈속에서 대상을 만나지만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하게 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재회를 소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만 종교에 귀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⑤ 임과 이별한 상황을 돌이키기 위해(임과의 만남을 바라며)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고,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겠다는 재회의 소망도 꺾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과의 이별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며 자포자기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17 ㉠은 '텬상(天上) ᄇᆡᆨ옥경(白玉京)'을 이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내 얼굴 이 거동이~조믈(造物)의 타시로다'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화자는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싸혀시니'라며 임과 이별한 이유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④·⑤ 자책과 회한만이 드러난다. ③ 임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18 'ᄆᆞᅀᆞᆷ의 머근 말ᄉᆞᆷ 슬ᄏᆞ장 ᄉᆞᆲ쟈 ᄒᆞ니~오뎐된 계셩(鷄聲)의 ᄌᆞᆷ은 엇디 ᄭᆡ돗던고'를 보면, 화자는 임에게 실컷 사뢰고 싶었지만 결국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컷 하소연하다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님 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ᄒᆞ니~님 다히 쇼식(消息)이 더옥 아득ᄒᆞᆫ뎌이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② '반벽(半壁) 쳥등(靑燈)은 눌 위ᄒᆞ야 ᄇᆞᆯ갓ᄂᆞᆫ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 '옥(玉) ᄀᆞᄐᆞᆫ 얼구리 반(半)이나 마 늘거셰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촐하리 싀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 님 겨신 창(窓) 안희 번드시 비최리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9 ㉡은 화자의 잠을 깨워 임과 만나는 꿈속 상황을 방해하고, 임이 부재한 현실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동시에 임이 부재하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기럭이'는 노모에게 화자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물이지만, 날지 않는다. 즉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모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깨닫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임과 만나는 꿈에서 깨게 하는 ㉡은 화자의 소망 실현을 방해하고, 화자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기럭이'는 화자의 소망 실현에 기여하지 않는다. ② 모두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대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③·④ 이 글과

〈보기〉 모두와 거리가 먼 내용이며, ㉢과 '기럭이'도 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Plus 〈보기〉 사노친곡_이담명

갈래	평시조, 연시조(전 12수)
성격	애상적
주제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해제	유배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노래함.

20 '지쳑(咫尺)을 모ᄅᆞ거든 쳔 리(千里)를 ᄇᆞ라보랴'라는 구절은, 임과의 거리를 '쳔 리'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고, 앞뒤 구절에서 '지쳑'과 '쳔 리'를 대조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앞에 쓰인 '산쳔(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라는 구절과는 대구를 이루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대구, 대조, 거리감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허난설헌, 〈규원가〉 – 임에 대한 하염없는 기다림과 그리움을 표현한 부분) ② 대구, 대조가 확인되지 않는다.(송순, 〈면앙정가〉 – 면앙정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 ③ 대조나 거리감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구도 해당 구절 내에서만 나타난다.(허난설헌, 〈규원가〉 – 임에 대한 하염없는 기다림과 그리움을 표현한 부분) ⑤ 거리감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 구절과 문장 구조가 유사하긴 하지만 앞 구절은 상황과 대상, 선택지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대구로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해당 구절 내에서 대구가 나타난다. 또한 '부족'과 '유여'에서 대조적인 의미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는 모두 '부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므로 앞뒤 구절이 의미상 대조된다고 볼 수도 없다.(송순, 〈면앙정가〉 – 자연을 즐기기에 분주한 마음, 곧 풍류 생활의 즐거움을 표현한 부분)

Plus 〈참고〉 대구와 대조

대구	비슷한 어조나 가락을 지닌 어구를 짝지어서 표현의 묘미를 살리는 방법
대조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맞세워 주제를 강조하거나 인상을 선명하게 하는 방법

⬇

대조법은 의미상 반대인 내용을 맞세우는 것인 반면,
대구법은 의미보다는 비슷한 가락을 맞세웠느냐에 주목하는 것임.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대구법, 내용상으로는 대조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21 ⓐ는 하늘에 떠 있으면서 지상의 존재를 바라만 보는 존재로, 소극적 사랑의 태도를 상징한다. 반면 ⓑ는 하늘에 머물지 않고 대상이 있는 지상으로 직접 떨어져 내리는 존재로 적극적 사랑의 태도를 상징한다.

22 임과의 재회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비극적 초월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싀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겠다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죽어서 달이 되어 임을 비추겠다는 비극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모쳠(茅簷) 춘 자리'는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쓸쓸한 처지를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에서 임의 부재, 곧 '화자와 임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거리'를 알 수 있다. ② 높은 뫼에 오르고 뱃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임을 보고 임의 소식을 들으려 애쓰는 행동으로, '임과의 거리를 좁혀 보려는 화자의 간절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③ '구룸'과 '안개'는 높은 뫼에 올라 '일월(日月)', 곧 임을 보려는 화자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ᄇᆞ람'과 '믈결'은 임에게 갈 뱃길이나 보려는 화자의 의도를 좌절시킨다. 따라서 이것들은 임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화자의 노력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 볼 수 있다. ⑤ 현실에서는 도저히 임을 만날 수 없기에 '촐하리 싀여디여'라고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죽기 전에는 임과의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오는 실의와 고뇌가 담긴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32~035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④ 05 ② 06 ① 07 ① 08 ①
09 ② 10 ⑤ 11 ③ 12 ②

▸ (가) 꿈과 근심_한용운

핵심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염원
해제	'꿈'과 '근심'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표현함. 반복(어휘, 통사 구조), 대조(꿈 ↔ 근심, 길다 ↔ 짜르다), 가정(3연) 등을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임.

▸ (나) 기다림_김종해

핵심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감각적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해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자수를 놓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간절한 기다림과 외로움을 형상화함. '왜 아니 오시나요 왜 아니 오시나요'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애절함을 부각함.

01 (가)는 '밤'과 '새벽', (나)는 '날빛이 서창에 걸리고'와 '밤', (다)는 '밤듕' 등의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다) 모두 그리움이 지속·심화되고 있을 뿐 시상의 전환은 보이지 않는다. ③ (가)에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화자의 구체적 행동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낙월(落月)'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대상과 함께하려는 마음을 드러낸 (다)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이 마음에 맺혀 있는 철천지 원망'을 언급한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02 ⓐ는 임이 오는 길을 밝히는 것으로, 화자의 원망과 아픔이 승화된 사랑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는 임을 만나려는 소망이 좌절된 화자가 집에 돌아와 마주한 것으로, 밝음을 누릴 대상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처지를 상기시키면서 외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④ ⓑ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만, ⓐ는 화자가 갈등하는 원인이 아니다.

03 통사 구조의 반복은 〈보기〉가 아닌 (가)에서 확인된다. (가)는 1연과 2연에서 '~기에 ~더니'라는 통사 구조(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만일 님에게도 / 꿈과 근심이 있거든', 〈보기〉의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어든'에 각각 상황에 대한 가정이 나타난다. ② (가)는 추상적 개념인 '꿈'과 '근심'을 '짧거나 긴', 즉 구체적 형상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보기〉는 시간('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베고 접고 펼 수 있는', 즉 구체적 형상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보기〉는 겨울('동지ㅅ돌')이라는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가)에는 계절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보기〉는 '서리서리', '구뷔구뷔'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Plus 〈보기〉 동지(冬至)ㅅ돌 기나긴 밤을~_황진이

갈래	평시조
성격	감상적, 낭만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해제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애타는 마음을,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는 방식을 통해 참신하게 표현함.

Plus 〈참고〉 음성 상징어

개념	어떤 특정한 뜻이나 인상을 상징적인 음성으로 나타낸 것. 소리를 흉내 내는 소리인 의성어나 모양을 흉내 내는 소리인 의태어가 있다.
예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04 '극락 왕생 별천지에 홀로 단꿈 꾸시나요'에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다.

오답 해설 ① '까무러치듯'에서 '까무러치듯 캄캄하고'로 시구가 점층적으로 변화되면서 기다림의 고통이 심화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자연물인 '날빛'을 외롭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떨어지고'라는 시어로 하강의 이미지를 조성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아픈 사연 감추옵고'에서 임을 기다리는 고통과 아픔을 견디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5 화자는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만 '구름과 안개' 때문에 '일월(日月)'을 볼 수 없어 '막막한 심정'으로 돌아온다. → 차라리 '물가'로 가 뱃길을 알아보고자 하지만 '바람과 물결' 때문에 뱃사공은 없고 '빈 배'만 걸려 있다(ㄱ). '외로운 마음'에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지만 임의 소식은 알 길이 없다. → 지친 화자는 집으로 돌아와 초가집 '찬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고 꿈속에서 그리운 임을 만나지만 '닭 울음소리'에 '꿈이 깨고' 화자의 마음에는 '안타까움'만 가득하다(ㄴ).

06 '님'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일월'은 그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어엿븐 그림자'는 화자 자신, '사롬'은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람, '샤공'은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 줄 사람을 의미한다.

07 ㉠은 임을 만나러 가는 꿈을 꾸다가 일찍 깨어 버린 아쉬움을 감탄형 어미 '–고나'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임과의 만남에 대한 의지를 기원이나 맹세의 언어로 표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임의 평안(근심이 짧고 꿈이 길.)에 대한 기원을 명령형 어미 '–어라'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의문형 어미 '–나요'를 활용하여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④ 임과의 만남에 대한 바람을, 임을 만나기 위해 '놉픈 뫼'에 오르는 행동의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⑤ 다짐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리라'를 활용하여 사랑에 대한 화자의 맹세를 표현하고 있다.

▸ (나) 주옹설(舟翁說)_권근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수필, 설(說)
성격	비유적, 교훈적
주제	편안한 곳에 처하여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한 경계
해제	손과 주옹의 대화를 통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처세의 방법을 제시함.

08 (가)에서는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나)에서는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등과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옹'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④ (가), (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다. ③ (가)에는 시각적 심상('푸른 등' 등), 청각적 심상('닭 울음'), (나)에는 시각적 심상(배의 모습과 움직임 등)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각시님 달이야커녕 궂은 비나 되소서'에서 '되소서'를 명령형 어조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나)에는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09 (가)의 화자는 작가의 분신으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심을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임과 헤어진 것을 조물주의 탓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여기는(운명을 탓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지 특정 대상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이별한 임은 '천상 백옥경'에 있는 인물이므로 옥황상제인데, 이는 임금과 대응한다. 따라서 '천상 백옥경'은 임금이 있는 궁궐로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꿈속에서 '임'을 만나지만 늙어 버린 임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떨어져 있는 임금에 대한 걱정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반영된 것이다. ④ 자신의 그림자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모습에서 임금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작가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⑤ '낙월'이 되어서라도 '임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려는 것은 '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므로 임금에 대한 작가의 충성심을 알 수 있다.

10 화자는 ⓐ를 통해 임과 만나지만 ⓑ로 인해 그 만남이 방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는 임과의 만남을 매개하고, ⓑ는 임과의 만남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11 '주옹'은 ㉢이 인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 때문에 '주옹'이 위태로움을 느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손'은 ㉠이 변화불측하여 ㉡에서 지내는 것은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은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지만, '주옹'은 오히려 물보다 더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은 편안함만을 좇으며 욕심을 부리다가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의 마음(인심)을 비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위태로운 곳이지만 주옹은 경계를 한다면 육지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있다.

12 '너'는 임과 헤어진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는 중심 인물에게 '그리 생각 마오'라고 말하며 위로하고 있다. 따라서 '너'는 중심 인물을 위로하는 주변 인물, 즉 보조적 인물이지 중심 인물과 대립하는 대립적 인물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너'는 중심 인물에게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유도하는 주변 인물(보조적 인물)이다. ③ '너'는 중심 인물에게 '낙월'보다는 '궂은 비'가 되어 임에게 직접 다가가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주변 인물(보조적 인물)이다. ④ '주옹'은 '손'에게 다시 질문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깨닫도록 유도하며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중심 인물이다. ⑤ '손'은 중심 인물의 삶의 모습에 문제 제기를 하며 대립하고 있는 주변 인물(대립적 인물)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36~037쪽

01 여성을 화자로 선택한 이유는 절절한 사랑의 감정이 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고, 서로 다른 두 명을 화자로 내세운 이유는 화자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화자가 가진 여러 생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02 여인 1은 백옥경을 이별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여인 2는 임과 이별한 이유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03 (1) 궁궐 (2) 임금 (3) 화자와 임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4) 꿈속에서나마 임을 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원망의 대상 04 빈 빈, 청등(靑燈) 05 ㉠ '낙월(落月)'은 소극적인 사랑의 태도를, ㉡ '구존비'

는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를 의미한다. 06 가사인 이 글과 시조의 형식상 공통점은 4음보라는 점이다.

01 〈속미인곡〉은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임금을 그리워하는 작가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작가의 분신이다. 중심 화자가 작가의 주된 생각을 대변하는 가운데 보조적 화자가 중심 화자의 감정을 조절해 주는 한편, 중심 화자와는 다른 생각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작가 자신의 여러 생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04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사공이 없는 '븬 비'와 보는 이 없이 켜져 있는 '쳥등'에 투영되어 표현되고 있다.

05 '낙월(落月)'은 하늘에 떠 있으면서 지상의 존재를 바라만 보는 존재로, 소극적 사랑의 태도를 상징한다. 반면 '구즌비'는 하늘에 머물지 않고 대상이 있는 지상으로 떨어져 대상을 직접 적시는 존재로 적극적 사랑의 태도를 상징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38~03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10 여인 2의 대답에 대하여 여인 1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있다.

13 임에 대한 원망은 보이지 않는다.

15 'ᄇᆞ람'과 '믈결'도 임에게 갈 'ᄇᆡ길히나 보'려는 화자의 의도를 방해하므로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해당한다.

18 임에게 제대로 말도 못한 채 '오뎐된 계셩(鷄聲)'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된다.

21 '어엿븐 그림자'는 독수공방하는 화자 자신의 그림자이다.

02 고전 소설 감상하기_춘향전(春香傳)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42~047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②	06 ②	07 ③	08 ①
09 ③	10 ①	11 ⑤	12 ③	13 ②	14 ⑤	15 ①	16 ②
17 ②	18 ④						

01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영웅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서사 구조이다. 이 글의 주인공들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영웅에 해당하지 않으며, 작품의 내용도 주인공들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오답 해설 ①, ⑤ 염정 설화, 열녀 설화 등의 근원 설화가 판소리 〈춘향가〉로 이어져 고전 소설로 정착된 것이다. ② 어사또(이몽룡)와 본관 사또(변학도)의 갈등이 중심이다. 한 인물 내부의 갈등인 내적 갈등이 아니라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③ 전체적으로는 산문체로 진행되지만 ⓓ과 같은 부분에서는 4(3)·4조 중심의 운문체가 드러난다.

Plus 〈참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

개념	영웅적 인물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서사 구조
구조	고귀한 혈통 → 비정상적 잉태 혹은 출생 → 비범한 능력 → 어려서 버려지고 죽을 고비에 이름. → 구출·조력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힘. →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됨.
주요 작품	〈주몽 신화〉, 〈유충렬전〉 등

02 본관 사또는 어사또가 잔치에 끼어드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어사또를 들이자는 운봉의 뜻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다. 어사또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우리 사또님이 걸인을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라고 말하며 등을 밀쳐 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온갖 깃발이며 삼현 육각 풍류 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 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둥덩실 하는' 본관 사또의 잔치에 대해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 여쭈어라."에서 알 수 있다. ⑤ '어사또가 하직하고 간 연후에 각 아전들을 분부하'여 단속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03 운봉은 몽룡이 지은 한시를 보고 '일이 났다.'는 것을 알아차려 아전들을 단속하고 있다. 사태를 예견하여 재빨리 움직이고 있으므로 눈치가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초라한 행색의 몽룡을 잔치에 들이고, 몽룡의 희롱에 맞장구를 쳐 주는 것으로 보아 너그럽고 융통성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③ 차운을 제안한 것이 몽룡을 쫓아낼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염치가 없다(체면을 차릴 줄 알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⑤ 사정을 모르는 본관 사또에게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이를 '관대하다(마음이 너그럽고 크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04 ⓓ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인 확장적 문체가 드러난 부분이다. '여러 아전들을 불러 단속했다.'라는 한 문장으로 서술되기에 충분한 내용을, 나열·반복을 통해 확장한 것이다. 이는 관객이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을 확장하여 공연하는 판소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런 반복과 나열을 통해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호화로운 잔치의 모습이 소리, 동작, 색깔 등을 통해 감각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미래의 사건이 암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우선 실컷 먹고(← '도적질') 잘잘못은 나중에 가리겠다는(← '오라') 뜻으로, 변 사또를 벌하겠다는 어사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도, 어사또의 '부정적 면모'와도 거리가 멀다. ③ '갈비'라는 동음이의어(음식명인 '갈비'와 인체 기관인 '갈비')를 활용한 것은 맞지만, '상대에 대한 연민'과는 거리가 멀다. 운봉은 연민의 대상이 아니다. ④ 잔치의 모습과 대접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은 맞지만, '상황에 대한 만족감'과는 거리가 멀다. 상황에 대한 비판이 담긴 표현이다.

05 ⓑ는 관객을 앞에 놓고 말하는 듯한 어투로, '독자에게 말 걸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어사또의 심리를 서술자가 판단하여 드러낸 것이다. ③ 본관 사또가 명관이 아님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말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드러낸 것이다. ④ 어사또를 잔치에 끼워 준 본관 사또의 심정을 서술자가 판단하여 드러낸 것이다. ⑤ 어사또를 푸대접하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06 [A]는 탐관오리의 가렴주구(苛斂誅求)를 비판한 것으로, 주인공의 단호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단호한 태도는 심리적 갈등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③ 1구와 2구, 3구와 4구, 3구의 앞과 뒤, 4구의 앞과 뒤가 각각 대구를 이루고 있고(대구법), '술'과 '안주'가 각각 '백성의 피'와 '백성의 기름'에 비유되면서(은유법) 부패한 관리의 탐욕과 착취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1~4구의 앞부분은 화려한 생일잔치를, 1~4구의 뒷부분은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삶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A]로 인해 아전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고, 본관 사또 징계(암행어사 출두)와 같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

07 어사 출두라는 극적 사건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춘향과 몽룡이 해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역순행적이 아니라, 시간적 순서에 따르는 순행적 구성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내적 독백은 보이지 않는다. ④ 서술자의 교체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요약적 서술을 통한 압축적 제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Plus 〈참고〉 역순행적 구성과 요약적 서술

역순행적 구성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 달리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구성 방식
요약적 서술	서술자가 사건의 내용이나 인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 요약, 해설하는 방식

08 어사또가 출두하자 본관 사또는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새앙쥐 눈뜨듯 하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한다. 어사 출두에 당황한 본관 사또가 도망을 가서 숨으려 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심문(자세히 따져서 물음.) 과정 없이 바로 봉고파직한다. ③ 어사또가 출두하자 넋을 잃고 허둥댄 것은 역졸이 아니라 아전이다. ④ 어사 출두 과정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은 아전이 아니라 역졸이다. ⑤ 옥형리는 어사또에게 춘향의 죄목을 아뢸 뿐 억울함을 대신 호소하고 있지는 않다.

09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은 '일이 안 될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에서 공방은 안 하겠다는 공방을 하라고 해서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며 사태의 책임을 변 사또에게 돌리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초록은 동색'은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패가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공방은 변 사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므로 '옹호(두둔하고 편들어 지킴.)'와는 거리가 멀다. ②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는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공방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④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공방의 태도는 '여유'와는 거리가 멀다.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노여움을 애매한 다른 데로 옮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공방은 변 사또에 대한 원망을 암행어사에게 돌리고 있지 않다.

10 ㉡은 '문'과 '바람', '물'과 '목'을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이다. ①도 '이'와 '말'을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매아미 맵다 울고 쓰르라미 쓰다 우네. ③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남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서방'과 서쪽 방향을 이르는 말인 '서방(西方)'의 음이 같음을 이용하고 있다. '서방'을 '서방(西方)'으로 바꾸고 여기에 역시 방향을 나타내는 '남방(南方)'을 덧붙여 표현하고 있다. ④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열녀(烈女)'와 '열녀[十女]'의 음이 같음을 이용하고 있다. '열녀(烈女)'를 '열녀[十女]'로 바꾸고 여기에 역시 숫자의 의미를 담은 '백녀(百女)'를 덧붙여 표현하고 있다. ⑤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거 신 것으로 그리 많이 먹어, 그놈은 낳드라도 안 시건방질가 몰라.

11 ⓔ는 상대에 대한 반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거동 보소'는 관객에게 말을 거는 판소리의 특징이 나타난 서술로, 독자를 앞에 놓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독자의 주목을 끄는 효과가 있다. ②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하여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탐관오리에게 고통 받던 백성들이 해방되고 옥에 갇혀 있는 춘향도 풀려날 것임을 암시한다. ③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소리가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다고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암행어사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인궤 잃고(4) 강정 들고(4), 병부 잃고(4) 송편 들고(4)'와 같이 4·4조의 운율을 사용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인 율문성(언어의 배열에 일정한 규율 또는 운율이 있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Plus 〈참고〉 반어와 역설

반어	실제와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본래의 뜻이나 상태를 강조하려는 표현
역설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12 공간 이동의 이유는 본관 사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대감, 곧 어사또의 아버지에 대한 예우이다.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客舍)로 옮겨라."에서 전관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차원에서 객사로 이동할 것을 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남문에서, "출두야." ~ "애고 박 터졌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인궤 잃고 강정 들고 ~ 칼집 쥐고 오줌 누기.'에서 엉뚱한 것을 들거나 쓰는 인물들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열거하면서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④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 눈이 온들 변하리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절개를 '층암절벽 높은 바위',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앞뒤의 두 구를 대구로 연결하고 있으며, '변하리까'에서 설의의 방식을 활용하여 절개를 지키려는 자신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춘풍(李花春風) 날 살린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화춘풍(李花春風)'은 봄바람과 어사가 된 이몽룡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3 배경에 대한 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③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쏜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때 어사또는 ~ 길이 전하더라.'에서 춘향과 몽룡의 이후 삶(여생)을 요약적 서술을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입신양명, 신분 상승, 자손 번창 등 행복한 결말을 보이고 있다.

14 '어사또 남원의 공무 다한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갈새'로 보아 춘향은 어미, 향단이와 함께 남원을 떠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客舍)로 옮겨라."에서 알 수 있다. ② "내려오는 관장마다 ~ 어서 바삐 죽여 주오."에서 알 수 있다. ③ 어사또는 수청 요구로 춘향을 시험하고, 춘향이 정절을 드러내며 수청을 거부하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④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어미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하랴.'에서 알 수 있다.

15 어사또는 춘향을 꾸짖는 척하며 수청을 요구하고 있다. 춘향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반가움 등의 본심을 숨긴 채 불의한 지배층으로 가장하여 춘향의 정절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③, ⑤ 겉으로는 질타하며 겁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용서'나 '회유(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함.)', '반성 촉구', '최선의 해결 방안 제시'와는 거리가 멀다. ④ 어사또가 가장한 모습일 뿐 어사또의 진의가 아니므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수청을 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16 [A]는 반어, 대구, 비유, 설의의 방식으로, [B]는 대구, 비유, 대조, 중의의 방식으로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과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A]의 '청송녹죽(靑松綠竹)', [B]의 '이화춘풍(李花春風)'에서 양반 계층의 한문 투 언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A]는 '변하리까.'에서 설의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B]는 '꿈이냐, 생시냐?'에서 물음의 형식으로 자신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④ [A]의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名官)이로구나.'에서는 수청을 요구하는 대화 상대를 '명관'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B]는 '가을'과 '봄'이라는 대조적인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조락(차차 쇠하여 보잘것없이 됨.)과 소생(거의 죽어 가다가 다시 살아남.)의 상황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

17 [C]는 고향(남원)을 떠나는 춘향의 심회(아쉬움)를 드러낸 것이다. '다시 보기 기약 없네.'에서 드러나듯이 춘향은 재회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재회에 대한 소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③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시구를 인용한 다음 그것이 '나를 두고 이'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해마다 푸른 봄풀(자연)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객(인간)을 대비하여 기약 없는 이별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⑤ 남원의 장소들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면서 친근감과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18 춘향의 정절은 유교적 이념인 '열(烈: 부녀자가 지조를 지켜 남편을 따라 순절하는 행실)'을 구현한 것이다. 이는 당시의 봉건 윤리에 부합하므로 지배층이 작품을 향유하고 권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오답 해설 ① 춘향은 정절을 지킴으로써 어사또와의 사랑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표면적 주제라고 볼 수 있다. ② 춘향은 정절을 지켜 정렬부인이 되었으므로 정절은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간 해방을 이면적 주제로 볼 수 있다. ③ 춘향은 어사또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함으로써 수청을 요구하는 지배층의 횡포를 폭로하게 된다. 따라서 지배 계층의 횡포에 대항하는 서민들의 비판 의식을 이면적 주제로 볼 수 있다. ⑤ 춘향이 신분 차별을 극복하고 정렬부인이 되는 것은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난 인간 해방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이면적 주제는 〈보기〉에서 서민층의 욕구에 부합하여 인기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서민층의 욕구를 대리만족시켜 이 글이 인기를 끄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48~053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①	07 ③	08 ③
09 ②	10 ⑤	11 ③	12 ②	13 ④	14 ②	15 ⑤	16 ④
17 ④	18 ①	19 ③					

01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양반 계층과 서민 계층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기 때문에 양반과 서민 모두에게서 인기를 끌었다.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은 서민 계층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양반 계층으로부터 배척된 것은 아니다. 양반 계층은 정절이라는 봉건 윤리를 충실히 구현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글을 수용하였다.

02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내면세계까지도 분석,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작중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나서서 논평하는 편집자적 논평도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으므로, 외부 세계를 표현하여 인물의 성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서술자가 주인공인 이몽룡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독자에게 판단을 맡긴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성격과도 관련이 없다.

03 운봉이 차운을 제안한 것은 몽룡의 잔치 참여와 상을 차는 행동 등으로 인해 어색해진 잔치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관 사또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몽룡을 쫓아내는 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운봉이 '몽룡의 학식이 높은 것을 눈치' 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런 이유로 차운을 제안한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우리 사또님이 걸인을 금하였으니 ~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에서 알 수 있다. ②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에서 추리할 수 있다. ④ 몽룡은 한시를 통해 탐관오리인 변사또의 호화로운 생일잔치를 비판하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운봉은 몽룡이 지은 한시를 보고 '아뿔싸. 일이 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한시에 담긴 뜻을 알아차린 것이다.

04 ㉣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상대방을 희롱하고 자신에 대한 푸대접(갈비가 없는 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어사또가 실제로 갈비를 간절히 먹고 싶어서 ㉣과 같이 말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 ㉤은 반어적 표현이다. ⑤ 어사 출두의 모습이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며 초목금수가 떠는' 엄청난 위세를 지닌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05 〈보기〉는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을, 참새가 늙은 홀아비가 애써 지은 곡식을 쪼아 먹는 것에 빗대어 풍자한 작품이다. 따라서 '백성'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닌 것은 ㉢이다.

오답 해설 ① 탐관오리를 의미한다. ② 백성의 노고를 의미한다.

Plus 〈보기〉 사리화(沙里花)_이제현

갈래	한시
성격	풍자적, 상징적, 현실적
주제	권력자들의 농민 수탈에 대한 비판 / 가혹한 수탈로 인한 농민의 피폐한 삶
해제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을, 참새가 백성들이 애써 지은 곡식을 쪼아 먹는 것에 빗대어 풍자함.

06 4(3)·4조의 운문체는 '공방 불러 ~ 숙직 단속.'과 '서리, 역졸 거동 보소 ~ 햇빛같이 번쩍 들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 분주한 모습과 어사 출두를 하는 모습을 열거와 대구를 통해 표현한 것일 뿐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수군수군', '번쩍', '우글우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에서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하여 어사 출두가 고통받는 백성(춘향)의 삶을 환하게 밝혀 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④ '공방 불러 ~ 숙직 단속.'과 '서리, 역졸 거동 보소 ~ 햇빛같이 번쩍 들어'에서 열거와 대구를 통한 확장적 문체로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⑤ 사태 파악을 못한 본관 사또의 질문("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과 시치미를 떼는 운봉의 대답("소피 보고 들어오오.")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07 몽룡이 춘향을 시험하고 춘향이 이에 저항하다가 몽룡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새로운 갈등'의 예고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어사 출두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고 있다. ② '이때 어사또는 ~ 길이 전하더라.'에서 행복한 결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어사 출두 장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쏜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 어사또는 객사로 옮긴 후에 바로 본관 사또를 파직한다. 춘향을 괴롭힌 죄를 추궁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어사또 부하들이 어사 출두를 외치는 소리에 초목금수가 떤다고 하였으므로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모든 수령 도망갈 제 ~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에서 알 수 있다. ④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 내 수청도 거역할까?"라는 어사또의 말은 춘향을 시험하는 것이다. ⑤ 춘향은 자신의 변하지 않는 의지를 '층암절벽 높은 바위'와 '청송녹죽 푸른 나무'에 빗대어 강조하며 어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09 [A]는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등에서 음성 상징어와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다. [B]는 '인궤 잃고 강정 들고 ~ 칼집 쥐고 오줌 누기'에서 4·4조의 운문체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B]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 [A]는 마패에 대한 묘사에서, [B]는 본관 사또의 행동에 대한 묘사에서 비유적 표현이 확인된다. 그러나 인물에 대한 풍자는 [B]에만 해당한다. ④ [A]에 음성 상징어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비장감과는 거리가 있다. ⑤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는 '서리, 중방 거동 보소.'나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등에서 나타나는데, [A]와 [B] 모두에서 확인된다.

10 암행어사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모든 수령이 당황하여 도망치고 있으므로 '혼비백산(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쓰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외손뼉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②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③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 ④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

11 춘향의 신분과 죄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다. 주관적 평가나 과장, 역설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본관 사또의 당황한 심리가 '문'과 '바람', '물'과 '목'을 바꾸는, 언어도치에 의한 언어유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② 전관이었던 아버지를 예우하기 위해 장소 이동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④ 상대에 대한 반감을 '명관'이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고, 자신의 각오를 '층암절벽 높은 바위'와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어사또가 된 몽룡을 만난 기쁨을 '봄'이라는 계절적 이미지와 '이화춘풍(李花春風)'이라는 중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12 몽룡과 춘향의 사랑은 가부장의 통제를 벗어난 자유연애였으므로 유교적 가부장제의 강화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춘향의 정절을 표면적 주제로 내세운 것은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당시의 사회 윤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④ 기생의 딸인 춘향이 정렬부인이 되는 것은 당시의 신분 제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당대 평민층들은 이 글을 통해 대리만족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⑤ 탐관오리인 변학도가 숙청당하는 것은 평민층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탐관오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장면은 당대 평민층에게 통쾌함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나) 봄·봄**_김유정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성격	향토적, 해학적
주제	우직하고 순박한 데릴사위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 간의 해학적 갈등
해제	장인과 데릴사위로 들어온 주인공이 혼인 문제로 갈등을 빚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림. 과장된 상황 설정과 어수룩한 서술자(주인공)의 모습이 웃음을 유발함.

13 (가)의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나)의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이지만 작중 상황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가)의 서술자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주관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야기 밖의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 (가)에만 해당한다. (나)의 서술자는 '이야기 안의 서술자'이다. ② 역순행적 구성은 (나)에만 해당한다. ③ 판소리계 소설인 (가)에만 해당한다. ⑤ (가), (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14 (가)는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 칼집 쥐고 오줌 누기.'에서 어사 출두에 놀라 도망가는 수령들의 모습을 과장하여 그리고 있는데, 이는 부정적 대상인 수령들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어사 출두 장면에서 서리, 역졸들은 비판이나 웃음의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③ '호감과 연민이 담긴 웃음'은 해학인데, 변학도를 봉고파직하는 장면은 웃음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해학과 관련이 없다. ④ '나'의 모자란 점을 따뜻한 시선으로, 즉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⑤ 장인은 엉뚱한 것이 아니라 교활한 것이고, 치료 장면도 해학과는 관련이 없다.

15 ⓐ는 음성 상징어와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살린 운문체로 작중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반면 ⓑ는 산문체로 작중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 ⓑ가 갈등이나 화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② ⓐ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는 행동을 묘사한 것이다. ③ ⓐ의 '번쩍', '우글우글'은 모습, ⓑ의 '헐떡헐떡'은 소리 또는 모습을 표현하는 음성 상징어이다. ④ ⓐ에는 비유가, ⓑ에는 과장이 활용되지 않았다.

16 ㉠에는 한문 투의 지배층 언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본관 사또의 모습을 '멍석 구멍 새앙쥐 눈 뜨듯'이라는 비유를 통해 비하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본관 사또의 당황한 심리를 '문'과 '바람', '물'과 '목'을 도치하는 언어유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숨기 위해 문을 닫으면서도 추워서라고 둘러대는 본관 사또의 말을 통해 허세를 풍자하고 있다.

17 세상이 '팽그르' 돌고 '인젠 참으로 죽나 보다' 할 정도로 강력한 장인의 공격에 대해 살려 달라며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이다. 따라서 장인의 말을 들을 테니 놓아 달라며 애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③ '할아버지'가 지시하는 대상은 장인이다.

18 어수룩한 주인공을, 성례를 시켜 준다는 말로 꼬여서 부려 먹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감언이설(甘言利說: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로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③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 ④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 ⑤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19 '나'는 성례를 시켜 준다는 말로 자신을 꼬여 부려 먹기만 하는 장인의 교활함을 눈치 채지 못하는 순진하고 어수룩한 인물이다.

오답 해설 ⑤ 성례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요구하는 '나'를 탐욕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54~055쪽

01 (1) (가): 열거와 대구 등을 활용하여 장면을 극대화하는 확장적 문체, 4·4조의 반복을 통한 운문체가 드러난다. (2) (나): 양반 계층의 한문 투 언어가 나타난다. **02** 대상을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03** (1) ⓐ: 비유법, 대구법, 설의법을 활용하여 절개를 부각하고 있다. (2) ⓑ: 비유법, 대구법, 대조법, 중의법을 활용하여 기쁨을 부각하고 있다. **04** ㉠과 ㉡은 언어유희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은 동음이의어, ㉡은 언어 도치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5**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평가하고 있다(편집자적 논평). **06** (1) ㉡: 반어법, 설의법을 활용하여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 대구법, 비유법, 과장법, 설의법을 활용하여 소리의 위세를 부각하고 있다. **07** (1) 신분을 초월한 사랑 (2)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정신 (3) 부정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

01 (가)에는 확장적 문체, 운문체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나)에서 '청송녹죽(靑松綠竹)', '이화춘풍(李花春風)'은 양반 계층의 한문 투 언어이다.

04 ㉠은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은 언어 도치를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05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56~05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07 어사또는 거지 행색으로 잔치에 참여하여 푸대접을 받는다.

09 어사또가 어사 출두를 귀띔한 것이 아니라 운봉이 어사또가 쓴 한시를 보고 눈치를 챈 것이다.

10 운봉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임을 눈치 채지만 본관 사또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15 "갈비 한 대 먹고지고."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18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名官)이로구나."는 상대가 명관이 아님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반가움이 아니라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21 남원을 떠나는 두려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현대 시 감상하기_수라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60~063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① 05 ① 06 ④ 07 ⑤ 08 ④
09 ③ 10 ④ 11 ⑤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④
17 ③

01 물음의 형식을 이용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의 평서형 진술로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상인 거미를 의인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 공동체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어니젠가', '가제' 등의 평안도 사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밤이다', '아물거린다' 등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⑤ 1연 → 2연 → 3연으로 진행되면서 행의 수가 2행 → 4행 → 6행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화자의 정서도 심화되고 있다.

02 뒤 연으로 갈수록 상황과 정서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지만 거미가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거미 새끼를 버림. – 아무 생각 없음. → 큰 거미를 버림. – 서러워함. →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버림. – 슬퍼함.'과 같이 거미를 버리는 화자의 행위와 정서가 교차하면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③ '거미 새끼가 옴. – 문밖으로 버림(1연). → 큰 거미가 옴. – 문밖으로 버림(2연). →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옴. – 문밖으로 버림(3연).'과 같이 거미가 오는 상황과 그것을 '문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④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거미 새끼'나 '큰 거미'와는 달리 '무척 적은 새끼 거미'는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라고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⑤ 화자의 정서가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메이는 듯하다', '슬퍼한다' 등과 같이 비슷한 의미를 담은 다른 표현들로 변주되고 있다.

03 화자가 '무척 적은 새끼 거미'에게 '손을 내어 미'는 것은 새끼 거미를 조심스럽게 다루려는 태도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거미 새끼'를 '아모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리는 것은, 거미를 하찮은 존재로 여겨 그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②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온 '큰 거미'를 보며 '가슴이 짜릿'한 것은, 거미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던 화자의 정서가 변했기 때문이다. ③ 화자의 '가슴이 메이는 듯'한 것은, 거미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상황을 보며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04 시적 화자는 작품의 표면에 '나'로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② 거미의 모습을 보며 가족 공동체의 해체에 대한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거미라는 자연물을 다루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④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정서와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지는 않다. ⑤ 비애와 바람을 이야기할 뿐 변화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5 '방바닥'은 화자가 '거미 새끼 하나'가 '나린 것'을 발견하는 곳이므로, 거미 새끼를 감지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아모 생각 없이'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고 있으므로, '방바닥'은 위급함이 아니라 무심함과 관련된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② ㉡은 '새끼 거미'가 쓸려 나간 곳이다. 여기에 '큰 거미'가 오자 화자는 '가슴이 짜릿'해지면서 거미 가족 해체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은 화자가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③ '문밖'은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이다. 따라서 춥고 위험하지만 '새끼 거미'를 만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④ 화자는 '큰 거미'가 '새끼 있는 데'로 가기를 바라며 서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은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인 동시에 '새끼 거미'와 '큰 거미'가 재회하는 공간, 그래서 둘을 헤어지게 했다는 화자의 자책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⑤ ㉤은 화자가 '큰 거미'를 문밖으로 버린 후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온 공간이다. 화자는 그 거미에게 '손을 내어' 밀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은 거미에게 도움을 주려는 화자의 행위가 발현되는 공간이다.

06 '차디찬 밤'은 현실의 비극성(부정적 면모)을 '밤'이 지닌 어둠의 이미지와 '차다'의 감각적(촉각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드러낸 것으로, 작품의 시간적 배경에 해당한다. 여기서 '차디찬'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실의 가혹함을 '찬' 이미지로 부각한 것으로, '거미 외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② 차디차다: 매우 차다.

07 1연의 '버린다'는 '아모 생각 없'는 행동이었지만, 2, 3연의 '버리며'는 슬픔과 연민, 그리고 재회에 대한 바람까지 담긴 행동으로 변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③ 각기 다른 대상에 대한 행동이지만, 2연과 3연의 행동에는 유사한 의도가 담겨 있다. ④ 반복되면서 화자의 비애를 강화시키지만, 이를 '현실에 순응하며 체념하는 태도'로 볼 수는 없다.

08 〈보기〉에 따르면, '수라'는 끝없는 싸움과 고통의 세계를 의미하고,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는 '일제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수라'는 거미 가족이 경험하는 고통의 세계를 그림으로써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의 세계, 곧 일제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었던 비극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수라'가 불교 용어이기는 하지만 작품의 내용에는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③·⑤ 투쟁이나 저항 의지(②), 무기력함(③),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았던 끈질긴 생명력(⑤)과 관련된 내용은 〈보기〉에서도, 작품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09 이 글의 화자는 거미 때문에 서러워하고 거미를 돕기 위해 '손을 내어' 밀기도 하면서 거미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기〉의 화자도 쥐와 모기, 풀을 걱정하며 배려하는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보잘것없는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시상의 전환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대구는 〈보기〉의 1~2구에서만 드러난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독백적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Plus 〈보기〉 게송_탄연

성격	교훈적, 불교적
주제	뭇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연민
해제	고려 시대의 승려 탄연이 지은 게송(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으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태도를 노래함.

10 이 글의 화자는 시의 표면에 '나'로 드러나 있지만, 부정적 현실을 슬퍼할 뿐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ㄴ)다'라는 현재 시제의 평서형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차디찬 밤'에서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처음에는 무심했다가 점차 거미를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화자의 정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⑤ 1연에서 3연으로 진행될수록 행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자의 정서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하는 것은 거미 가족의 재회를 바라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슬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거미 가족의 재회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는 아니므로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슴이 짜릿'하고 '서러워'진 것은, 새끼 거미를 쓸어 버린 자신의 행위가 큰 거미와 새끼 거미가 헤어지는 상황을 불러왔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12 시인은 거미라는 대상을 통해 자신과 민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거리를 좁혀 주관적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③ '거미'라는 자연물을 통해 가족과 헤어진 시인 자신의 처지, 나아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시대와 민족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거미 가족의 해체를 통해 일제 강점기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노래한 것으로, 시적 대상인 거미 가족이 우리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문밖'은 거미 가족이 재회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공동체적 삶이 회복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곳은 '찬 밖'이기도 하다.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며 서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와 번영의 공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14 ㉰로 인해 화자의 시선이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니다. 화자의 시선은 계속 거미 가족을 향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정서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모두 '버리는' 행동의 대상이 된다. ③ ㉮는 '아모 생각 없이' 다루어지고, 다른 거미와의 관계도 인식되지 않고 있으므로, 무의미한 개별적 존재로 간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 ㉮의 어미로 인식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15 ⓑ는 '새끼 거미'와 '큰 거미'가 헤어지게 된 상황에 대해 슬픔과 연민, 안타까움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거미 새끼'를 쓸어 버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거미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고 자책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다. ③·④ 어미를 찾는 듯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의 애처로운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다. ⑤ 거미 가족의 재회를 바라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슬퍼하는 것이다. '재회를 확신'하는 것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애달픔을 표현'한 것도 아니다.

16 ㉠과 ㉡은 동일한 행동이지만 함축된 의미는 다르다. ㉠은 거미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행동으로, 거미 가족이 헤어지는 원인이 된다. 반면 ㉡은 거미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행동으로, 거미 가족의 재회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거미 새끼의 수동성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거미 가족의 능동성과 관련이 없다. ② ㉠은 거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거미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연민을 담은 행동이다. ③ ㉠을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도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을 뿐 낙관적 전망이 담긴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⑤ ㉠은 주변 사물과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주변 사물, 즉 거미에 화자가 동화되려는 소망이 아니라 거미들 간의 재회에 대한 소망이 담긴 것이다.

17 연약하고 애처로운 모습의 새끼 거미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므로 '연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새끼 거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용서'는 적절하지 않다. ④ 새끼 거미와 화자가 싸운 것이 아니므로 '화해'는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가 새끼 거미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므로 '회유(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함.)'는 적절하지 않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64~067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③ 05 ③ 06 ⑤ 07 ① 08 ⑤
09 ④ 10 ④ 11 ① 12 ④ 13 ② 14 ④

▸ (나) 신(神)의 방_김선우

핵심 정리

갈래	산문시, 서정시
성격	사색적, 묘사적, 비판적, 향토적
주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생명의 공간인 통시
해제	제주도의 전통 재래식 화장실인 '통시'에서 생태적 순환의 의미를 읽어내고, 이를 생명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해석함.

01 (가)의 화자는 '나'로 등장하여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ㄴ)다' 형식을 통해 혼잣말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다지요', '~인데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독백적 어조, (나)는 대화적 어조로 시상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며, 특정한 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② (가)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도 '나라의 높은 분이~다그쳤다는데요'에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반어적 표현은 아니다. ③ (가)의 화자는 거미들과, (나)의 화자는 '통시'와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화자의 인식과 정서가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인 거미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한편 (나)에는 화자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02 '쓸려 나간 곳'은 '새끼 거미'가 쓸려 나간 후 '큰 거미'가 온 곳이다. 화자는 이 상황을 거미 가족의 해체로 파악하면서 안타까움과 자책감으로 '가슴이 짜릿'해지게 된다. 따라서 '쓸려 나간 곳'은 화자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 '방바닥'은 화자가 '거미 새끼 하나'가 '나린 것'을 발견하는 곳이므로, 거미 새끼를 감지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가 이로 인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③ 화자는 '큰 거미'가 '새끼 있는 데'로 가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새끼 있는 데'는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새끼 거미'와 '큰 거미'가 재회하는 곳이므로 '큰 거미'의 상실감이 해소되는 공간이지 '나'의 상실감이 해소되는 공간은 아니다. ④ '큰 거미 없어진 곳'은 '나'가 '무척 적은 새끼 거미'에게 '손을 내어' 밀며 도움을 주려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곳은 거미들이 재회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공간도 아니다. 거미 가족의 재회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문밖'이지만 이마저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전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문밖'은 춥고 위험하지만 거미들이 재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화자는 그곳에서 거미 가족이 재회하기를 소망하지만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차디찬 밤'이라는 시간적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열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어니젠가', '가제' 등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문밖으로 버리며, 또 문밖으로 버리며',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등에서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③ '방바닥', '문밖', '차디찬 밤' 등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슬퍼한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04 '좁쌀알만 한 알'은 새끼 거미의 연약함을 부각하는 것이지 보잘것없음(하찮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거미 가족이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차디찬'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② '새끼 거미'와 '큰 거미'의 이별을 목격하면서 느낀 안타까움을 '가슴이 아린(상처나 살갗 따위가 찌르는 듯이 아픈)' 것으로 촉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보드러운 종이'는 화자가 새끼 거미를 조심스럽게 받아내는 도구이다. 이를 통해 새끼 거미를 배려하는 화자의 태도가 부각되고 있다. ⑤ 화자와 마주친 거미들을 의인화하여 '엄마, 누나나 형, 동생'과 같은 가족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다.

05 ⓒ는 '산 것들의 온기'가 쓸모없어지는 것, 더럽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경계했다(=두려워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두려움'은 '가장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허위'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우리(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가 아니라 '거처(자리 잡고 사는 곳)'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통시'가 단순히 돼지를 '기르는' 공간이 아닌, 사람과 돼지가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② 인간의 배설물이나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의 발효를 '제 힘으로 다시 빛'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쓸모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한가지로 행해'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녔다는 뜻이다. 따라서 배설하는 것과 먹는 행위가 생명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생명의 순환이 드러나는 통시를 '신이 거주하는 장소'로 여긴 사람들을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통시를 생명의 순환으로 여겼던 섬사람들의 인식이 생명의 순환이라는 신의 섭리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06 (가)의 제목인 '수라'는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시적 상황을 끝없는 고통의 세계인 '수라'로 표현한 것이고, (나)의 제목인 '신의 방'은 생명의 순환을 보여 주는 통시라는 대상을 '신의 방'에 빗대어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가)의 제목은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의 제목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07 (가)와 (나)에서는 중심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구절의 반복을 통한 서정시의 음악성 실현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가)에서 화자는 현실 세계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극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런 인식을 '수라'라는 비유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현실 세계를 생명의 순환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런 인식을 '신의 방'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화자가 거미를 쓸어 버리고 거미가 화자에 의해 문밖으로 버려지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족 공동체의 해체라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였고, (나)는 통시라는 제주도의 생활양식이 사라진 것을 제시하여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현실 세계를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는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의 연쇄를 담은 이야기를 시적 구조로 취하므로 이야기시에 해당하고, (나)는 행의 구분 없이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므로 산문시에 해당한다. ⑤ (가)는 화자와 거미가 합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계와의 합일을 지향하는 서정시의 일반적 특성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한 (나)는 통시를 둘러싼 풍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정시가 지닌 압축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 **(나) 까치밥**_송수권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교훈적, 향토적, 서정적
주제	까치밥을 통해 환기하는 인정과 배려의 가치
해제	인정과 배려를 모르는 조카들에게 전통 문화 속에 깃든 인정과 배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통해 그 인정과 배려가 삶에서 지니는 가치를 일깨우고 있음.

08 (가)는 '거미'를 쓸어 버린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바람을, (나)는 '까치밥', '짚신' 등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과 배려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이별한 것은 화자와 대상이 아니라 대상들이고, 화자의 안타까움은 그런 대상들 간의 이별에 대한 것이다. (나)에도 대상과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과거 회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 화자는 자연, 즉 거미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도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태도도 변화하지 않는다.

09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대상이 처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처한 상황이 악화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는 것이다. 즉 ④는 인과 관계를 잘못 서술하고 있다. 거미가 문밖으로 버려지면서 거미가 처한 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화자의 태도가 무심함에서 서러움 · 걱정 · 슬픔으로 달라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연물인 거미를 사람에 빗대어 거미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② '차디찬 밤'에서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거미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ㄴ다'라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2행 → 4행 → 6행으로 행의 수가 늘어나면서 거미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10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의 주체는 화자이며, 거기에는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일제에 의해 자행된 부당한 횡포'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거미 가족의 해체를 통해 가족 공동체 붕괴의 현실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차디찬 밤'은 현실의 비극성을 상징적,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제목인 '수라'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으로 인식한 화자의 의식이 담긴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서로 헤어진 거미 가족에 대해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는 〈보기〉에서 확인하듯 일제 강점기에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1 '가슴이 짜릿한' 것은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쓸어 버린 행위로 인해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음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깨달은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는 거미 가족의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화자는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고 있으므로 '큰 거미'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③ '가슴이 메이는 듯'한 것은 가족들과 헤어진 '무척 적은 새끼 거미'에 대한 연민 때문이다. '답답함'과는 거리가 멀다. ④ '서럽게' 느낀 것은 도움을 주려는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도망치는 새끼 거미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거부감'과는 거리가 멀다. ⑤ '슬퍼'하는 것은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12 (나)의 화자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모르는 조카들에게 그 가치를 일깨운 다음 '서러워하지도 말아라'라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 절망감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의 가치를 부각하며 그와 연관된 대상의 삶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1~10행, 11~17행, 18~23행에서 '조카들을 부르고 – 명령(그 까치밥 따지 말라 / 서러워하지도 말아라)을 한 다음 – 명령의 이유를 제시'하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② '서울 조카아이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③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 그것(=까치밥)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1~17행에서 날짐승을 배려하는 까치밥이, 다른 사람(길손과 아버지)을 배려한 할아버지의 짚신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13 ㉠에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하는 배려의 마음이, ㉡에는 겨울철에 먹을 것이 떨어져 배고파할 '날짐승'들을 염려하는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오답 해설 ① ㉠, ㉡ 모두 수고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가)에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 따라서 ㉠은 미물에 대한 용서로 볼 수 없다. ④ ㉠, ㉡과 모두 관련이 없는 설명이다. ⑤ ㉡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볼 수는 있으나, ㉠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로는 볼 수 없다.

14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에서 '길'은 날짐승이 살 길, 즉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인의 삶과 관련된 '길'이 아니므로, 시인의 고된 삶이 반영된 '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연의 '문밖'은 집 안과 대비되는 외부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공간, 즉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3연의 '문밖'은 1연의 '문밖'과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공간이지만,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공간인 1연의 '문밖'과 달리 가족 공동체가 재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남도의 빈 겨울 하늘'은 그냥 겨울 하늘이 아니라 까치밥이 사라진 공간이다. 이는 화자가 지키려는 가치관이 사라졌을 때를 가정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야 할 머나먼 길'에서의 '길'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될 삶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체적으로 체득한 '길'로 볼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68~069쪽

01 ⓐ: 무심함, ⓑ: 큰 거미, ⓒ: 보드라운 종이 **02** 거미를 버리는 행동이 반복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행수가 늘어나는 형식적 특성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03** ⓐ: 쓸어 버린다, 짜릿한다, 슬퍼한다 등 ⓑ: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 문밖으로 버리며 – 또 문밖으로 버리며 /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04**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실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05** 위험하지만, 거미 가족이 재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06**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적 상황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고, 이런 비극적 상황을 아수라장을 줄여서 쓴 말인 '수라'로 표현하여 제목을 지었다.

03 ⓐ: '–(ㄴ)다'라는 현재 시제 평서형 어미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한편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버리다'와 관련된 진술을 반복 변주하고 있고,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에서 화자의 정서를 '나는 가슴이 ~다' 형태로 반복 변주하고 있다.

04 현실의 비극성을 '차디찬'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06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 ≒ 공동체적 삶이 붕괴되는 일제 강점하 우리 민족의 상황 ≒ 수라(끝없는 고통의 세계)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70~07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03 시적 대상인 거미를 의인화하고 있지만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13 처음의 '버리는' 행동에 거부의 의미가 담겼던 것은 아니다. 화자는 '아무 생각 없이' 거미를 버리고 있다. 따라서 무관심한 '버리는' 행동이 대상에 대한 연민과 재회에 대한 소망이 담긴 행동으로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17 2연에서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화자이며, 여기에는 대상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보드러운 종이'는 새끼 거미에 대한 화자의 배려를 보여 주는 것이다.

21 화자는 '아주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며 거미 가족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을 뿐 이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현대 소설 감상하기_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74~081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⑤	05 ③	06 ④	07 ③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④	13 ②	14 ⑤	15 ②	16 ②
17 ③	18 ②	19 ⑤	20 ②	21 ⑤			

01 이 글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인 권 씨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 ③ 전지적 작가 시점 ② 3인칭 관찰자 시점 ④ 1인칭 주인공 시점

Plus 〈참고〉 시점

시점	서술자의 위치	특징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	• 작품 속의 '나'=서술자=주인공 •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데 적합함.
1인칭 관찰자 시점		• 작품 속의 '나'=서술자≠주인공 • 서술자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서술함.
3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	• 작가 관찰자 시점 • 객관적인 태도로 외부적인 사실만을 관찰하여 묘사, 서술함.
전지적 작가 시점		•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고 서술함. • 특정 작중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기도 함.

02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로 보아 긴박한 상황에서도 권 씨의 구두는 반짝거리고 있다. 권 씨가 자신의 자존심과도 같은 구두를 계속 바지에 문질러 닦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더러는 흉보고 또 더러는 우려해 왔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정히나 어려우면 분만비를 빌려줄 수도 있음을 넌지시 비쳤는데'에서 분만비를 빌려줄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며 권 씨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미역 근이나 사 놓고 기다리다가~아내에게 이르고는 출근했다.'에서 추리할 수 있다. ⑤"수술을 해야 된답니다.~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에서 알 수 있다.

03 ㉮에서 갈등을 벌이는 것은 '나'와 아내가 아니라 '나'와 권 씨이다. '나'는 출산과 관련된 아내의 우려에 동의하여 권 씨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권 씨가 부인을 업고 병원으로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의 생각이 수용되고 나는 '한근심 더는 기분'이 된다.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다. ③ ㉮에서는 '혼자 낳을 것인가, 병원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 즉 분만 방법이, ㉯에서는 거금의 분만비를 빌리는 문제, 즉 분만 비용 마련 방법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⑤ '어색하게 들린 것은~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에서 '나'의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04 권 씨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려고 하는 것을 보아 소시민의 이중성을 지닌 인물이다.

오답 해설 ①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다는 말은 자신이 입을 피해를 염려하는 소시민적 성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집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억압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위적'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② '두 목숨을 건 모험 쪽을 택한 계산속일 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권 씨의 거절을 귀찮음의 발로로 해석한 것이다. 냉소적인 것이지 '보수적'인 것은 아니다. ③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상황이 진지하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④ 아내의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기 때문이고,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를 염려한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권위를 상실한 인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에는 무언가를 부탁하기에 앞서 머뭇거리는 권 씨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⑤ 권 씨에게서 느껴지는 간절함이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06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작품으로, 작중 인물인 '나'가 자신의 관점에서 '초점이 되는 주요 인물', 즉 작품의 주인공인 권 씨를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권 씨가 언덕을 내려가는 부분에서 공간적 배경과 관련된 서술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나'의 내면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질서한 연상을 제시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과는 거리가 멀다. ⑤ 학교에서 병원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지만 서술자는 바뀌지 않는다.

Plus 〈참고〉 시간의 역전과 의식의 흐름 기법

시간의 역전(逆轉)	이야기의 서술이 시간적 순서에 따르지 않는 것. 예컨대 '현재 → 과거 → 현재'와 같은 순서로 이야기가 서술됨.
의식의 흐름 기법	소설 속 인물의 파편적이고 무질서하며 잡다한 의식세계를 자유로운 연상 작용을 통해 가감 없이 그려 내는 방법

07 '나'는 돈을 빌려 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후 연민과 자책감을 느끼다가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닫는다. 여기서 '암만의 빚'은 권 씨에게 세를 놓으며 받은 전셋돈으로, 수술비를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메울 수 있는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떠올리고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은 없다고 판단한 후 권 씨 부인의 수술 보증금을 대신 마련한다.

오답 해설 ① '끼니조차 감당 못 하는 주제에~어느 해에 빚을 갚을 것인가.'에서 드러나듯이 '나'는 권 씨의 품성이 아니라 그의 경제적 능력을 근거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②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있다. ④ 원장은 '나'가 세입자일 뿐인 권 씨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혀를 찼다'. 존경을 표한 것이 아니라 어이없어 한 것이다. ⑤ 권 씨 부인의 수술은 '너무도 쉽게 끝'났고, 권 씨 부인이 '나'에게 감사를 전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08 ㉱은 돈만 밝히는 원장의 행태를 비꼬는 뜻을 담고 있다. '맞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쳐 주는 척하면서 상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무슨 짓을 해서라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② 현금 대신 보증을 서겠다는 말로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는 의사를 완곡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나'의 제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으므로 그 진의는 거절임을 알아차리고 체념하고 있다.

09 권 씨는 몰락한 소시민이지만 지식인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인물이다. 반짝거리는 구두는 그런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대졸이란 학력 역시 자존심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참한 상황에서 구두를 닦는 ⓐ와 같은 행위나,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대졸 학력을 언급하는 ⓑ와 같은 말에는,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③ 구두를 닦는다고 부정적이고, 대졸이라고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④ 예의와는 관계없는 상황이다. ⑤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지 긴장을 풀거나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다.

10 이 글은 '산업화 ·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과 세태를 사실적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비참한 현실을 보여 주면서 문

제의식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지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 또는 암시하고 있는 작품은 아닌 것이다. '이웃 간의 연대를 통해 부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해결책이나 대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작품에 드러나 있지도 않고 주제 의식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⑤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나'는 권 씨가 참외를 주워 먹던 군중의 모습을 목격했던 때를 떠올리며 과거에 권 씨가 군중에게 느꼈던 것처럼, 권 씨의 상황이 절박한 생존의 문제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나'의 자각은 '나'가 이후 권 씨를 이해하고 돕는다는 설정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11 '나'는 자신이 강도의 정체를 알고 있음을 권 씨가 모른 채 돌아가 다시 전처럼 떳떳하게 '나'와 대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강도의 정체를 모르는 척하지만 권 씨는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나'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권 씨가 사라질 때는 이미 정체가 탄로 났음을 인지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것을 염려'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비틀비틀' 사라진 것이므로 '재빨리 도망'쳤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강도는 덜덜덜 떨면서 '나'의 멱을 겨눈다. ③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에서 알 수 있다.

12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에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했음을, '그따위 이웃은 없다',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에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아서이다. ②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로 그의 이력을 추리한 것은 맞지만 연민의 태도로는 볼 수 없다. '사람 좋게' 보이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③ 상대방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도 상대방을 비웃고 있다. 자괴감과는 거리가 멀다. ⑤ 자신의 학력을 언급하여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려 한 것이다. '동정의 유도'와는 거리가 멀다.

13 위협이 되어야 할 강도는 덜덜 떨면서 어설프게 행동하고, 위협을 느껴야 할 '나'는 그런 강도를 안내하며 큰소리를 친다. 이런 상황은 '사물의 경중 · 선후 · 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을 이르는 말'인 '주객전도(主客顚倒)'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 ③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④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을 이르는 말 ⑤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아니하거나 늦게 온 사람을 이르는 말

14 〈보기〉의 서술자 '나'는 강도인 '권 씨'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 〈보기〉에서는 중심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고 있으므로, 관찰자의 추측에 불과한 [A]에 비해 '권 씨'의 심리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와 〈보기〉 모두 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A]와 〈보기〉 모두 서술자는 1인칭의 '나'이다. ③ [A]와 〈보기〉 모두 과거 시제로 서술되고 있다. ④ 서술자가 '권 씨'로 바뀌어서 '그(윗글의 '나')'의 행동이 보다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5 강도 행각을 끝내고 집을 나가는 장면에서 강도는 엉겁결에 자기 집인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한다. 여기서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이 또 한 번 드러나지만, '나'는 그런 강도에게 그가 강도임(그러므로 대문으로 나가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 했던 권 씨를 끝내 강도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나'가 자신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증표가 되어 권 씨를 더욱 비참하게 한다.

16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에서 드러나듯이, '나'는 강도의 정체를 모른 체하며 권 씨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여 보내고 있다. 그런데 '강도 행각을 중단하고 자신에게 사과하기를 바'라는 태도에는, 권 씨가 강도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으므로 '나'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에서 추리할 수 있다. ③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에서 추리할 수 있다. ④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 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에서 추리할 수 있다. ⑤ '나는 한 켤레의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는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에서 추리할 수 있다.

17 ⓒ에서는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된다며 '그'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 ⓓ, ⓔ는 인물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Plus 〈참고〉 인물 제시 방법

직접 제시	• 말하기(telling), 분석적 방법, 해설적 방법 •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에 대해 판단하고 분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방식 • 독자들이 인물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음.
간접 제시	• 보여 주기(showing), 극적 방법, 묘사적 방법 • 인물의 말과 행동, 외양 등을 통하여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 • 독자들에게 능동적으로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함.

18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인해 강도짓까지 하게 된 '그'가 그 강도짓마저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좌절하는 장면은, 현실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때 '그'가 대학까지 나왔노라고 말하는 것은, 끝내 자존심만은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현실에 '타협'하는 태도는 아니다. ③ 측은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겉보기와는 달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경제적 궁핍을 '내면의 불행'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④ '내면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인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⑤ 현실에 '대항'하는 태도는 아니다.

19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로 보아, '나'의 '본의(본래의 의도나 생각)'는 권 씨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존심을 지키고 돌아가, 다음 날 전처럼 자신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 ③ 권 씨에게 강도 행각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주려는 모습이나 권 씨가 강도 행각을 자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 ④ '나'의 바람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본의'의 내용은 아니다.

20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라는 서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권 씨 개인의 자존심과

관련된 것이므로 '가족에 대한 권 씨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③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④·⑤ '구두'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권 씨의 마지막 자존심이지만, 그 반짝거리는 모습은 그의 가난한 삶과 대비되면서 현실의 비참함을 두드러지게 한다.

21 열린 결말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명확하게 끝맺지 않고 독자들이 작품의 결말을 상상하도록 하는 마무리 형식이다. 이 글은 이러한 열린 결말 형식을 취하여 권 씨의 행방과 관련하여 독자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열려 있어도 결말은 결말이다. 소설의 구성 단계상 결말은 '극적 긴장감'과는 거리가 멀다. ③·④ 열린 결말 형식과 사실성, 개연성은 관련이 없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82~087쪽

01 ①	02 ④	03 ④	04 ②	05 ②	06 ⑤	07 ②	08 ③
09 ③	10 ①	11 ④	12 ②	13 ⑤	14 ⑤	15 ④	16 ⑤

01 이 글은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다른 인물인 '권 씨'를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작품이다.

오답 해설 ② 서술자는 교체되지 않는다. ③·⑤ 전지적 작가 시점 ④ 3인칭 관찰자 시점

02 해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의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진통하는 상황에서, '나'의 아내가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라며 불안감과 우려를 드러낸 것이 계기가 되어 '나'가 권 씨를 불러내어 임신부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오답 해설 ① 아내가 '생병'을 앓는 이유는,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하는 한 얼간이 사내(권 씨)'까지 문간방에 쌀이나 연탄을 넣어 준 자기의 선심의 혜택을 누릴 것이 괘씸해서이다. ② 권 씨를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평가한 것은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 평가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아내는 그런 평가와는 달리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권 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권 씨가 경제적 상황을 해결한 것도, 아내가 권 씨를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간주한 것도 아니다. ③ 권 씨 부인의 진통은 '나'가 아내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귀띔해 준 것이다. ⑤ 권 씨가 '나'의 염려에 대해 '위로해 주는 투'로 변명한 것을 '위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후에 권 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이 누그러졌는지도 알 수 없다.

03 '나'와 아내는 권 씨네의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그들의 태연·태평한 태도를 비난·무시하며 조소하고(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다. 또는 그렇게 웃다.) 있다. '나'와 아내가 권 씨와 그 아내를 질투한 것은 아니다. 또한 권 씨는 자신들의 가난을 감추며 태연한 척, 태평한 척한다. 그러나 그들이 '나'와 아내를 위로하거나 위로해 주는 척한 것은 아니다. '나'의 걱정에 대한 권 씨의 대응을 '나'가 위로해 주는 투라고 느꼈을 뿐이다.

04 ㉡에서는 '예정일도 모르더라'라는 아내의 말을 간접 인용하면서, 예정일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 부인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의 발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나'가 꾼 꿈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그것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은 권 씨 부부의 심리나 의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한 것이다. 실제 권 씨 부부의 내면은 아니다. ④ ㉠과 ㉢은 '나'의 내적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 ⑤ ㉡과 ㉢에는 권 씨 부부에 대한 아내와 '나'의 부정적 시선이 담겨 있다.

05 권 씨의 거절에 대해 비판하는 아내에게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 거절이라는 권 씨의 행동이 경제적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권 씨의 행동을 분석한 것이지 옹호한 것이 아니다. ③ 권 씨의 상황을 지적한 것이지 성격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④ 권 씨에 대한 아내의 말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⑤ 아내의 부탁을 명확하게 수락한 것은 아니지만 거절의 뜻을 표현한 것도 아니다.

06 '나'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에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우리'는 집주인인 자기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입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집주인인 자기 가족이 입게 될 피해를 염려하는 것이므로, 소시민적 개인주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를 공동체의 유대감의 회복으로 이해한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권 씨네를 의식하는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의 표현이고, 권 씨네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것은 개인주의의 표현이라면,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의 모습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권 씨네를 염려하면서도 권 씨네를 돕고 나서 괘씸해하는 아내의 이중적 태도에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의식과 남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07 ⓑ는 권 씨네를 돕게 된 '나'와 아내를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③ 권 씨를 비하하여 표현한 것이다. ④ 벌이가 시원찮은 인물, 즉 권 씨이다. ⑤ 권 씨를 낮잡아 표현한 것이다.

08 시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나'와 권 씨의 대화를 통해 분만비를 빌리는 문제를 둘러싼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② '어색하게 들린 것은~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에서 서술자인 '나'의 서술을 통해 '나'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④ 구두와 그것을 문질러 닦는 행위를 통해 비참한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인물의 심리와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⑤ 서술자는 작중 인물인 '나'이다. '나'가 권 씨와 관련된 사건에 직접 참여하면서 권 씨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09 ㉮와 같은 판단에 이르기까지 '나'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끼니조차 감당 못 하는 주제에~어느 해에 빚을 갚을 것인가.', 즉 권 씨의 형편없는 경제적 능력이다.

오답 해설 ①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 보세요."에서 현금 대신 보증을 서 주는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거절의 의사를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⑤ "오 선생, 이래 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은 무언가를 부탁하기에 앞서 망설이는 권 씨의 심리가 행동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감사'를 전하는 것이 권 씨의 목적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⑤ '나'의 눈에 비친 권 씨의 행동을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서술함으로써 비참한

권 씨의 내면을 암시하고 있다.

11 ⓐ는 '나'의 행동을 비난하는 소리이다. '나'가 ⓐ를 연상한 것은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는 '나'의 자책감 때문에 연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그런 자책감을 안고 있는 '나'가 측은하고도 처참한 권 씨의 뒷모습을 보며 느낀 것으로, 연민의 감정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나체'는 '무엇으로도 가리지 않은 모습'으로,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의미한다. '나'가 권 씨에 대해 '나체구나'라고 느낀 것은 그의 모습이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그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나체'라는 표현을 '일탈(①)'이나 '순수(③)', '욕망(④)', '육체에 대한 사랑(⑤)' 등과 연결 짓는 것은 작품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13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므로, '문간방'은 강도가 곧 권 씨임을 암시해 주는 정보로 볼 수 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행동만으로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애로 뭉쳐진 한 가정의 가장'을 추리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오답 해설 ①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가 평소에는 언어를 점잖게 사용해 온 편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②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가 변변한 일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③ '피치 못할 사정 땜에 어쩔 수 없이' 식칼을 들고 강도가 되었으므로, 그가 어려운 사정 때문에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다. ④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며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이웃은 없다는 걸 똑똑히 봤'다고 했으므로, 그가 평소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왔음을 추리할 수 있다.

14 [A]의 '나(오 선생) – 그(권 씨)'가 〈보기〉에서는 '나(권 씨) – 그(오 선생)'로 바뀌어 표현되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뀐 것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주인공의 심정이 서술자의 관찰과 추측에 의존해 서술되므로 정확하지 않은 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주인공인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므로 '나(주인공)'의 심정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① [A]와 〈보기〉 모두 1인칭으로 서술되었다.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나(권 씨)'의 주관적 판단이 드러난다. ② [A]는 과거 시제, 〈보기〉는 현재 시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시제라고 해서 특별히 회고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회고적인 느낌이 감소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③ 추측성이 강한 관찰자('오 선생')의 시점이 부각되는 것은 〈보기〉가 아니라 [A]이다. ④ 멀어져 가는 사람은 권 씨이고 정지해 있는 사람은 오 선생이다. 따라서 멀어져 가는 사람의 시선에서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선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서술 속도에 변화가 생겼다고도 볼 수 없다.

15 ㉠은 엉겁결에 자기 집인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권 씨에게 그가 강도임(그러므로 대문으로 나가야 함)을 일깨운 것이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 했던 권 씨를 끝내 강도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훗날 내가 당신을'이 아니라 '훗날 당신이 나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강도로 처신하게 하려는 것이지 피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③ 문간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권 씨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임을 일깨운 것이다. ⑤ 현재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도여야 한다는 생각을 담은 것이다.

16 '그'에 대한 '나'의 대응 태도의 문제점은, 딱한 처지의 '그'를 도우려는 마음은 있지만, 상대의 여건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더 중시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착한 마음 이면에 개인의 입장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그'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집주인이긴 하지만 '나' 역시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② 강도가 된 권 씨의 상황에 개입하고 있으므로 '남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88~089쪽

01 ⓐ: 소시민, ⓑ: 자존심, ⓒ: 속물 **02**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작품으로, 서술자는 주인공을 관찰하여 서술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03**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 **04** ㉠: 돈을 빌려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함. ㉡: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전달함. ㉢: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임을 비판함. ㉣: 돈만 밝히는 행태를 비판함. ㉤: 사람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표출함. **05** (1) 지식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진 권 씨의 처지를 의미한다. (2)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며 주인공의 운명을 마무리 지어 보여 주는 고전 소설과 달리, 주인공의 행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완결 짓지 않는 열린 결말 방식을 취함으로써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깊은 여운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02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작품이다.

03 반짝거리는 구두와 대졸이라는 학력을 밝히는 것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는 권 씨의 심리를 보여 준다.

05 (1) 아홉 켤레가 남음. = 한 켤레가 사라짐. = 권 씨의 행방불명 →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진 권 씨의 처지
(2) 열린 결말 방식은 여운을 남기는 한편, 독자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90~09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02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작품이다.

09 집주인이기는 하지만 '나'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처지이다.

12 '상환할 의사'가 아니라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한다.

16 강도로 침입한 권 씨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영악하거나 고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17 '나'는 강도의 정체가 권 씨임을 눈치 채지만 그의 착한 성품을 신뢰한다.

19 '나'는 자신이 권 씨 부인의 수술비를 대신 내 주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리지는 않는다.

2 문제 해결의 지혜

01 논증하는 글 쓰기_당신은 개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96~101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①	05 ⑤	06 ⑤	07 ④	08 ①
09 ④	10 ③	11 ④	12 ②	13 ④	14 ⑤	15 ④	16 ②
17 ②	18 ③						

01 '이유'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객관성을 띠어야 하는 것은 '근거'이다.

오답 해설 ③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은 주장이다. '논증하는 글'에서는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④ 모든 글쓰기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적 쓰기 윤리에 해당한다.

02 논증하는 글 쓰기는 먼저 계획하기 단계에서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과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다음으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며 쓰기 전략을 조정하고, 표현하기 단계에서 생성한 내용과 조직 방법을 점검·조정하면서 논증하는 글을 쓴다. 마지막으로 쓰기 윤리를 지켰는지 점검하며 글을 고쳐 쓴다.

03 논증하는 글은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작문 관습이다(ㄱ). 또한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적절히 제시해야 한다(ㄷ). 글을 실을 매체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므로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수집하여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ㄹ).

오답 해설 ㄴ: 예상 독자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할 글이므로 구어적 표현보다는 공식적이고 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04 (나)의 첫 번째 자료는 동물 유기가 많다는 점을, 두 번째 자료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이 있다는 점을, 세 번째 자료는 유기견 발생이 많다는 점을 각각 보여 준다. 이를 종합하면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③·④·⑤ (나)의 자료들로부터 '다양한 동물(③)', '유기 동물 대책의 변화(④)', '보호받지 못하는 유기 동물(⑤)' 등의 내용을 추론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05 ㄷ을 보면 2016년~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유기견 발생 건수가 그 이후부터 202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 몇 년간 유기견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ㄱ은 버려지는 동물들이 속출하여 지자체 동물 보호소가 포화 상태임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토대로 ①, ②와 같은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③ ㄱ에서 각 지자체가 유기 동물 보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유기 동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며 제도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④ ㄴ은 고속 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동물의 사례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통해 키우던 개를 버리는 사람들의 무책임함이 문제라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06 '글쓰기 계획'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민이가 계획하고 있는 글은 자신의 주장(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이 필요하다.)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글, 즉 논증하는 글이다. 논증하는 글은 논리적 설득이 목적이지 정서 전달이 목적이 아니다. 정서 전달은 문학적인 글의 목적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쓰기 계획' 중 '주제'와 관련된다. ② '글쓰기 계획' 전체에서 확인된다. ③ '글쓰기 계획' 중 '독자'와 관련된다. ④ '글쓰기 계획' 중 '매체'와 관련된다.

07 '내용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이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그 개요에 따라 초고를 작성한다.

08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다. 연역 논증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귀납 논증에 해당한다. ③ 논리적 오류 중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④ 논리적 오류 중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⑤ 유비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Plus 〈참고〉 논리적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몇 개의 사례나 경험을 토대로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단정짓고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 A 사과와 B 사과를 먹어 보니 맛이 없었다. 그러므로 올해 사과는 전부 맛이 없을 것이다.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권위나 명성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오류로, 권위자가 아닌 부적합한 권위자의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 개그맨 ○○○가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을 거야.

09 논증하는 글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글이다.

오답 해설 ① 기사문의 특성이다. ② 보고문의 특성이다. ③ 설명문의 특성이다. ⑤ 감상문의 특성이다.

10 (나)에서 수집한 자료들로 보아,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는 책, 인터넷, 신문 기사 등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하여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매체에서 복합 양식 정보를 수집하여 근거로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글이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교환하는 글은 아니다. ②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④ 개인의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이므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공지 사항에 글을 올릴 수는 없다. ⑤ 이 글은 책임감 없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11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은 〈논증의 구조〉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개요〉에서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를 '이유 1'과 '이유 2'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⑤ 〈개요〉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2 〈자료 2〉는 반려동물 소음 민원이 많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는 반려견으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반려견이 내는 소음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즉 반려견

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반려견 소음 민원'을 '반려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그런 인식의 '보편화'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13 〈자료 4〉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많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반려견이 제대로 보호·관리되어야 하므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라는 쓰기의 맥락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신 반려견 관리의 필요성을 추리할 수 있는 '배변 처리나 목줄 사용 등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드러나는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의 경우,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5〉는 모두 반려견이 제대로 보호·관리되어야 하므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제외할 필요가 없다. ⓑ의 경우, '유기견 증가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①)'와 '유기견이 시골 마을의 농장을 습격하여 소형 가축을 죽이거나 물어 가는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드러나는 자료(⑤)'는 반려견이 제대로 보호·관리되어야 하므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추가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14 (다)에 따르면 '근거 4'는 '반려동물 소음 민원 접수 통계 자료'이므로 예상 반론인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반박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해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2', 즉 〈개요〉의 '본론 2'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론 2'로 옮겨 '근거 3'과 같이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

15 4문단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반박'하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를 보호자 자격시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 독일의 사례를 활용해 반박하면서 보호자 자격시험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이 서론, 2~4문단이 본론, 5문단이 결론에 해당한다. ③ 2문단과 3문단은 병렬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마지막 부분의 '당신은 개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에서는 '보호자가 바깥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아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 '반려견이 짖거나 뛰어다니며 소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자가 방치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구체적 사실들로부터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일반적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③ 논리적 오류 중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④ 논리적 오류 중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⑤ 유비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Plus 〈참고〉 논리적 오류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이나 결론을 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오류로,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라고도 한다. 예 이 책은 훌륭한 책이다. 왜냐하면 올해 베스트셀러 1위 도서이기 때문이다.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어떤 주장이 거짓임이 증명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참이라고 논증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 신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7 자격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과 연관된 표현이므로 '섣불리(솜씨가 설고 어설프게)'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덩달아'는 '실속도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좇아서'라는 의미로, 문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③ ⓒ 앞의 문장이 '노력의 필요성', ⓒ가 '유기하는 상황', ⓒ 다음 문장이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부연'이므로, ⓒ와 ⓒ 다음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 다음다음 문장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라는 말로 앞에 언급된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를 지시하면서 시작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가 이 문장 바로 앞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개 물림 사고의 측면에서 독일과 우리는 유사하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실시해서 개 물림 사고가 감소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의 유사점에 근거해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앞부분에서 '독일과 우리의 유사점(개 물림 사고 발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속성(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의 효과 = 개 물림 사고 감소)'도 유사할 것이라고 서술해야 유비 논증이 된다. 따라서 '우리도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시행한다면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를 추가하면 유비 논증을 통해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18 소방청 통계 자료는 3문단의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접수되었다고 합니다.'에서 활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터넷 게시판 자료는 2문단의 '반려견 관련 온라인 게시판을 보면~글이 많습니다.'에서 활용되고 있다. ② 유기견 발생 현황 자료는 2문단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를 보면~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에서 활용되고 있다. ④ 서울특별시 통계 자료는 3문단의 '서울특별시는~발표했습니다.'에서 활용되고 있다. ⑤ 신문 기사 자료는 4문단의 '독일의 한 지역에서는~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에서 활용되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02~105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① 05 ① 06 ⑤ 07 ③ 08 ③ 09 ③ 10 ④

01 '예상되는 반론'이 아니라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면서 주장을 강화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개인적 쓰기 윤리 ⑤ 사회적 쓰기 윤리

02 논증하는 글에서는 다양한 논증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한 가지 방법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논증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할 때는 예상 독자를 설정하고 글에 대한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관심사, 관점이나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논증하는 글은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에 적합한 주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③ 논증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작문 관습에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있다. ④ 매체에 따라 영상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고 문자로 된 글만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를 정해야 한다.

03 주장, 이유, 근거에 따라 논증의 구조를 세우고 내용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04 〈보기〉에서 글쓰기 윤리 중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자료 조사 결과와 결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이 없으며 이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글을 베껴 쓰는 행위는 아니다. ③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자료의 종류를 밝히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④ 통계 자료가 설문 조사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⑤ 참고 자료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이는 글쓴이의 신뢰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저작자에게 고통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것이 출처를 밝혀 쓰는 이유인 것도 아니다.

05 〈보기〉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개 물림 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거나 반려 동물의 소음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만 서술했는데 이를 고쳐 쓴 ㉠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11,152건 접수되었다', '민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06 '방긋'의 댓글은 '나라 사랑'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볼 수 있다. 댓글을 통해 반론을 펴는 것은 자유이고, 그 반론의 내용 또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므로 내용상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②·④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논점이 이미 '반려견 보유세'로 바뀌었으므로 논점에서 벗어난 댓글이다.

07 다운 소재의 제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초고에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초고의 1문단 '일반적으로 다운 패딩(down padding) 한 벌을 만들 때~5~15번 정도 털을 뜯긴다.'에 반영되었다. ② '다운 패딩, 비거니즘, RDS 마크, 업사이클링'과 같은 주요 용어의 뜻을 각주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④ 초고의 2문단 뒷부분에 반영되었다. ⑤ 초고의 3문단 뒷부분에 반영되었다.

08 ㉡의 경우 주어(거위들)가 행위를 당하는 상황이므로, '거위들이 털을 뜯긴다'와 같이 피동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글의 내용은 비건 패션과 윤리적 의류 구입에 관한 것인데, 부제인 ㉠은 엉뚱하게 '식생활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어울리게, 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으로 부제를 고쳐야 한다. ② ㉡은 조사 '과'로 연결된 두 어구 '상품의 질감'과 '비용'이 모두 서술어 '절감하다'와 호응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상품의 질감'은 절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연결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의 질감'과 호응하는 서술어를 보충하여 '상품의 질감을 좋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라고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 앞 문장이 '비건 패션'의 개념을 설명하고, ㉣ 뒤 문장이 그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을 바로 연결하고, 비건 패션 중 합성 소재의 장점을 추가로 설명한 ㉢을 그 뒤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앞에서 비윤리적으로 만들어지는 다운 의류를 사지 말자는 내용으로 진술해 왔으므로, 3문단 첫 문장에서처럼 다운 의류를 살 경우에 대해 언급하려면 '그래도'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09 초고에는 예상되는 독자의 반론이나 이에 대한 답변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1문단 첫머리의 '생활체육이란~체육 활동을 말한다.'에서 주요 개념인 생활체육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는'이라고 말한 후 '먼저, 주민들 대다수가~부족하다는 것이다.'에서 시설 측면의, '다음으로 주민들의 참여를~부족하다는 것이다.'에서 프로그램 측면의,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에서 홍보 측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을 '그렇다면~어떻게 해야 할까?'로 시작하고 이어서 이에 답하고 있으므로,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첫째, ~확충해야 한다.', '둘째,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시해야 한다.'에서 각각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10 〈보기〉는 생활체육 활성화의 가치, 즉 기대 효과를 개인의 차원('지역 주민 개개인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과 사회의 차원('지역 사회는 스포츠 산업의 발달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글의 작성을 유도할 수 있는 조언으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대 효과'를 주체별로 제시하였다. ② '생활체육에 참여할 때 유의할 점과 올바른 생활체육 참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③ '생활체육의 유래'와 '앞으로 변화할 생활체육의 미래'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 모두에게 가치가 있다.'에서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갖는 사회적 의의는 드러나고 있지만, '생활체육 참여의 장애 요인'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06쪽

01 (가): 연역, (나): 귀납 **02** 다른 사람의 자료나 정보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글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03** (1)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쓴다. (2)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함부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활용할 때는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

01 (가):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들고 있으므로 연역에 해당한다. (나): 개로 인한 물림 사고, 소음에 관한 민원 등의 구체적인 예를 먼저 제시한 뒤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에 해당한다.

02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03 (1) 개인적 쓰기 윤리는 모든 글 쓰기에 적용되는 윤리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0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03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이고, '근거'는 '객관적 자료'이다.

04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연역 논증이다. 귀납 논증은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07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은 개인적 쓰기 윤리에 해당한다.

08 논증 구조를 세우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02 지혜롭게 협상하기_우리 학교 아래로 고속 철도가 지나간다고?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10~115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②	05 ④	06 ⑤	07 ③	08 ①
09 ②	10 ②	11 ⑤	12 ②	13 ⑤	14 ③	15 ④	16 ⑤
17 ②	18 ①	19 ⑤	20 ②				

01 협상은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양보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타협안을 찾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오답 해설 ⑤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겪는 불편도 최소화한다.

02 협상 과정에서 상대의 태도를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협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협상에 임하는 자세로 적절하지 않다.

03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조정하기' 단계에서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이라도 그것을 고수하려고만 하다 보면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없으므로 양보하고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04 '합의안'은 협상의 결과를 문서로 정리한 것이다. '협상의 결과'는 협상의 쟁점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측의 입장 각각'을 정리한 것이라는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협상에서는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상대측의 이익을 최대화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협상은 갈등 상황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협력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②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결하고자 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해 나간다. ③ '시작–조정–해결' 단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 ⑤ 협상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서로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며 제안과 대안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

06 '협상 후'에는 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합의안을 작성한다.

오답 해설 ① '협상 전'에는 협상의 목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우리 측 입장에서의 최소 요구 사항, 예상되는 상대측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대안 등을 미리 분석하여 준비한다. 그러나 '상대에게 우리 측의 입장을 미리 전달'하지는 않는다. 우리 측의 입장은 '시작하기' 단계에서 밝힌다. ② 우리 측 입장에서의 최소 요구 사항, 예상되는 상대측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대안은 '협상 전'에 준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하기' 단계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시작하기' 단계에서는 양측의 입장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③ '시작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④ '조정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07 ㉠과 ㉡은 협상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최소 요구 사항],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⑤). 이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실현 가능한 구체적 타협안을 찾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④). [최소 요구 사항]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관련된 양보와 조정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협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려 하는 것이다.

08 ㉠은 [최소 요구 사항]을 통해 '고속 철도 공사 계획 반대'라는 [입장]과 관련된 양보와 조정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은 협상에서 '고속 철도 공사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속 철도 공사 계획'의 취소, 곧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의 [입장]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의 [입장]과 [최소 요구 사항]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④ ㉡은 [최소 요구 사항]에서 최소 운행 속도를 200km/h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속 철도 공사 계획'의 300km/h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가능성, 즉 양보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⑤ ㉡의 [최소 요구 사항] 첫 번째 항목에서 추리할 수 있다.

09 ㉠과 ㉡의 [대안]에서 지역 주민의 고속 철도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또한 양측의 [입장]이나 [최소 요구 사항]에 '지역 주민의 고속 철도 이용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것이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의 [입장]과 [최소 요구 사항] 첫 번째 항목, ㉡의 [최소 요구 사항] 첫 번째 항목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③ ㉠의 [입장]과 [최소 요구 사항] 두 번째 항목, ㉡의 [최소 요구 사항] 첫 번째 항목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④ ㉠의 [입장]과 [최소 요구 사항] 두 번째 항목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⑤ ㉠의 [입장]과 [최소 요구 사항] 두 번째 항목, ㉡의 [최소 요구 사항] 두 번째 항목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10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여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공동의 의사 결정 과정이다. 따라서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협상은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대측과 경쟁적으로 협력한다. ③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협상의 목적이다. ④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달라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협상 참여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협상은 서로의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11 반대 위원회는 '공사 구간에 포함한 국립 공원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과 학교와 지역 주민이 겪게 될 피해에 관한 충분한 대안이 없다면 저희는 고속 철도 공사 계획에 반대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대안이 있다면' 고속 철도 공사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충분한 대안의 마련'이라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추진 위원회는 '고속 철도 공사 계획에 관해~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고, 반대 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많은 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하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즉 양측은 모두 상대의 입장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지 '공감'한 것은 아니다. ② 추진 위원회는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목적'임을 근거로 공사 실행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준비한 공사 계획'이라는 말은 관련 사실을 제시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주장을 편 것은 아니다. ③ 추진 위원회는 '생태계 파괴와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검증받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검증받은 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받은 기술'이 있다는 것이다. ④ 반대 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많은 계획'임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 반대 위원회의 첫 번째 발언을 통해 고속 철도 공사가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많은 계획'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미한 경제적 가치는 반대 위원회가 우려하는 바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학생들의 안전, ③ 국립 공원의 생태계 파괴, ④ 고속 철도 운행 시 발행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 ⑤ 토사 및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땅 꺼짐 현상 등은 모두 반대 위원회가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이다.

13 (나)는 협상의 조정 단계를 보여 주고 있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협상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은 협상의 시작 단계인 (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14 ㉢은 상대를 '지역 이기주의자'로 매도하여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다. '철도 사업 반대=대다수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반대하는 것=지역 이기주의'라는 논리는 '객관적'인 평가로 볼 수 없으며,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상대를 비난한 것이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말로는 보기 어려우며, 올바른 협상의 태도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이어지는 '추진 위원회'와 '반대 위원회'의 말로 보아 '터널 내부로 토사와 지하수가 유입되어 땅 꺼짐 현상과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한 추측이다. ㉡은 이런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정말 이런 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라고 상대를 비난한 것으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표현에 해당한다. ④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고속 철도 건설은 대기 오염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고속 철도 건설이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상대의 발언이 '국립 공원의 생태계 보호'라는 논점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15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여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공동의 의사 결정 과정이다. 학교 주변 공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건의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말하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통금 시간에 관해 부모님과 자신의 주장을 조율하는 협상이 필요하다. ② 연봉에 대한 회사와 자신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③ 동아리 대표들이 모여 학교 강당 요일 및 시간을 정하는 상황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협상이 필요하다. ⑤ 업무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16 해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으로 문제 해결에 합의한다.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협상은 '시작–조정–해결' 단계로 이루어진다. ②, ③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며 협상 가능성을 진단한다. ④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측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며 입장 차를 축소해 나간다.

17 〈보기〉는 호혜성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드러난 사례는 ⓑ이다. ⓑ에서는 국립 공원 노선 변경이라는 '호의'를 베푼 후에, 호의에 대해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여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 유지'라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입장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면서 재확인하고 있다. ③ 권위의 힘에 기대어 주장(공법의 안전성)을 펼치고 있다('권위를 이용하기' 전략). ④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준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상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전략). ⑤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들어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8 쟁점 1)과 관련하여 반대 위원회는 국립 공원 지하를 지나는 공사 구간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 변경은 제안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은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그렇다면 지하 터널 전체 구간이 아니라 학교와 주거지 아래 일부 공사 구간만 공법을 변경하는 것은 어떠신지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공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120km/h로 낮춰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그 속력으로 운행하면~200krn/h로 낮추겠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ㄴ과 관련하여 반대 위원회는 추진 위원회가 제시한 연 1회 5명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제안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철도 개통 후 수익에 따라 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20 합의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만 그 합의의 유효 기간은 드러나지 않는다. '20○○년 ○○월 ○○일'은 합의 일자이지 합의의 유효 기간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합의안은 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것이고,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에서 그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③ 합의 사항 중에는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의 고속 열차 속력에 관한 합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합의 사항 중에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에서는 200km/h로 고속 열차의 속력을 낮춰 운행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16~119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⑤ 05 ③ 06 ④ 07 ⑤ 08 ②
09 ② 10 ⑤ 11 ④

01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이 글은 협상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협상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토의에 관한 설명이다. ④ 패널 토의에 관한 설명이다. ⑤ 토론에 관한 설명이다.

02 협상에서는 상대의 의견과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합의 가능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실현 가능한 구체적 타협안을 찾기 위해 자기의 제안을 양보·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합의 불발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갈등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협상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④ 상대의 입장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 동기 자체를 공박해서는(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

03 (라)의 반대 위원회의 두 번째 발언에 따르면 고속 철도 개통 후 수익에 따라 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따라서 수익에 상관없이 요구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추진 위원회의 두 번째 발언에서 '수목산 국립 공원을 피해 동측 농경지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며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② (나)의 마지막 발언에서 '구간 유지에는 동의'하지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 공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③ (나)의 추진 위원회의 첫 번째 발언에서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간을 변경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추진 위원회는 (다)의 마지막 발언에서 '공사에 협조해 주'는 점을 고려하여 '수목구 주민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반대 위원회 역시 (라)의 첫 번째 발언에서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속 철도에 관해 긍정적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두 번째 발언에서 '고속 철도 이용을 지역 신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상대방이 얻을 이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04 (라)는 상대측이 제시한 대안의 수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최선의 해결책으로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있는 협상의 해결 단계이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준비 단계로 양측이 협상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②, ③ (나)~(다)는 협상의 조정 단계로, 반대 위원회 측과 추진 위원회 측이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며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고 있다. ④ (라)는 해결 단계이므로 최선의 해결책으로 합의에 이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5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화합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갈등의 책임을 규명하는(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히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생길 때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 책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06 '해결하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한다. '우리 측의 최소 요구 사항, 예상되는 상대측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대안'은 '협상 전'에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하기' 단계에서 협상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07 청소년 단체 대표와 여행사 직원은 상품과 관련된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로 제안을 하면서 협상하고 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제안'을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예컨대 숙소를 옮기자는 청소년 단체 대표의 제안으로 숙소를 유지하려는 여행사 직원의 입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자는 여행사 직원의 제안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청소년 단체 대표의 입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처음에는 숙소 변경을 쟁점으로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중간에 첫날 저녁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쟁점이 추가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단체 대표의 첫 번째 발언 중 '저희가 조사해 보니 숙소가 견학 장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더군요.'와 두 번째 발언 중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곳은 이번 리더십 캠프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요.'를 통해 사전 준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비용을 꽤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라는 여행사 직원의 말이나 '그러면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만 저희가 진행하면 어떨까요?'라는 청소년 단체 대표의 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숙소에 대한 상반된 의견 때문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여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 청소년 단체 대표(A)는 숙소를 변경하자고 여행사 직원(B)을 설득하면서 '입장료와 버스 유류비 등을 빼면 비용이 절감되어 숙소를 옮길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하고 있다. 비용 절감 방안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여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여행사 직원과의 타협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A의 질문이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이는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상대의 의견을 묻는, 즉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③ A가 갈등을 회피하며 기존 방안을 고수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조정이 어려우면 다른 여행사를 알아볼 수밖에 없네요.'라고 한 것은 협상 결렬을 암시함으로써 비용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지 갈등을 회피한 것이 아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꺼내지 말자."나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등과 같이 어물쩍 넘어가면서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B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말하고 있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공격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B가 A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에서 청소년 단체 대표는 상품 가격을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견학을 취소하고 프로그램을 나누어 진행하면서 동일한 가격 내에서 숙소를 옮기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오답 해설 ① 여행사 직원의 첫 번째 발언 중 '그곳은 저희 여행사 직영 숙소라서~단체 행사를 위한 넓은 공간도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여행사 직원의 두 번째 발언 중 '정 그러시면 비용을 조금만 더 들이시는 게 어떨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청소년 단체 대표의 네 번째 발언 중 '음, 그러면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만 저희가 진행하면 어떨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청소년 단체 대표의 다섯 번째 발언 중 '단, 그 외에 다른 여건이 기존 숙소보다 나빠지면 곤란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협상 상황'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사안'은 두 마을이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것이다. A와 B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축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조율되고 있지만 축제 공동 개최라는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A의 첫 번째 발언에서 '축제 공식 명칭'을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했고 그것이 이번 협상의 의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A의 네 번째 발언에서 A가 B 마을이 '축제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협상 전에 알아보았음을 알 수 있다. A는 다섯 번째 발언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③ B는 일곱 번째 발언 '그 제안은 저희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단독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에서 A가 앞서 제안한 세부 조건(행사 배분 비율 50%)이 협상 결렬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고, 이것이 A의 여덟 번째 발언 중 '그 대신에 B 마을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요?'라는 새로운 제안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④ A가 여덟 번째 발언에서 '행사 배분 비율은 양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자 B가 이를 고려하여 여덟 번째 발언에서 '행사 배분은 동일하게 50%씩 하고~저희 마을부터 선택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와 같이 세부 조건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11 A의 다섯 번째 발언 중 '저희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는 말과 B의 여섯 번째 발언 중 '저희는 경제적 이득이 중요'하다는 말에서 A 마을은 인지도 향상, B 마을은 경제적 이득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A의 다섯 번째 발언~B의 여섯 번째 발언에서, 축제 명칭에 A 마을 이름을 앞세우기로 한 것은 A 마을의 인지도 향상 방안에 해당하고, A의 여섯 번째 발언부터의 협상에서, B 마을 특산품을 축제 캐릭터로 만들고 B 마을부터 행사를 선택하기로 한 것은 B 마을의 경제적 이득의 실현 방안이다. 따라서 양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과 관련된 방안이 도출되었으므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B는 두 번째 발언에서 '저희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고 A도 세 번째 발언에서 'B 마을도 공동 개최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 모두 상대방의 양보로 축제의 공동 개최가 가능했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B는 여덟 번째 발언 중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행사 배분은 동일하게 50%씩 하고'에서 행사 배분 비율을 양보하고 있다. 하지만 A는 두 번째 발언에서 제안한 축제 명칭에 대한 요구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조건에 대해 양보하고 있다. ③ 행사 선택의 순서는 B의 마지막 발언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A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B의 최초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 축제 캐릭터는 B의 여섯 번째 발언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A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B도 이후에 다시 언급하지 않으면서 B의 최초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 ⑤ A는 다섯 번째 발언에서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만 축제 홍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B는 일곱 번째 발언에서 '공동 개최에 대한 반대가 많'다고 말했지만 마을의 화합 증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20쪽

01 협상의 조정 단계로,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상호 검토하며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02 상대의 호의에 대해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여 먼저 베푼 후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03 ⓐ: 협력 ⓑ: 양보 ⓒ: 공동

02 추진 위원회는 '국립 공원의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을 변경한다는 호의를 베풂으로써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 유지'라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이는 상대의 호의에 대해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는 심리(호혜성의 법칙)를 이용하여 먼저 베푼 후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2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01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양보를 통해 타협하는 과정이다.

04
- 호혜성의 법칙: 상대의 호의에 대해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여 먼저 베푼 후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전략
-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다음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키려는 전략

06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검토하면서 입장 차를 좁혀 나'가는 것은 '조정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07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갈등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시작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3 국어의 어제와 오늘

01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26~131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② 07 ⑤ 08 ②
09 ⑤ 10 ④ 11 ③ 12 ④ 13 ① 14 ③ 15 ⑤ 16 ⑤
17 ① 18 ① 19 ④ 20 ③ 21 ② 22 ④ 23 ⑤ 24 ③
25 ⑤ 26 ④

01 글자를 표기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후에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 적기가 혼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끊어 적기가 철저히 지켜졌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세로쓰기를 하였다. 문제 등에서 가로쓰기 형태로 제시되는 것은 가로쓰기에 익숙한 현실을 고려하여 변형한 것이다. ③ 〈세종어제훈민정음〉의 '너 · 겨(여겨), 니르 · 고 · 져(>이르고자)' 등을 보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세종어제훈민정음〉을 보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ㅅ 및다, 젼차' 등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02 〈세종어제훈민정음〉의 'ᄆᆞᄉᆞ · 믈(>스물)', 〈용비어천가〉의 'ᄆᆞᄆᆞ · 믈은(>물은)' 등을 보면 원순 모음화(순음 'ㅁ, ㅂ, ㅍ'의 영향으로 'ㅡ'가 'ㅜ'로 바뀌는 현상)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ㆁ, ㆆ, ㅿ, ㅸ, ᄋᆞ' 등의 음운이 쓰였다. ③ 'ㅲ, ㅉ' 등의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다. 어두 자음군은 후에 된소리로 바뀌었다. ④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음의 고저(성조)를 표시하였다. ⑤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거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예 〈세종어제훈민정음〉의 'ᄋᆞ · 웡 · ᄒᆞ · 야':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은 '위하여'가 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

03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이 자음군인데, 이는 합용 병서(예 ㅲ, ㅉ)에 해당한다. 'ㅆ'은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로, 자음군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이다. 따라서 ':말ᄊᆞ · 미'는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이 온 경우이다. 둘 이상의 자음과 관련된 중세 국어의 특징은 어두 자음군인데, 어두 자음군은 '음절'이 아니라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것을 말한다. 예 ᄠᅳ · 들, ᄲᅮ · 메

오답 해설 ① 'ᄠᅳᆯ + 을'에서 첫 음절의 종성 'ㄷ'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적고 있다. ④ 'ᄡᅳ- + -움 + 에(씀에)'에서 현대 국어와는 다른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되고 있다.

04 ㉮는 원순 모음화에 해당한다. 원순 모음화는 순음 'ㅁ, ㅂ, ㅍ'의 영향으로 'ㅡ'가 'ㅜ'로 바뀌는 현상이다.

오답 해설 ① 두음 법칙 ③ 구개음화 ④ 'ㆍ'이 사라졌다.

05 어 · 린: 어리석은 → 나이가 적은(의미 이동)
:어엿 · 비: 불쌍히, 가엾게 → 어여쁘게, 예쁘게(의미 이동)

오답 해설 ㉠ 의미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단어 자체가 사라진 말이다. ㉢ 놈: (보통) 사람 → '남자'를 낮춰 부르는 말(의미 축소) ㉣ 의미의 변화가 없는 말이다.

06 ⓑ는 현대어로는 '말이'에 해당하므로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는 '말씀 + 이'를 이어 적기 한 것이므로 주격 조사로 사용된 것은 'ㅣ'가 아니라 '이'이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이',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ㅣ',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현대어로는 '우리나라(의)'에 해당하므로 'ㅅ'이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현대어로는 '중국과'에 해당하므로 '에'가 비교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바'가 주격 조사와 결합한 것이므로 현대 국어라면 '바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ㅣ'가 결합하여 '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현대어로는 '이것을(이를)'에 해당하므로 'ᄅᆞᆯ'이 목적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7 현대 국어에서는 방점과 함께 성조도 사라졌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의 'ㆍ쁘ㆍ들'은 현대 국어의 '뜻을'로, 중세 국어의 'ㆍᄲᅮㆍ메'는 현대 국어의 '씀에(쓰는 데)'로 바뀌었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말ᄊᆞ미'와 같이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으나 현대 국어에 와서 '말씀이'와 같이 끊어 적기로 바뀌었다. ③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ㆆ, ㅸ, ㅇ, ㆍ'가 사용되었다. ④ 두음 법칙에 의해 중세 국어의 '니르ㆍ고ㆍ져'는 현대 국어의 '이르고자'로, 중세 국어의 '너ㆍ겨'는 현대 국어의 '여겨'로 바뀌었다.

08 'ㅇㅇ'은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 쓰이던 옛 글자이다. 어두 자음군은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인데, 'ㆍᄢᅴ'의 'ㅇㅇ'은 '단어의 첫머리'에 쓰인 것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을 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두 자음군의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두 자음군이 쓰인 사례는 'ㆍᄠㆍ들', 'ㆍᄲᅮㆍ메' 등이다.

오답 해설 ①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쓰게 한 8종성법에 따라 'ㅇ'이 사용된 것이다. ⑤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자음 'ㆆ'과 모음 'ㆍ'가 사용되었다.

09 ㉠은 비교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 '와/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⑤의 '과'로 '내 입장'과 '그녀의 생각'이 비교의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②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③ㆍ④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10 '놈'은 중세 국어에서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인다.

11 '제'는 '저의'라는 의미로, '저'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여 줄어든 말이다.

오답 해설 ① '말씀 + 이'를 이어 적기 한 것이다. ② '중국과'에 해당하므로 '에'는 비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⑤ 현대 국어에는 없는 자음 'ㅸ'이 쓰였다.

12 ⓓ는 '많다'는 의미를 지닌 말로,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통하지 ② 까닭으로 ③ 말하고자 ⑤ 가엾게

13 '펴ㆍ디 → 펴지'는 'ㅣ' 앞의 'ㄷ'이 'ㅈ'으로 바뀌었다(구개음화).

오답 해설 ② 사람 →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의미 축소 ③ ㆍ윙ㆍㅎㆍ야 → 위하여: 모음 조화 문란 ④ 너ㆍ겨 → 여겨: 두음 법칙 ⑤ ㆍ스ㆍ믈 → 스물: 원순 모음화

14 ㉣에서 종성의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고 했으므로, ':어엿ㆍ비'의 'ㅅ'은 'ㄷ'과 다르게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자음 'ㅿ'과 'ㅸ'이 존재했다고 했는데, ':수ㆍ뷔'에서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 'ㅸ'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에서 어두 자음군은 각각의 자음이 모두 발음되었다고 했으므로, 'ㆍ쁘ㆍ들'의 'ㅂㄷ'에서는 'ㅂ'과 'ㄷ'이 모두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방점을 찍어 성조를 구분했다고 했으므로, 방점의 개수가 다른 ':히'와 'ㆍ혀'는 성조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⑤ 연철 표기는 이어 적기를, 분철 표기는 끊어 적기를 의미한다. ㉤에서 연철 표기(이어 적기)를 했다고 했는데, '쓰ㅡ + ㅡ움 + 에'를 '뭄에'가 아닌 'ㆍᄲᅮㆍ메'로 적었으므로, 연철 표기임을 알 수 있다.

15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ᄋᆞᆯ'이나 'ᄅᆞᆯ'이 쓰였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 중성 모음인 'ㅣ'는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양성 모음이 아님에도 목적격 조사 'ᄅᆞᆯ'이 쓰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이 '우리나라의'에 해당하므로, 'ㅅ'이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의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② ㉡이 '바가'에 해당하므로, 'ㅣ'가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가'의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③ 현대 국어와 달리 서로 다른 두 개의 초성 글자 'ㅂ'과 'ㄷ'이 나란히 쓰인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이 '사람이'에 해당하므로, '놈'이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 현대 국어에서의 의미와는 다르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6 '기ㆍ픈', 'ᄇᆞᄅᆞㆍ매', ':됴ㆍ코', ':ᄉᆡㆍ미', 'ㆍ므ㆍ른' 등으로 보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ᄇᆞᄅᆞㆍ매', 'ㆍᄀᆞᄆᆞㆍ래', '바ㆍᄅᆞㆍ래' 등을 통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④ 'ᄂᆞᄅᆞㆍ샤', 'ㆍ이시ㆍ니', 'ㆍㅎ시ㆍ니' 등을 통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 'ㆍ이시ㆍ니', 'ㆍㅎ시ㆍ니' 등에서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시-'도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시니'와 같이 뒤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시-', 'ᄂᆞᄅᆞ샤일'과 같이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샤-'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사용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시-'로 통일되었다.

오답 해설 ② '와'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나모와', '나모도' 등과 같이 '나모'로 썼고 'ᄋᆞᆫ'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낡'으로 썼다. ⑤ '냉'가 중세 국어에서는 ㆆ 종성 체언이어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붙는 주격 조사 'ㅣ'와 결합한 뒤 이어 적기에 따라 '내히'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ㆆ 종성 체언이 아니므로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내가'가 되었다.

18 '불ㆍ휘'는 '뿌리'라는 뜻으로, 'ㅣ'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이다. 이 단어가 주어의 자리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주격 조사를 붙이지 않았으므로 단어 그대로 '불ㆍ휘'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ㅣ' 계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주격 조사가 생략된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8종성법은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 것인데, ㉡은 받침에 'ㅈ'을 쓴 것으로 보아 8종성법 대신 종성부용초성(종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함.)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중세 국어에서 '여름'은 '열매'를, '녀름'은 계절 여름을 의미했다. 따라서 ㉢은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경우가 아니며, '녀름' 역시 당시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④ 현대 국어의 '물은'에 해당하므로, 입술소리 'ㅁ, ㅂ, ㅍ' 뒤에서 'ㅡ'가 'ㅜ'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현대 국어에서 사라진 어휘가 아니라 사라진 음운(ㆍ)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9 '햇볕에 옷을 말렸다.'에서 '에'는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이 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그러나 ⓑ의 '애'는 앞말이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따라서 둘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각각 'ᄇᆞᄅᆞᆷ + 애', 'ᄀᆞᄆᆞᆯ + 애', '바ᄅᆞᆯ + 애'로, 모음 조화에 따라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것을 이어 적기 하고 있다. ② 모두 체언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형태이다. ③ ⓐ와 ⓑ의 '애'는 앞말인 'ᄇᆞᄅᆞᆷ'과 'ᄀᆞᄆᆞᆯ'이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⑤ ⓒ의 '애'는 앞말인 '바ᄅᆞᆯ'이 진행 방향이 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20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어두 자음군인데, 이 글에서는 'ㅱ, ㅸ, ㅹ' 등과 같은 어두 자음군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ㆍ'와 같은 음운이 나타나 있다. ④ 'ᄇᆞᄅᆞ · 매(ᄇᆞᄅᆞᆷ + 애)', 'ᄀᆞ · ᄆᆞ · 래(ᄀᆞᄆᆞᆯ + 애)' 등은 양성 모음끼리 결합한 형태로, 중세 국어에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⑤ '기 · 픈(깊– + –은)', 'ᄇᆞᄅᆞ · 매(ᄇᆞᄅᆞᆷ + 애)' 등에서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앞말의 받침을 뒷말의 초성 자리에 옮겨 적는 이어 적기 방식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1 ㉡은 '하 + ᄂᆞ니'로, 받침이 없는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한 것이다. 이어 적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오답 해설 ㉠은 '낡 + 은', ㉢은 '심 + 이', ㉣은 'ᄀᆞᄆᆞᆯ + 애', ㉤은 'ᄇᆞᄅᆞᆯ + 애'를 이어 적기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22 중세 국어의 'ㆍ · ᄆᆞ · 른'은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현대 국어의 '물은'은 'ㅁ' 다음의 'ㅡ'가 'ㅜ'로 바뀌면서 원순 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ᄂᆞᄅᆞ · 샤'에는 '–샤–'가, 'ㆍ · ᄒᆞ시 · 니'에서는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모두 '–시–'가 쓰인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지켜 '애'를 썼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에 상관없이 '에'를 쓴다. ⑤ 방점으로 표시된 성조가 사라졌고 모음 'ㆍ · '도 사라졌다.

23 ':내 · 히'의 '내ㅎ'는 ㅎ 종성 체언으로, ⓐ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 것이다. '히'가 된 것은 앞 체언의 종성 'ㅎ'을 뒤의 조사 '이'에 이어 적었기 때문이지 조사 'ㅣ'가 결합된 때문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불 · 휘'는 반모음 'ㅣ'로 끝나는 체언으로, ⓑ에 따라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③ ':싀 · 미'의 '싀'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으로, ⓐ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 것을 이어 적기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④ '곶'과 '여 · 름'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가 이어진다면 ⓐ에 따라 '이'가 나타날 것이다.

24 현대 국어의 '살코기'는 중세 국어의 'ᄉᆞᆯㅎ'과 '고기'가 결합하면서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남은 단어이다. 자료에 따르면,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살코기'의 '살'은 중세 국어에서 단독으로 쓰일 경우 'ᄉᆞᆯ'의 형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안팎'은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인 '안ㅎ'과 '밖'이 결합하면서 '안ㅎ'의 흔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② '수캐'는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인 '수ㅎ'와 '개'가 결합하면서, '수ㅎ'의 'ㅎ'이 '개'의 'ㄱ'과 어울려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④ 중세 국어에서 '나라ㅎ'는 'ㅎ 종성 체언'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할 경우 'ㅎ'을 이어 적어 '나라히'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⑤ '암평아리'는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인 '암ㅎ'과 '병아리'가 결합하면서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남은 단어이다.

25 '비대면 시험'은 '랜선 음악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등장한 말이다.

오답 해설 ② '륜거'와 '화차'는 현재 쓰이지 않는 말이다.

26 〈보기 1〉에서는 백성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즉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보기 2〉의 (가)는 외국어를 남용하여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는 상황, (나)는 무리들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보기 1〉의 글쓴이라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 1〉에 드러난 태도로 볼 수 없으며, 〈보기 2〉의 (가)와만 관련된다. ② 〈보기 1〉에 드러난 태도로 볼 수 없으며, 〈보기 2〉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 2〉의 상황에 대한 해법이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 1〉에 드러난 태도로 볼 수 없으며, 〈보기 2〉의 (가)와만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잘못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32~135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③ 05 ④ 06 ② 07 ⑤ 08 ②
09 ⑤ 10 ① 11 ① 12 ② 13 ④ 14 ① 15 ⑤ 16 ②
17 ⑤

01 '펴 · 디'가 '펴지'로 표기되지 않은 것에서, 'ㅣ' 모음 앞에서 'ㄷ'이 'ㅈ'으로 변하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ㆍ · ᄠᅳ · 들, ㆍ · 뿌 · 메' 등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나란히 오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뿐 · 솅宗종御 · 엉製 · 졩' 등에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한자음을 중국 발음에 가깝게 표기함. 초 · 중 · 종성을 모두 갖추어 표기함.)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어엿 · 비' 등에서 방점으로 성조를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⑤ 'ᄉᆞᄃᆞ디'에서 8종성법에 있는 받침 'ㅅ'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8종성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ㆍ · 뿌 · 메' 등에서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 'ㆍ · 뿌 · 메'는 'ᄡᅳ– + –움 + 에'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움'은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ᄡᅳ–'는 '쓰다'의 어간인데, '현대어 풀이'로 볼 때 '쓰다'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말ᄊᆞᆷ · 미'는 '말ᄊᆞᆷ(명사) + 이(주격 조사)'를 이어 적기 한 것이고, 'ㆍ · 홇 · 배'의 '배'는 'ᄇᆡ(의존 명사) + ㅣ(주격 조사)'를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주격 조사의 형태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② 중세 국어의 '하다'는 현대어 '많다'에 대응하며, 그 품사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③ 방점은 강약이 아니라 소리의 고저, 즉 성조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ㆍ · 이 · 롤'과 'ㆍ · 새 · 로'에서처럼 글자 왼편에 한 점을 찍은 것은 거성(높은 소리)을 의미한다. ④ ':히 · 여'와 '便뼌安한 · 킈ᄒᆞ · 고 · 져'는 각각 현대어 '하여금'과 '편하게 하고자'에 대응한다. 이것들은 모두 피동(행위를 당함.) 표현이 아니라 사동(행위를 시킴.) 표현에 해당한다.

03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은 자주, 애민, 창조, 실용 정신으로 볼 수 있다. '어 · 린百 · 빅姓 · 셩 · 이니르 · 고 · 져 · 홇 · 배이 · 셔 · 도'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라는 뜻으로, 평등 정신과는 관련이 없다.

04 ㉣은 'ᄠᅳᆮ + 을'을 이어 적은 것이다. '을'이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격 조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목적격 조사가 나타난 예'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단어 첫머리의 'ㄴ'이 'ㅣ' 앞에서 탈락한 것이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예이다. ② 중세 국어에서 쓰이던 자음 'ㆆ'이 소실된 예이다. ④ 중세 국어의 'ㆍ · 스 · 믈'은 입술소리 'ㅁ, ㅂ, ㅍ' 뒤에서 'ㅡ'가 'ㅜ'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에

의해 현대 국어에서 '스물'로 형태가 변화되었다. ⑤ 중세 국어에서 모음 조화에 따라 명사형 어미가 '-옴'과 '-움'으로 나뉘어 사용되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 '-(으)ㅁ'으로 통일된 것이다.

05 ⓓ의 '하다'는 '많다'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졌다. 따라서 의미 확대를 포함한 의미 변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대 국어에서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하다'는 중세 국어 'ᄒᆞ다'와 관련된다.

06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최초의 작품인 것은 맞지만 3·4조의 음수율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문학 갈래상 악장에 해당한다. ③ 세종의 직계 여섯 조상을 '海東(해동) 六龍(육룡)'에,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뿌리가 깊은 나무'에, 유서가 깊은 나라를 '샘이 깊은 물'에 비유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비교를, 「제2장」에서는 대구를 활용하고 있다. ④ 세종의 여섯 조상을 중국의 제왕들과 견주어 위대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꽃, 열매, 내, 바다' 등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조선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07 ㉣과 ㉤의 '애'는 모두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에 해당하지만 각각의 의미는 다르다. ㉣ 'ᄇᆞᄅᆞᆷ + 애'의 조사 '애'는 'ᄇᆞᄅᆞᆷ'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반면, ㉤ '바ᄅᆞᆯ + 애'의 조사 '애'는 '바ᄅᆞᆯ'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은 현대어로는 '고성(옛날의 성인)과'에 해당하므로, ㉠의 조사 '이'는 현대 국어의 조사 '와/과'와 마찬가지로 앞말이 비교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② ㉡은 현대어로는 '뿌리가'에 해당하지만 형태소 분석은 '불휘 + ∅'이므로, '가'에 해당하는 주격 조사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의 형태소 분석(남ㄱ + 은)으로 볼 때, 체언 '남'은 특정 조사와 결합할 때 'ㄱ'이 덧붙음을 알 수 있다. ④ ㉢은 '나무는', ㉣은 '물은'에 해당하므로 ㉢의 조사 '은'과 ㉣의 조사 '은'은 모두 현대 국어의 조사 '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은'과 '은'은 모음 조화에 따라 달리 표기된 것이다.

08 'ᄇᆞᄅᆞ·매', '·므·른' 등에서 드러나듯이 이어 적기에 따라 표기하였다.

오답 해설 ④ 'ᄂᆞᄅᆞ·샤'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샤-'가, '天福(천복)·이시·니'와 '同符(동부)·하시·니'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시-'가 사용되었다. ⑤ '아·니:뭘·씨'와 '그·츨·씨'에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 '-ㄹ씨'가 사용되었다.

09 ⓐ는 '동부(同符: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음.)'라는 명사를 '동부ᄒᆞ다'라는 동사로 만드는 접미사로, 현대 국어의 '-하다'에 해당하고, ⓑ는 '많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이다.

오답 해설 ④ ⓐ는 어미가 아니라 접미사이고, ⓑ는 '많다'에 해당하는 형용사이다.

10 불휘(불휘 + ∅): 반모음 'ㅣ'로 끝난 체언 '불휘' 뒤에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어 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음.
ᄉᆡ미(ᄉᆡᆷ +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ᄉᆡᆷ'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체언의 끝소리가 연음되어 나타남.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ᄇᆞᄅᆞ매(ᄇᆞᄅᆞᆷ + 애)'는 현대어의 '바람에'에, 'ᄀᆞᄆᆞ래(ᄀᆞᄆᆞᆯ + 애)'는 현대어의 '가뭄에'에 대응하므로, 여기에 사용된 '애'는 모두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와 같은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③ 'ᄒᆞᄂᆞ니'가 현대어의 '많으니'에 대응하므로, 중세 국어의 '하다'는 현대 국어의 '하다'와 다른 뜻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④ '므른(믈 + 은)'에서는 명사 '믈'의 끝소리 'ㄹ'을 조사 '은'의 첫소리로, 'ᄇᆞᄅᆞ래(바ᄅᆞᆯ + 애)'에서는 명사 '바ᄅᆞᆯ'의 끝소리 'ㄹ'을 조사 '애'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⑤ '내히(내ㅎ + 이)'에서는 끝소리에 'ㅎ'을 가진 체언 '내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하면서 체언의 끝소리 'ㅎ'이 연음되어 나타났다.

11 ㉠은 현대어로는 '중국과'에 해당하므로, '에'가 '과'와 같은 역할, 즉 비교를 의미하는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말이 장소임을 표시하는 조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ㄹ씨'는 '-므로'에 해당하는데, '-므로'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ㄹ씨'는 앞말이 뒤에 오는 내용과 인과 관계로 연결됨을 표시한다. ③ '-ㄴ'은 '-은'에 해당하는데, '-은'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이므로, '-ㄴ'은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함을 표시한다. ④ 'ㅣ'는 '가'에 해당하는데, '가'는 주격 조사이므로, 'ㅣ'는 앞말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한다. ⑤ '을'은 현대어에서도 '을'에 해당하는데, '을'은 목적격 조사이므로, 앞말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한다.

12 순음의 영향으로 'ㅡ'가 'ㅜ'로 바뀌는 것은 원순 모음화이다. ㉡과 ㉤은 현대어에서 원순 모음화되어 각각 '스물'과 '물은'으로 바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ㅣ' 모음에 선행하는 'ㄷ'이 'ㅈ'으로 바뀌는 것은 구개음화이다. ㉠이 '펴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③ ㉢은 '쓰- + -움 + 에'로 분석할 수 있는데, 모음 조화에 따라 명사형 어미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음을 보여 준다. ④ ㉢에는 어두 자음군 'ㅺ'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한 탐구 내용이다. ⑤ ㉣의 '은'과 ㉤의 '은'은 모두 보조사이다. ㉣은 '남ㄱ + 은', ㉤은 '믈 + 은'으로 분석되는데,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 각각 다른 형태의 보조사가 붙은 것이다.

13 8종성법은 받침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만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가)는 'ᄉᆞᄆᆞᆺ다'를 'ᄉᆞᄆᆞᄃᆞ·디'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8종성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곶'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8종성법에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의 '·윙·ᄒᆞ·야', (나)의 'ᄇᆞᄅᆞ·매' 등에서 알 수 있다.

14 ':말ᄊᆞ·미'는 '말ᄊᆞᆷ + 이'가 이어 적기 된 것으로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놈 + 이'가 이어 적기 된 것으로 ㉯에 해당한다. ③ '육룡 + 이'로 ㉯에 해당한다. ④ '불·휘 + ∅'로 ㉰에 해당한다. ⑤ '내ㅎ + 이'로 ㉮에 해당한다.

15 (가)의 '·ᄠᅳ·들(뜻을)'과 '·노·미(놈이)', (나)의 '기·픈(깊은)'과 'ᄇᆞᄅᆞ·매(바람에)'는 앞 음절의 종성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서 쓰는 이어 적기(연철)가 사용된 표기로,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어·린', (나)의 '여·름'은 중세 국어에서 각각 '어리석은', '열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가)의 '하·니·라'와 (나)의 '·하ᄂᆞ·니'는 '많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가)의 '젼·ᄎᆞ'와 (나)의 ':뭘·씨'는 각각 '까닭', '흔들리므로'의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로 오면서 사라졌다. ③ (가)에 사용된 'ㆍ', (나)에 사용된 'ㆍ'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소실되었다. ④ 현대 국어에서는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는 주격 조사 '가'를 사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해당 조건에서 '가'가 사용되지 않았다. (가)의 '배(바 + ㅣ)'에서는 주격 조사로 'ㅣ'가 사용되었고, (나)의 '불휘'에서는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었다.

16 '아·니:뭘·씨'에서 '아'는 점이 없으므로 낮은 소리, '·니'와 '·씨'는 점이 한 개이므로 높은 소리, ':뭘'은 점이 두 개이므로 처음은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는 '낮은 소리-높은 소리-처음은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높은 소리'로 소리의 높낮이를 ②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7 '얼굴'은 중세 국어에서는 '형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

대 국어에서는 '낯'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된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ᄀᆡ·픈'은 현대 국어의 '깊은'과 달리 어간의 받침 'ㅍ'을 어미의 첫소리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② ':뭘·씨'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③ 'ᄀᆞ·롤'은 현대 국어의 '를'과는 그 형태가 다르다. ④ 'ᄠᅳᆷ·디·면'에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어두 자음군 'ㅄ'이 사용되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36~137쪽

01 (1) 사용하였다 / ᄠᅳ들 / ᄲᅮ메 (2) 나타나지 않았다 / 스믈 (3) 일어나지 않았다 / 펴디 (4) 적용되지 않았다 / 니르고져, 너겨 (5) 지켜졌다 / 윙ᄒᆞ야, ᄲᅮ메 02 (1) ㆁ, ㆆ, ㅸ, ㆍ (2) ᄉᆞᄆᆞᆺ디, 젼ᄎᆞ, 시러, 하니라 03 ㉠은 '중국과'라는 의미로, '에'는 앞말이 비교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04 ㉡의 의미는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적은'으로 변하므로 의미 이동에 해당하고, ㉢의 의미는 '사람'에서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변하므로 의미 축소에 해당한다. 05 (1)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샤-', 뒤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시-'를 사용하였다. (2) 주격 조사로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영형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이'가 쓰였다. (3) 부사격 조사 '애/에'를 앞말이 원인임을 나타내는 경우, 앞말이 진행 방향임을 나타내는 경우 모두에 사용하였다. 06 ㉠은 현대 국어의 '-하다'에 해당하는 접미사이고, ㉡은 현대 국어의 '많다'에 해당하는 형용사이다. 07 내히

01 (1) 어두 자음군: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것
(2) 원순 모음화: 순음 'ㅁ, ㅂ, ㅍ'의 영향으로 'ㅡ'가 'ㅜ'로 바뀌는 것
(3) 구개음화: 모음 'ㅣ' 앞에서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것
(4) 두음 법칙: 단어 첫머리의 'ㄴ'이 'ㅣ' 앞에서 탈락하는 것
(5) 모음 조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것

02 (2) ᄉᆞᄆᆞᆺ디: 통하지
젼ᄎᆞ: 까닭
시러: 능히
하니라: 많다

03 中듕國·귁·에: 중국과

04 어리다: 어리석다 → 나이가 적다
놈: 사람 →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05 (1) ᄂᆞᄅᆞ샤일마다: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이시니: 뒤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
(2) 불휘 + ∅ → 불휘
ᄉᆡᆷ + 이 → ᄉᆡ미(이어 적기 적용)
(3) ᄇᆞᄅᆞ·매: 바람 때문에
바·ᄅᆞ·래: 바다를 향해

06 ᄒᆞ시니: 앞의 체언을 동사로 만드는 접미사
하ᄂᆞ니: 많다(형용사)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38~13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05 모음 조화가 대체로 잘 지켜졌다.

08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로는 '-옴/움'이 사용되었다.

09 훈민정음 창제 직후가 아니라 후기 중세 국어부터 현대 국어에 이르는 시기 동안 사라졌다. 'ㆆ'은 후기 중세 국어, 'ㅇ, ㅿ'은 근대 국어, 'ㆍ'는 현대 국어 시기에 완전히 소실되었다.

11 〈용비어천가〉에서도 방점을 사용하여 성조를 표시하였다.

12 〈세종어제훈민정음〉은 한자음을 중국의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도록 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따랐다.

14 실제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실용 정신이 드러나 있다.

19 「제2장」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21 '-샤/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23 '바·ᄅᆞ·래'에 쓰인 조사 '애'는 앞말이 진행 방향이 됨을 표현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02 한글 맞춤법과 오늘날의 국어생활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42~147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8 ①
09 ③	10 ②	11 ⑤	12 ③	13 ①	14 ③	15 ②	16 ①
17 ③	18 ②	19 ②	20 ⑤	21 ③	22 ⑤	23 ⑤	24 ⑤
25 ④	26 ③	27 ①	28 ②				

01 '길이'는 소리대로 적으면 '기리'가 되지만 '길이'로 적었으므로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앞날'도 소리대로 적으면 '암날'이 되지만 '앞날'로 적었으므로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같다[같따], ② 끝나다[끈나다], ③ 샅샅이[샅싸치], ④ 꽃다발[꼳따발]은 모두 소리가 아니라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02 '산길'은 [산낄]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산길'로 적은 것이다. '발걸음'도 [발꺼름]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발걸음'으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은 소리대로 적으면 '너머'가 되지만 '넘- + -어'인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따라서 원래의 형태를 고정하여 적은 것이다. ③ ㉠은 명사이고 ㉢은 동사 '넘다'의 활용형이다. 모두 [너머]로 소리 나므로 ㉢을 소리대로 적으면 둘을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⑤ '있다'는 [읻따]로 발음되므로 소리대로 적는다면 표기가 달라진다.

03 어법에 맞지 않는 표기 '낳아요', '문안해요'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이 필요한 것이다. '낳아요'는 '나아요'로, '문안해요'는 '무난해요'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면 오히려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를 어법에 맞지 않게 표기했기 때문이다. ② 외래어 '니트, 스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의미 전달에 장애가 생긴 것은 아니다. ③ 띄어쓰기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⑤ '낫다'는 '나아요'로 활용한다. 문맥으로 볼 때 '낫다'의 활용형인 '나아요'로 표기해야 한다. 한편 '문안 인사'는 어법에 맞으므로 고쳐 쓸 필요가 없다. 고쳐 써야 하는 것은 '문안해요(→ 무난해요)'이다.

04 ㉠은 연음 현상(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현상) 때문에 [드러서다]로 소리 나는 것을 잘못 적은 것이다. '높이다'도 연음 현상 때문에 [노피다]로 소리 나므로 '노피다'로 적었다면 ㉠과 같은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높히다'는, '높-'에 사동 접미사 '-이-'를 붙여야 하는 것을 '-히-'로 잘못 붙인 다음 이를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므로 ㉠과 같은 예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③·④ ㉡은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그러치]로 소리 나는 것을 잘못 적은 것이다. '얽혀'도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얼켜]로 소리 나므로 이를 '얼켜'로 적었다면 ㉡과 같은 예에 해당한다. ⑤ ㉢은 구개음화에 의해 [해도지]로 소리 나는 것을 잘못 적은 것이다. '금붙이'도 구개음화에 의해 [금부치]로 소리 나므로 이를 '금부치'로 적었다면 ㉢과 같은 예에 해당한다.

05 '반듯이'는 '반듯하게'라는 뜻이고,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라는 뜻이다.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르면,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반듯이'는 '반듯하다'의 원래 의미가 살아 있으므로 어근 '반듯-'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원래 형태를 살려 적은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는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과 의미상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얼음'은 어근 '얼-'에 접미사 '-음'이 결합한 말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이렇게 적으면 의미 파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③ '어름'과 '얼음'은 모두 [어름]으로 소리 나므로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별할 수 없다. ④ '반듯이'는 어근 '반듯-'에 '-이'가 붙은 것으로, [반드시]로 소리 나지만, 어근 '반듯-'의 본뜻이 유지되므로, 이를 파악하기 쉽도록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Plus 〈참고〉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말

한글 맞춤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먹이, 미닫이, 걸음, 믿음, 같이, 익히

06 '슬며시'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기〉의 한글 맞춤법 제25항-1 [붙임] 조항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③ 제25항-1에 따라 어근의 원형(급-, 깨끗-, 어렴풋-)을 밝히어 적은 경우이다. ⑤ 제25항-2에 따라 부사의 원형(일찍)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07 '하늘'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다.

오답 해설 나머지는 모두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았다. ① 빛[빋], ② 옷[옫], ③ 잎[입], ④ 바깥[바깓]

08 '법석'은 된소리되기에 따라 [법썩]으로 소리 나지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법석'이 맞는 표기이다.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도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잔뜩'으로 표기한다. ③·④ 각각 '눈 + 곱', '발 + 바닥'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아니므로 '눈곱', '발바닥'으로 표기한다. '눈곱'이 [눈꼽], '발바닥'이 [발빠닥]으로 소리 나는 것은 사잇소리 현상 때문인데 이 경우의 사잇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⑤ '마음 + 껏'으로,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다. 여기서 '껏'은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서 표기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된소리인 접사이다.

09 된소리되기에 따라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바뀐다. '몹시'가 [몹씨]로 소리 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따른 것으로, 된소리되기라는 '뚜렷한 까닭'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몹시'로 표기한다.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②·⑤ 뚜렷한 까닭 없이, 즉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④ 뚜렷한 까닭 없이, 즉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10 '살짝'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고, 그 된소리가 'ㄹ' 받침 뒤에서 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제5항-2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은 '살짝'이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 '거꾸로'는 모음 'ㅓ'와 'ㅜ' 사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므로 제5항-1에 따라 '거꾸로'로 적은 것이다. ③ '깍뚜기'는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5항-3에 따라 '깍두기'로 적어야 한다. ④ '몽땅'은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제5항–2에 따라 '몽땅'으로 적어야 한다. ⑤ '싹둑'은 제5항–3에 따라 'ㄱ' 받침 뒤에 된소리가 나면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은 것이다.

11 '출석율'은 'ㄴ'이 아닌 받침 뒤에 '률'이 온 경우이므로 '출석률'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ㄴ'이 아닌 받침 뒤에 '렬'이 온 경우이므로 '결렬'로 적어야 한다. ② 모음 뒤에 '렬'이 온 경우이므로 '치열'로 적어야 한다. ③ 모음 뒤에 '률'이 온 경우이므로 '내재율'로 적어야 한다. ④ 'ㄴ' 받침 뒤에 '률'이 온 경우이므로 '백분율'로 적어야 한다.

12 '능률'은 'ㄴ'이 아닌 받침 뒤에 '률'이 온 경우이므로 '능률'로 적어야 한다. 받아쓰기가 틀리지 않은 것을 잘못 고쳐 쓴 것이다.

오답 해설 ① 'ㄴ' 받침 뒤에 '률'이 온 경우이므로 '운율'로 적어야 한다. ② '듬뿍'은 'ㅁ' 받침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듬뿍'으로 적어야 한다. '짭짤한'은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여 '짭짤한'으로 적어야 한다. ④ 'ㄴ'이 아닌 받침 뒤에 '렬'이 온 경우이므로 '행렬'로 적어야 한다. ⑤ 'ㄴ' 받침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므로 '언뜻'으로 적어야 한다.

13 '배 + 길 → 뱃길[배낄/밷낄]'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고, '비 + 물 → 빗물[빈물]'은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오답 해설 ② 터 + 세(勢) → 텃세[터쎄/턷쎄](㉠) / 차 + 잔(盞) → 찻잔[차짠/찯짠](㉠) ③ 후(後) + 날 → 훗날[훈날](㉡) / 나무 + 가지 → 나뭇가지[나무까지/나묻까지](㉠) ④ 예사(例事) + 일 → 예삿일[예산닐]–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 제사(祭祀) + 날 → 제삿날[제산날](㉡) ⑤ 위 + 마을 → 윗마을[윈마을](㉡) / 아래 + 집 → 아랫집[아래찝/아랟찝](㉠)

14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르면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뒷말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을 수 있는 것은 '곳간(庫間)', '찻간(車間)', '툇간(退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횟수(回數)' 등 여섯 개밖에 없다. '초점(焦點)'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꼭짓점[꼭찌쩜/꼭찓쩜]: 순우리말 '꼭지'와 한자어 '점(點)'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이 된소리로 소리 난다. ② 수돗물[수돈물]: 한자어 '수도(水道)'와 순우리말 '물'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④ 콧구멍[콛꾸멍/코꾸멍]: 순우리말 '코'과 '구멍'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이 된소리로 소리 난다. ⑤ 순댓국[순대꾹/순댇꾹]: 순우리말 '순대'와 '국'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이 된소리로 소리 난다.

15 '갈비뼈'는 순우리말 '갈비'와 '뼈'가 만나 만들어진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그러나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이 아니라 뒷말의 첫소리가 원래부터 된소리인 경우이다. 따라서 제30항–1–(1)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지 않고 '갈비뼈'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③ 제30항–2–(1) ④ 제30항–2–(2) ⑤ 제30항–1–(3)

16 '고래 + 기름'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고 앞말 '고래'는 모음으로 끝난다. 그러나 뒷말 '기름'은 [기름]으로 발음되며 첫소리가 된소리로 소리 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30항–1–(1)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고랫기름'으로 적지 않고 '고래기름'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바다 + 물'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 '바다'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물'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바단물]로 소리 난다. 따라서 제30항–1–(2)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바닷물'로 적는다. ③ '뒤 + 일'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 '뒤'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일'의 첫소리 'ㅣ'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 [뒨닐]로 소리 난다. 따라서 제30항–1–(3)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뒷일'로 적는다. ④ '등교 + 길'은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 '등교'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길'의 첫소리는 [낄]로 소리 난다. 따라서 제30항–2–(1)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등굣길'로 적는다. ⑤ '양치 + 물'은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 '양치'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물'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양친물]로 소리 난다. 따라서 제30항–2–(2)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양칫물'로 적는다.

17 ㉢에는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막내 + 동생', 곧 '막냇동생[망내똥생/망낻똥생]'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에는 결합된 두 명사 모두 순우리말이 아닌 것이 들어가야 한다. '장미(薔薇) + 과(科)', 곧 '장미과[장미꽈]'가 이에 해당한다. ② ㉡에는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이지만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속 + 병(病)', 곧 '속병[속뼝]'이 이에 해당한다. ④ ㉣에는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시내 + 물', 곧 '시냇물[시낸물]'이 이에 해당한다. ⑤ ㉤에는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나무 + 잎', 곧 '나뭇잎[나문닙]'이 이에 해당한다.

18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에서 '리'는 '까닭', '이치'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오답 해설 ① 못 본지 → 못 본 지: '지'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한달 → 한 달: '달'이 단위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③ 독서야 말로 → 독서야말로:'야말로'가 강조하여 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지름길 이다 → 지름길이다: '이다'가 서술격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④ 바지 뿐만 아니라 → 바지뿐만 아니라: '뿐'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⑤ 여기에서부터 → 여기에서부터: '에서'와 '부터'가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할거야 → 할 거야: '거'가 '것'을 구어적으로 표현한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9 '다민이는∨오빠에게∨연필∨두∨자루를∨주었다.'에서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인 '두'와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여기까지∨이다 → 여기까지이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 출전한바 → 출전한∨바: '바'는 '출전한'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④ 열세살인데 → 열세∨살인데: '살'은 단위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올수∨밖에 → 올∨수밖에: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밖에'는 '그것 말고', '그것 이외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20 '당신만을'에서 '만'은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삼십∨분∨만에'에서 '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모두 띄어 쓴다.

오답 해설 ① '앞말에 준하거나 그 내용이 뜻하는 바와 같음'을 나타내는 조사 '대로'는 앞말에 붙여 쓰고(마음∨대로 → 마음대로),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를 뜻하는 의존 명사 '대로'는 띄어 쓴다(트는대로 → 트는∨대로). ② '그렇게 여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시'는 앞말에 붙여 쓰고(중요시한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 '시'는 띄어 쓴다(초과 시 → 초과∨시). ③ '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같이'는 앞말에 붙여 쓰고(눈∨같이 → 눈같이),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를 뜻하는 부사 '같이'는 띄어 쓴다(친구와∨같이). ④ '뒤 절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원인이나 이유 등을 제시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ㄴ데'는 앞말에 붙여 쓰고(추운∨데 → 추운데),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데'는 띄어 쓴다(읽는데 → 읽는∨데).

21 '이해해줄'과 '이해해 줄'은 한글 맞춤법 제47항(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오답 해설 ① 못하다: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 / 못 하다: 행동이나 작용을 할 수 없다. ② 작은 형: 키가 작은 형 / 작은형: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 ④ 안 되다: 어떤 행위나 일이 일어나거나 행하여지지 않다. / 안되다: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⑤ 큰집: 집안의 맏이가 사는 집 / 큰 집: 크기가 큰 집

22 ㉠의 '봉사 보다는'에서 '보다'는 명사 '봉사' 뒤에 붙여 써야 하는 조사이다. ㉢의 '너 밖에'에서 '밖에'도 대명사 '너' 뒤에 붙여 써야 하는 조사이다. ㉣의 '때 만큼은'에서 '만큼' 역시 명사 '때' 뒤에 붙여 써야 하는 조사이다.

오답 해설 ㉡의 '도울 뿐이었는데'에서 '뿐'은 용언의 관형사형 '도울'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3 ㉤은 '걷- + -히- + -고'를 어법에 맞게 적은 '걷히고'가 올바른 표기이다. 따라서 ⓓ에는 '걷히고'가 들어가야 한다. '걷히고'는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거티고]로, 다시 구개음화에 따라 [거치고]로 소리 나므로 ⓔ에는 '거센소리되기'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 해설 ① · ② ㉠은 '담그- + -았- + -다'이므로 '담갔다'가 올바른 표기이고, [담갇따]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에는 '담갔다'가, ⓑ에는 '된소리되기'가 들어가야 한다. ③ ㉡은 된소리되기에 따라 [깍뚜기]로 발음되지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므로 '깍두기'가 올바른 표기이다. 따라서 ⓒ에는 '깍뚜기'가 들어가야 한다.

24 '밥, 떡,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은 '안치다'이다. 따라서 ⑤는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미시요 → 미시오: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권하는 뜻을 나타내는 '하오체'의 종결 표현이므로 '미시오'로 써야 한다. ② 만듬 → 만듦: 동사의 어간 '만들-'에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ㅁ'이 결합한 경우이므로 '만듦'으로 써야 한다. ③ 다린 → 달인: '물에 넣고 끓여서 우러나오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는 '달이다'이므로 '달인'으로 써야 한다. '다리다'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의 의미이다. ④ 성장율 → 성장률: 'ㄴ'이 아닌 받침 뒤에 '률'이 온 경우이므로 '성장률'로 적어야 한다.

25 '고등어조림'은 고등어를 토막 쳐서 양념하여 '조린' 음식이므로 '조림'으로 표기한다.

오답 해설 ① → 육개장 ② → 김치찌개 ③ → 떡만둣국(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한다.) ⑤ → 오징어 덮밥(반찬이 될 만한 요리를 '밥' 위에 '덮'는 음식이므로 '덮밥'으로 표기해야 한다.)

26 '어찌 된/어떠한 일'의 의미이므로 '웬일'로 써야 하며 '왠일'은 잘못된 표기이다. 한편 '왜인지'의 의미일 때는 '왠지'로 써야 하며 '웬지'로 써서는 안 된다.

오답 해설 ① '뵈어요'의 준말이므로 '봬요'로 써야 한다. ② 'ㄴ' 받침 뒤에 '률'이 온 경우이므로 '전율'로 적어야 한다. ④ '잠그- + -았- + 다'에서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므로 '잠갔다'로 써야 한다. ⑤ 용언 '아니다'에 어미 '-에요'가 연결된 것이므로 '아니에요'로 써야 한다.

Plus 〈참고〉

⑤의 '아니에요'는 '아니다'와 어미 '-어요'가 연결되면 '아니어요'라고도 쓸 수 있다. '아니에요/아니어요'는 '아녜요/아녀요'로 줄여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니여요'나 '아니예요'는 틀린 표기이다. '여요'와 '예요'는 서술격 조사의 '이-'와 어미 '-에요/-어요'가 결합한 '-이에요/-이어요'가 줄어든 형태로 '저여요', '저기예요'와 같이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는다. 그러나 '아니다'는 용언이기 때문이다.

27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전병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라는 뜻이므로 '부치다'를 써야 한다. '붙이다(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로 써서는 안 된다.

오답 해설 ② 어름 → 얼음 ③ 맛있든지 → 맛있던지(과거의 일을 회상하되 그것이 뒤 절의 일이나 상황을 일으키는 근거나 원인으로 추정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던지'를 써야 한다.) ④ 맞추면 → 맞히면(맞추다: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 맞히다: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 ⑤ 더우기 → 더욱이(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어야 한다. – 한글 맞춤법 제25항)

28 단위 명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붙여 써야 하므로 '다섯 명밖에'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되다'를 부정하는 의미이므로 '안 되다'가 아니라 '안∨되다'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추던지 말던지 → 추든지 말든지(선택의 의미이므로 '-든지'를 써야 한다.) ③ 오랫만에 → 오랜만에('오래간만'의 준말이므로 '오랜만'으로 써야 한다. 한편 '동안'이 붙을 때는 '오랫동안'이 맞는 표기이며, '오랫만'이나 '오랜동안'은 잘못된 표기이다.) ④ 실업율 → 실업률('ㄴ'이 아닌 받침 뒤에 '률'이 온 경우이므로 '실업률'로 적어야 한다.), 세워야∨만합니다 → 세워야만∨합니다('만'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⑤ 금새 → 금세('금시에'의 준말이므로 '금세'로 써야 한다.), 어른으로써 → 어른으로서(자격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으로서'를 써야 한다.), 안스러운 → 안쓰러운('마음이 아프고 가엽다.'의 의미를 지닌 말은 '안쓰럽다'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48~153쪽

01 ③	02 ④	03 ②	04 ⑤	05 ③	06 ⑤	07 ③	08 ④
09 ③	10 ④	11 ④	12 ①	13 ③	14 ①	15 ④	16 ⑤
17 ①	18 ③	19 ⑤	20 ①				

01 '너머'는 어원적으로 보면 '넘-'과 '-어'가 결합한 말이지만, 부사로 바뀐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따라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넘어'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너머'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즉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② '좁히다'는 [조피다]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즉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좁히다'로 적은 것이다. ④ '넘어'는 [너머]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따라서 독서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표기로 볼 수 있다. ⑤ '읽지'와 '읽기'는 각각 [익찌], [일끼]로 소리 나지만 이렇게 쓸 경우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으므로 형태소의 본 모양인 '읽-'을 밝혀 적은 것이다.

02 ㉣에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합성어가 들어가야 한다. '옷'과 '소매'의 합성어인 '옷소매'는 [온쏘매]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또한 '밥'과 '알'의 합성어인 '밥알'도 [바발]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파생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얼-'과 '-음'이 결합한 파생어인 '얼음'은 [어름]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한편 '잎'과 '-아리'가 결합한 파생어인 '이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② ㉡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합성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낮'과 '잠'의 합성어인 '낮잠'은 [낟짬]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한편 '말'과 '소'의 합성어인 '마소'는 'ㄹ' 탈락을 반영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③ ㉢에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파생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박'과 '-아지'가 결합한 파생어인 '바가지'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한편 '웃-'과 '-음'이 결합한 파생어인 '웃음'은 [우슴]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⑤ ㉤에는 소리대로 적었지만 어법에도 맞는 파생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사랑니'는 파생어가 아니라 '사랑'과 '이'의 합성어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한편 '꿈'은 '꾸-'와 '-ㅁ'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지만 어법에도 맞는 표기이다.

03 '희망', '하늬바람'은 각각 [히망], [하니바람]으로 소리 나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ㅢ'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과 관련된다.

오답 해설 ① '맏이', '굳이', '묻히다'는 각각 [마지], [구지], [무치다]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그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③ '떡이', '손이', '팔이'는 각각 [떠기], [소니], [파리]로 소리 나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고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즉 형태소의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④ '목거리', '노름'은 어간의 뜻과 멀어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즉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⑤ '꽃잎', '헛웃음', '굶주리다'는 각각 [꼰닙], [허두음], [굼주리다]로 소리 나지만, '꽃 + 잎', '헛 + 웃음', '굶- + 주리다'의 원형을 밝혀, 즉 어법에 맞도록 적어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한 것이다(㉡).

04 ㉤는 어근 '믿-'과 접미사 '-음'이 결합한 것으로, 접미사 '-음'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제시문에서 예로 든 '웃음'과 같은 경우이다.

오답 해설 ① '쓰러진'은 앞말 '쓸-'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② '작은'은 어간 '작-'과 어미 '-은'이 결합한 것으로,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③ '마중'은 접미사 '-웅'이 '맞-'과 같은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④ '끝이'는 체언 '끝'에 조사 '이'가 붙은 것으로 체언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05 '무엇부터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에 쓰인 '할 지'는 어간 '하-'와 어미 '-(으)ㄹ지'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할지'로 써야 한다. '지'는 어미 '-(으)ㄹ지'의 일부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한번'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 즉 인심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므로 붙여 쓴다. ② '만난 지'의 '지'는 시간의 경과, 즉 만난 때의 경과가 나타나므로 띄어 쓴다. ④ '한 번'은 만나는 횟수를 나타내므로 띄어 쓴다. ⑤ '부지런한지'는 어미인 '-(으)ㄴ지'가 쓰인 것이므로 붙여 쓴다.

06 '꾸준히'는 '꾸준하다'의 어근 '꾸준-'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 그 뜻을 더하며 역시 부사가 된 경우로, 원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속히'는 '속(速)하다'의 어근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에 해당한다. 그러나 '높이'는 '높다'의 어근에 '-이'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곰곰이'는 부사 '곰곰'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된 것으로 ㉡에 해당한다. '반듯이'는 '반듯하다'의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에 해당한다. ③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된 것으로 ㉡에, '뚜렷이'는 '뚜렷하다'의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에 해당한다. ④ '도저히'와 '깨끗이'는 각각 '도저하다'와 '깨끗하다'의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으로 모두 ㉠에 해당한다.

07 ㉢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지 않으므로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깍두기'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은 한 단어 안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두 모음 'ㅐ'와 'ㅡ'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해쓱한'으로 써야 한다. ② ㉡은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비슷한 음절인 '짭', '짤'이 겹쳐 나므로 '짭짤한'으로 써야 한다. ④ ㉣은 'ㅁ' 받침 뒤에서 [듬뿍]과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듬뿍'으로 써야 한다. ⑤ ㉤은 한 단어 안의 첫음절 'ㅇ' 받침 뒤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몽땅'으로 써야 한다.

08 [씩씩]으로 소리 나는 말은 ㉢에 따라 '씩씩'으로 표기해야 한다. ㉢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씩씩]은 'ㄱ' 받침 뒤에서 같은 음절의 된소리가 겹쳐 나는 경우이므로 '씩씩'과 같이 된소리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으뜸]으로 소리 나는 말은 모음 'ㅡ'와 'ㅡ'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으뜸'으로 표기해야 한다(ⓐ). ② [거꾸로]로 소리 나는 말은 모음 'ㅓ'와 'ㅜ'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거꾸로'로 표기해야 한다(ⓐ). ③ [살짝]으로 소리 나는 말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살짝'으로 표기해야 한다(ⓑ). ⑤ [낙찌]로 소리 나는 말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낙지'로 표기해야 한다.

09 (다)의 '뿐' 앞에 쓰인 '그것'이 체언(대명사)이므로 '뿐'은 조사이고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만큼' 앞에 쓰인 '할'이 용언의 관형사형이므로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앞말과 띄어 쓴다. ② '대로' 앞에 쓰인 '나'가 체언(대명사)이므로 '대로'는 조사이고 앞말에 붙여 쓴다. ④ '못해'가 '배가 고픔'의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못하다'가 하나의 단어(형용사)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⑤ '못하구나'가 '예전'이라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못하다'가 하나의 단어(형용사)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10 '로인정(老人亭) → 노인정'은 한자음 '로'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 두음 법칙에 따라 '노'로 적은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공념불(空念佛) → 공염불'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는 '제10항-[붙임 2]'에 따른 표기이다. ㉠에 해당하는 예는 '남녀(男女)' 정도가 적절하다. ② '리임식(離任式) → 이임식'은 한자음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 두음 법칙에 따라 '이'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량심(良心) → 양심'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에는 '선량(善良)' 정도가 적절하다. ③ '제11항-다만'에 따르면 'ㄴ' 이외의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은 '률'로 표기해야 하므로 '변동률(變動率)'이 맞는 표기이다. 게다가 '변동률(變動率)'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는 설명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 ㉢에는 '출산율' 정도가 적절하다. ⑤ '론리적(論理的) → 논리적'은 한자음 '로'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 두음 법칙에 따라 '노'로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에는 '원론적(原論的)' 정도가 적절하다.

11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따라서 '검거율'이 맞는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 모음 뒤에 이어지는 '렬'이므로 '나열'이 적절하다. ②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이므로 '경쟁률'이 적절하다. ③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이므로 '할인율'이 적절하다. ⑤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이므로 '선열'이 적절하다.

12 '안개꽃 밖에'에서 '밖에'는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안개꽃밖에'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너만큼'에서 '만큼'은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너만큼'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제42항'도 아니고 정정할 필요도 없다. ③ '천 원짜리'에서 '원'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제43항에 따라 '천 원'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짜리'는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또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원'에 붙여 써야 한다. '제43항'은 맞지만 정정할 필요는 없다. ④ '어찌할 줄'의 '줄'은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어찌할 줄'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제43항'도 아니고 정정할 필요도 없다. ⑤ '7 연구실'의 '연구실'은 숫자 '7'과 어울리므로 제43항 '다만'에 따라 '7연구실'과 같이 붙여 쓸 수도 있다. '제46항'도 아니고 굳이 정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13 '콧날'은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다.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

가 덧나는 경우의 예로는 '나뭇잎[나문닙]'이 있다.

오답 해설 ① '아랫마을[아랜마을]'은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다. ② '고깃국[고기꾹/고긷꾹]'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서 사이시옷이 표기되었지만, '해장국[해장꾹]'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아서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다. ④ '우윳빛'은 '한자어 + 고유어'라서 사이시옷이 표기되었지만, '오렌지빛'은 '외래어 + 고유어'라서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다. ⑤ '모랫길'은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기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었지만, '모래땅'은 뒷말의 첫소리가 원래부터 된소리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다.

14 '해 + 살'은 명사 '해'와 명사 '살[2]'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해쌀/핻쌀]로 소리 나므로 '햇살'(㉠)과 같이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그러나 '해 + 님'은 명사 '해'와 접사 '-님[4]'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해님'(㉡)으로 쓴다. 사이시옷은 합성어의 두 요소 사이에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15 '장마 + 비'는 앞말 '장마'가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고(1단계), '고유어 + 고유어' 구성이며(2단계), [장마삐/장맏삐]와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소리 나므로(3-1단계) '장맛비'라고 쓴다.

오답 해설 ① '개- + 살구'는 '개-'가 접두사인 파생어이므로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② '총무 + 과'는 앞말 '총무'가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지만, '한자어 + 한자어' 구성이므로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③ '만두 + 국'은 앞말 '만두'가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고(1단계), '한자어 + 고유어' 구성이며(2단계), [만둗꾹/만두꾹]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소리 나므로(3-1단계) '만둣국'이라고 표기한다. ⑤ '허드레 + 일'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고, '고유어 + 고유어' 구성이며(2단계), [허드렌닐]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3-3단계) '허드렛일'이라고 표기한다.

16 '기여할수'의 '수'는 앞에 수식어가 없으면 쓸 수 없는 의존 명사로, 앞말인 '기여할'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각종'과 '토론'은 각각 한 단어이므로 각 단어를 띄어 쓰는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띄어 쓴 것이다. ② '및'은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이므로 적절하게 띄어 쓴 것이다. ③ '번'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수식어 '알리는'과 의존 명사 '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띄어 써야 한다.

17 '내디디다'의 준말 '내딛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내디뎠다(내디디- + -었- + -다)'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ㄴ' 앞이므로 본말과 준말의 활용형 모두 쓸 수 있다. 서투른(○), 서툰(○) ③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면서' 앞이므로 본말과 준말의 활용형 모두 쓸 수 있다. 머무르면서(○), 머물면서(○) ④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지' 앞이므로 본말과 준말의 활용형 모두 쓸 수 있다. 서두르지(○), 서둘지(○) 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도' 앞이므로 본말의 활용형만 써야 한다. 건드려도(○), 건들어도(×)

18 '벌어지다'는 앞말 '벌다(틈이 나서 사이가 뜨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서 그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인 반면, ㉱의 '사라지다'는 본뜻에서 멀어져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도록 한 것은,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② '고개를 넘어 가다'에서 '넘어'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은 것으로, ㉯의 '먹어'와 같은 규정(제15항)이 적용된 것이다. ④ '들어가다'는 '들다(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와 '가다'가 결합한 것으로, 앞말인 '들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⑤ '것이오?'에 쓰인 '-오'는 의문형 종결 어미이고, ㉰의 '오시오'에 쓰인 '-오'는 명령형 종결 어미이다. 모두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적은 것이다.

19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 봐.'에서 '무엇이든지'는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제56항-2에 따라 '-든지'로 쓴다.

오답 해설 ①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가든가'로 적어야 한다. ② 과거에 그 사람이 말을 잘했다는 의미이므로 '잘하던데'로 적어야 한다. ③ 과거에 깜짝 놀랐다는 의미이므로 '놀랐던지'로 적어야 한다. ④ 어떻게 하든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어찌하든지'로 적어야 한다.

20 ㉠: '집'이라는 체언에 처소의 부사격 조사 '에'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이므로 '에요'가 들어가야 한다.

㉡: '아니다'의 어간에 설명 ·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가 붙는 것이므로 '-에요'가 들어가야 한다.

㉢: 서술격 조사 '이다'에 설명 ·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에요'가 결합한 것이므로 '-이에요'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 해설 ② ㉢ 〈보기〉에 따르면 '-이에요'의 준말인 '-예요'는 '책을 빌린 사람은 저예요.'와 같이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는다. 따라서 받침이 있는 '학생'에는 붙을 수 없으므로 '학생이에요'만 맞는 표현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54~155쪽

01 (1) ㉠: 바람, 하늘, 흐리다, 울다 ㉡: 국화, 높이, 오뚝이, 해돋이, 맑다, 넘어지다, 맞히다, 웃다 (2) ㉠은 표음 문자인 한글의 성격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은 표의주의를 반영하여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의미이다. ㉠ 외에 ㉡을 추가한 이유는 표음주의만 따를 경우 의미 구분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02** (1) '나 물 좀 다오.'로 띄어 쓰면 '나'에게 물을 달라는 의미가 되고 '나물 좀 다오.'로 띄어 쓰면 나물을 달라는 의미가 된다. (2) 띄어쓰기를 하면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03** (1) 쳐다볼∨뿐, 실력뿐이다 (2) 트는∨대로, 설명서대로 (3) 당신만큼은, 들릴∨만큼 (4) 너밖에, 입∨밖에 (5) 떠나온∨지, 해야∨할지 **04** (1) 순댓국을∨두∨그릇째∨먹는∨중이다. (2) 한∨달만∨바르면∨우윳빛∨피부가∨돼요. (3) 운동을∨시작한∨지∨햇수로∨오∨년이∨되었다. (4) 비가∨몹시∨많이∨와서∨농사가∨안될∨확률이∨높다. (5) 시간이∨지날수록∨소문은∨걷잡을∨수∨없이∨퍼져만∨갔다. (6) 노래를∨부르든∨춤을∨추든∨한∨가지는∨하는∨수밖에∨없다. (7) 먹고∨싶은∨만큼∨마음껏∨먹으라고∨해서∨잔뜩∨먹고∨말았다.

01 (1) '국화[구콰], 높이[노피], 오뚝이[오뚜기], 해돋이[해도지], 맑다[막따], 넘어지다[너머지다], 맞히다[마치다], 웃다[욷따]'는 소리대로 적지 않고 형태를 밝혀, 즉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2) ㉠은 표음주의에 따른 것이고 ㉡은 표의주의에 따른 것이다.

02 (1) '나 물 좀 다오.'로 띄어 쓰느냐 '나물 좀 다오.'로 띄어 쓰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03 (1) '쳐다볼∨뿐'의 '뿐'은 의존 명사이고, '실력뿐이다'의 '뿐'은 조사이다.

(2) '트는∨대로'의 '대로'는 의존 명사이고, '설명서대로'의 '대로'는 조사이다.

(3) '당신만큼은'의 '만큼'은 조사이고, '들릴∨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다.
(4) '너밖에'의 '밖에'는 조사이고, '입∨밖에'의 '밖에'는 명사 + 조사이다.
(5) '떠나온∨지'의 '지'는 의존 명사이고, '해야∨할지'의 '지'는 어미 '-ㄹ지'의 일부이다.

04 (1) 순대국 → 순댓국
(2) 우유빛 → 우윳빛, 되요 → 돼요
(3) 해수 → 햇수
(4) 몹씨 → 몹시, 확율 → 확률
(5) 겉잡을 → 걷잡을
(6) 부르던 → 부르든, 추던 → 추든
(7) 잔득 → 잔뜩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56~15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01 '한국어'가 아니라 '표준어'이다.

02 '어법에 맞도록 함'이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의미이다.

09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이므로 '률'로 써야 한다.

13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18 주어진 문장에서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2 잠궜다 → 잠갔다, 조렸다 → 졸였다

23 '육계장'이 아니라 '육개장'이 맞는 표기이다.

24 수준이나 능력을 표현한 것이므로 '공부는 못하지만 운동은 잘한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4 세상을 보는 눈

01 비판적으로 매체 읽기_기후 위기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62~166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①	05 ②	06 ⑤	07 ②	08 ③
09 ①	10 ④	11 ③	12 ④	13 ⑤			

01 국내 언론이 기후 위기를 심층적·지속적으로 다루지 않는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그 원인이 전문 인력 부족과 검증 시스템 미흡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기후 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 위기' 혹은 '기후 비상'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 영국 언론 매체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④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 매체는 어떨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막대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언론은 기후 문제를 국제적 행사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주장을, 신문 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언론은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02 ⓐ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후 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 위기' 혹은 '기후 비상'이라는 말을 쓰겠다고 했지만 ⓑ는 평소에는 기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국제 행사가 열리는 특정 해에 집중하여 보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는 기후 문제를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간주하지만 ⓑ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에 대해 '중립적인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는 기후 문제에 관하여 중립적 관점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 아니다. ③ ⓑ에 대해서 '기후 위기를 국제적 문제로만 인식'한다고 보았다. ⓐ가 기후 문제를 국내적 문제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④·⑤ ⓑ에만 해당하는 평가이다. ⓐ에 대한 평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03 막대그래프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다는 것이 내용의 보편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막대그래프 자료는 체계적 구조화를 통해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게 하고 있다. ④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2년 동안의 보도 현황은 5개로 비교하고 있지만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의 보도 현황은 2개로 비교하고 있다. 연도 간 간격에 차이가 커서 자의적 편집과 왜곡을 의심해 볼 수 있다. ⑤ 1997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기사 건수가 감소한 해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서 실제로 그 기간 동안 국제 행사가 열리는 해에만 보도 건수가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감소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의 타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04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풀이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 기관'과 '한국 □□ 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양이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이것이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③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면 폐기물도 늘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논리로, 신재생 에너지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주고자 하고 있다. ④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골치', '골칫거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기사에서는 2020년보다 2030년에 패널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2030년의 패널 폐기물 수치는 2만 935톤으로 2020년의 279만 4천 톤보다 현저히 적다. 즉, 인용한 자료와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서 보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05 매체 자료에는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③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 ④·⑤ 표현 방법에 대한 비판적 읽기

06 사회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4문단에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사례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언론 매체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언급한 후 2~4문단에서 그 구체적 양상을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2~4문단에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나열하고 있는데, 모두 바람직한 언론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국내 언론 매체의 모습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 미국의 언론 매체와 국내 언론 매체를 대비하면서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④ 표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보하는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07 정치 분야에서는 정치권에 기후 위기에 관한 철학과 정책을 '질문(ⓐ)'하고 기후 위기에 관하여 정치권을 '감시(ⓑ)'하는 것이, 경제 분야에서는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언론 매체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회 분야에서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사회적 재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 매체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반면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위장한 기업을 감시하기보다는 '홍보(ⓓ)'하는 것,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민들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으로 간주한 것은 ⓐ, ⓑ, ⓒ, ⓔ, ⓕ임을 알 수 있다.

08 '기후'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도 주제별 보도 건수의 양을 비교하여 보여 주는 자료이다. 시기에 따른 보도 건수의 변화를 조사한 자료가 아니므로 보도 건수가 증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④·⑤ 언론 매체가 그린 워시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조사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해 '기후'와 관련한 보도의 경향성을 단정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09 '산불이 확산된 것은 기후적인 원인이 크다며 기후 위기를 거론'하였으므로 '기후 위기와 산불의 연관성을 은폐'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산불을 일회적 사건으로만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③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④ '산불이 진압되자 산불이나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도는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⑤ '두려움을 조성'하고 심층적 원인 분석이나 대안 제시, 희망이 담긴 보도는 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10 5문단의 '언론 매체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에서 가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부정적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4문단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언론 매체의 역할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비닐을 사용한 신문 배송을 금지'한 해외의 사례를 제시하여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언론 매체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있다. ⑤ 5문단의 '이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글쓴이는 기후 위기가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①) 게이트 키핑에서 선택되고(②)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⑤) 공중에게도 중요한 주제로, 즉 아젠다 세팅이 되어야 한다(④)고 생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후 위기 관련 내용이 게이트 키핑에서 선택되어 아젠다 세팅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므로, '게이트 키핑을 피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2 4문단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 나머지 대중에게 공포감이나 무력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로 보아 공포감이나 무력감 같은 감정적 대응을 유도하는 것은 언론의 '제 역할'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2문단, ② 3문단, ③ 4문단, 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이 광고는 제품과 환경 보호(멸종 위기 동물 보호)를 연관시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상업 광고이다. 따라서 '환경 보호와 멸종 위기 동물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광고 본래의 목적'이라는 표현은, 이 광고를 상업 광고가 아닌 공익 광고로 이해한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67~171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④ 05 ⑤ 06 ③ 07 ⑤ 08 ②
09 ① 10 ① 11 ⑤ 12 ④ 13 ⑤

01 그래프, 표,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료가 다양하게 제시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기후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즉 부정적 평가를 전제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부족한 심층 기획 기사와 검증 시스템', '비판과 대안이 없는 기후 위기 보도'에서 문제를 제기한 다음 '올바른 기후 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의 역할'에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서두에서 '기후 위기'라는 용어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용어라고 설명한 후 글쓴이 자신도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는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국내 언론의 행태를 비판한 다음 올바른 역할을 제언하고 있으므로 비판과 설득의 의도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복합 양식의 자료가 의도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내용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자료의 '참신성'과 '독창성'은 이러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③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 ⑤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읽기

03 '비판과 대안이 없는 기후 위기 보도' 부분 2문단을 보면, '미국의 언론 매체(㉢)는 선거 기간에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 위기에 관한 철학과 정책을 질문하여 각 후보의 기후 위기 공약을 점검'하지만 '국내 언론 매체(㉡)는 선거 기간에 기후 위기와 관련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내 언론 매체)이 ㉢(미국의 언론 매체)과 달리 기후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기후 문제를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여기는 반면 ㉡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② 기후 문제에 대하여 중립적 태도를 고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이다. ④ 기후 문제에 대하여 국제 행사의 차원에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본 것은 ㉡이다. ㉠과 ㉢에 대한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기후 문제에 대한 전문 취재 팀이 부족하고 검증 시스템도 미흡하다고 본 것은 ㉡이다. ㉢에 대한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04 ㉰에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의 견해가 등장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 ③ ㉯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각각 바람직한 언론 매체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현실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⑤ ㉰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언론의 올바른 역할을 '우선, 둘째, 셋째' 등의 표지를 사용하여 열거한 후 마지막 문단에서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05 '올바른 기후 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의 역할' 부분 4문단을 보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 나머지 대중에게 공포감이나 무력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공포감이나 무력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은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글쓴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 ② '올바른 기후 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의 역할' 부분 2문단과 3문단에 직접 제시되어 있다. ③ '비판과 대안이 없는 기후 위기 보도' 부분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올바른 기후 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의 역할' 부분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 그래프는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판단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한 보도가 국제 행사가 열리는 특정 해에 집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연도 간의 간격에 차이가 크고, 감소한 연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자의적 편집에 따른 왜곡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⑤ 사진은 오염된 공기, 메마른 대지, 헐벗은 채 망연히 앉아 있는 인물의 모습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07 ㉤는 '방안을 찾는' 것이므로 '모색하다(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수색하다'는 '대상이나 장소를 구석구석 뒤지어 찾다.'의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개최되다: 모임이나 회의 따위가 주최되어 열리다. ② 등한시하다: 소홀하게 보아 넘기다. ③ 망각하다: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다. ④ 수행하다: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다.

08 이어지는 내용에서 '걸러진', '취사선택(여럿 가운데서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림.)하는' 등의 말을 사용하여 편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편집의 역할을 기계 장치에 빗대어 표현한 ㉠에는 '여과(걸러내거나 빼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교환: 서로 바꿈. ③ 융합: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 ④ 정화: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함.('삶의 현실'이 모두 불순한 것도, 편집 과정을 거친 기사 내용이 모두 깨끗한 것도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차단: 다른 것과의 관계나 접촉을 막거나 끊음.

09 (가)의 요지는, 언론 보도는 취사선택된 내용이며, 생산자의 가치 판단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 판단에 따라 현실 세계의 삶 중 어떤 것은 무시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게 부각한다는 의미이므로, '현실 세계를 불편부당한(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태도로 다룬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언론 매체의 '가치 판단이 스며들게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③ '편집을 통해 걸러진 내용을 제대로 분별해 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④ '가치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한다고 했으므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자주 지속적으로 다룰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⑤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다룸으로써 해당 주제가 대중에게도 중요한 주제가 되게 만들 수 있음, 즉 여론을 조성할 수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10 글쓴이는 신재생 에너지 폐기물 처리에 대해 '골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골치'는 일이나 사태에 대해 '귀찮고 못마땅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여러 가능한 표현들 중에서 굳이 '골치'라는 말을 선택해 사용한 것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태도, 즉 부정적 가치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 ⓓ, ⓔ는 모두 대상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11 (나)는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가 아니며, 기본적인 데이터 오류조차 확인하지 않은 자료가 기사화가 된 원인이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를 쓰는 데 주력하는 행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는 ㉮~㉱의 내용처럼, 인용한 자료와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보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기본적인 데이터 오류조차 확인하지 않는, 검증 시스템의 미흡을 보여 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12 제시문은 존중과 배려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공익 광고이다. 이처럼 공익 광고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지향한다. 반면 상업 광고는 상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해설 ① 공익 광고인 제시문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상업 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상업 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업 광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③ 상업 광고, 공익 광고 모두 설득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때 상업 광고가 유도하는 행동의 변화는 상품 구매이다. ⑤ 상업 광고, 공익 광고 모두 문구, 이미지, 배경 등을 통해 관점과 의도를 드러낸다.

13 제시문은 ①~③에서 진술한 대로, 일상의 장면을 활용해 존중과 배려가 선순환되는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존중과 배려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④의 진술처럼, 포괄적으로 보면 '존중과 배려'이지만 세부적인 의미는 '호의, 도움, 돈쭐, 세대 간 소통' 등으로 다양할 수 있는 소재들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핵심 메시지가 옅어지고 광고 자체의 인상도 약해지는 단점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⑤에서 말한 것처럼 '포괄하는 이미지나 문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팔을 벌려 하나로 안는 듯한 그래픽을 통해 포괄하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 줍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 포괄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72~173쪽

01 (1) 심층 기획 기사가 부족하다.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다. 비판적 문제 제기가 없다. 대안 제시가 없다. (2) 기후 위기에 관한 보도를 체계적 · 지속적으로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감시하고 비판한다. 기후 위기 속에서 대안과 희망을 주는 보도를 한다. (3) 비판, 촉구 **02** (1) 내용을 체계적

으로 구조화하여 설명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기후 위기에 대한 보도가 국제 행사가 열리는 특정 해에 집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도 간의 간격에 차이가 크고, 감소한 연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2)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설명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기후와 관련된 보도가 기업 홍보에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해 신뢰성이 떨어진다. **03** 인용한 자료가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라는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04** 매체 자료는 매체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를 담고 있고, 정확성과 사실적인 측면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01 (3) 글쓴이는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비판한 다음 그 대안으로 올바른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언론 매체가 그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02 (1) 물결무늬를 활용한 생략과 비약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2) 소수의 사례로 성급하게 일반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03 기사에서는 2030년 이후 패널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자료에서는 폐기물의 양이 오히려 감소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74~17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03 매체 자료에는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7 영상 자료는 활용되지 않았다.

11 막대그래프 자료는 '기후 위기에 대한 보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아니라 '기후 보도 건수가 국제 행사와 연관되어 증감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2 막대그래프를 활용하여 기후 문제를 국제적 행사 차원에서만 다룬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15 기사문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23 글쓴이는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02 주제 통합적 읽기_친구에 관한 세 가지 글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78~183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③	05 ②	06 ⑤	07 ①	08 ①
09 ⑤	10 ⑤	11 ①	12 ④	13 ③	14 ②	15 ③	16 ⑤
17 ③	18 ③	19 ⑤	20 ①	21 ④			

01 유득공은 백동수와 함께 서재 짓기에 앞장서고 있다. 백동수와 달리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서재 짓기에 유보적인(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지난날에 대한 '나'의 회상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이덕무를 매부(누이의 남편)라고 부르는 것에서 이덕무의 처남(아내의 남자 형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 서재를 지어 주는 것에서 친구의 처지를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책을 판 서상수의 행동을, 서재를 짓기 위한 재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서상수가 자신이 아끼는 것이라도 친구를 위해 내어 줄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⑤ 삯바느질로 돈을 마련하여 남편의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술상을 마련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2 친구들이 이덕무에게 서재를 지어 준 일화를 통해 이덕무와 친구들 간의 우정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친구들과 이덕무가 갈등을 벌인 것도, 이를 극복하고 화해에 이른 것도 아니다. ② 과거 시제로 서술하고 있다. ③ 시작 부분에서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미래를 암시한 것은 아니다. ⑤ 서술자는 주인공(이덕무)인 '나'로 변함이 없다.

03 역사적 인물인 이덕무의 실제 삶에서 착안하였지만, 세부 장면이나 내용은 작가가 상상력을 더하여 꾸며 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주인공인 이덕무가 자신의 시점에서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② '있는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허구화한 것이다. ③ 제시된 장면에서는 '책 읽기를 좋아했던 이덕무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⑤ 제시된 장면에서는 '바보'로 불린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이덕무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

04 벗들은 '나'의 처지를 배려하여 서재를 지어 주고 있다. 따라서 '친구의 처지를 생각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정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② 작품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며, 주제와도 거리가 있다. ④·⑤ '나'가 잘못을 저지르거나(④) 서재를 지어 달라고 요구한(⑤) 것은 아니다.

05 [A]는 서술자를 작품 속 주인공인 이덕무가 아니라 관찰자인 백동수로 교체한 것이다.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주인공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서술할 수 있지만 관찰자 시점에서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기〉에서는 주인공인 '그'의 심리를 '~모양이었다, ~같았지만' 등과 같이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인칭 관찰자인 서술자(백동수)도 작품 속에 있다. ③ 행동 묘사에는 차이가 없다. ④ 이 글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⑤ 이 글과 마찬가지로 외양 묘사는 보이지 않는다.

06 [B]는 '찾아온 벗들을 한 번도 편안하게 맞이하지 못한 지난날들', 즉 과거 상황을 회상한 내용 중 일부이고, [C]는 서재를 지

어 주기 위해 벗들이 책을 팔았을 것이라고, 즉 벗들의 행동과 의도를 연관 지어 추측한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B]는 문제 상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C]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② [B]는 잘못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C]도 벗들의 호의를 추측한 것일 뿐 예찬한 것이 아니다. ③ [B]는 서재 짓기라는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C]는 그 심각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다. ④ [B]는 유사한 성격의 과거 상황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C]는 그 의미를 일반화한 것이 아니다.

07 ㉠은 상황에 대해 의아해 하는 심리를 의문의 형식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백동수의 언행을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나 그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감동의 심정을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신체 변화에 대한 묘사를 통해 표현하였다. ④ '종이로 바른 흙벽'의 은은함과 정겨움을 '벗들의 마음처럼'이라고 표현하였다. 건물에 대한 만족감을 벗들의 마음에 대한 감동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좁은 방이었지만, ~넓기만 했다.'와 같이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만족감을 부각하였다.

08 우정과 관련된 니체의 사상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그에 대한 '정보 획득'이 읽기의 목적으로 적절하다. 정보를 제공하는 글은 '해석하며 읽기, 비판하며 읽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읽어야 한다.

오답 해설 '심미적 체험'은 문학 작품을 읽는 목적에 해당하고, '감정 이입하기'나 '동일시하기'는 그런 문학 작품을 읽는 방법에 해당한다.

09 우정과 관련된 니체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논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럼 상대를 동정할 때는 어떨까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헐벗은 차림으로 구걸하는 사람', '유명인에게 달리는 악의적인 댓글' 등의 사례를 제시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습니다', '~ㄹ까요' 등 상대를 높이는 대화체 어투를 통해 독자와 대화하듯 서술하고 있다. ④ "동정이 아니라 우정!", "그대에게 고통받는 친구가 있다면~가장 많이 유용한 존재가 될 것이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유명인에게 달리는 악의적인 댓글을 '그 사람보다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의 발로로 보았는데, 이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동락의 태도가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동락의 태도로 설명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11 3문단의 '니체가 상대를 대할 때 동정이 아니라 우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정에는 상대에 관한 믿음과 존중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에는 위로와 독려가 있다. ③ ㉡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태도이기도 하다. ④ ㉠은 상대를 안쓰럽게 여길 뿐이지만 ㉡은 상대의 잠재력을 믿는다. ⑤ ㉡에는 열등의식이 담겨 있지 않다.

12 위로와 안식을 주기는 하지만 '언제든, 얼마든지'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설사 친구가 안식만을 원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활발하게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13 지수는 민주의 합격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민주의 합격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즉 동락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친구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민주가 고민에 빠진 상황은 아니다. ④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 즉 동정이 아니라 우정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⑤ 민주가 홀로 일어설 수 없다고, 즉 잠재력이 없다고 보는지는 알 수 없다.

14 ⓑ는 '바탕에 깔려 있다.'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내용이 진전되어 펼쳐지게 되다.'에 해당하는 말은 '전개하다'이다.

15 비유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왜 인공지능 로봇을 친구로 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소설 속 이야기처럼 인공 친구를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은 인공 친구를 진정한 친구로 떠올릴지도 모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소설 속 이야기처럼 인공 친구를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에서 보듯이 글쓴이는 인공 친구를 구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 친구를 구매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6~7문단을 통해 글쓴이는 친구를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인류의 뇌를 커지게 한 핵심적 원인으로 친구를 꼽는 최근의 가설에 동의하는 글쓴이의 태도에서 알 수 있다. 가설에 따르면 친구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한 대상이다. ③ 글쓴이는 문제가 많은 인간 친구와 달리 인공 친구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보다 더 이상적인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④ '오늘날 온라인상에 있는 그 많은 친구는 내가 무언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나요? 클라라와 같은 인공 친구는 이런 질문에서 자유롭습니다.'에서 추리할 수 있다.

17 ㉰에 해당하는 부분(3~4문장)에서는,「클라라와 태양」의 내용을 토대로 '인공 친구는 인간에게 진정한 친구로 있어 주기 위해 개발된 대상입니다.'라고 인공 친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친구'가 아니라 '인공 친구'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1문장 ② 2문장 ④ 5~6문장 ⑤ 7~8문장

18 5문단의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할 때 인간이 친구를 필요로 한 이유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최근의 가설'에서는 인류의 뇌가 커진 이유가 '친구'와 관련된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 ②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 ④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친구로 취급되는 상황이므로, '감탄고토(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③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 ④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 ⑤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21 ㉡은 인간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줌으로써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는 존재이다. 인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대상이지 감정의 공유나 교감 등을 통해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 ② 친구는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존재인데 ㉡은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기능을 지닌 로봇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다. ③ · ⑤ '이런 친구를 우리가 계속 구상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친구가 현실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기술을 활용해 인공적인 친구라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84~187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③ 07 ② 08 ②
09 ④ 10 ⑤ 11 ⑤ 12 ⑤

01 작품 속 서술자인 '나'는 과거 회상('우리 집은 바깥채가 따로 없이~손님은 손님대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과 상황 추측('보다 못한 벗들이~저 속에는 그들의 책도 제법 들어 있을 것이다.')을 통해 서재 짓기라는 사건에 담긴 의미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배려한 친구들의 우정임을 이해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작품 속 주인공인 '나(이덕무)'가 서술자이다. ② 서재를 짓기 전에서 후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지만 '빈번한 장면 전환'으로는 볼 수 없고 긴박한 분위기와도 거리가 멀다. ④ 공간적 배경 묘사도, 이를 통한 주제 암시도 드러나지 않는다. ⑤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한 사건을 서술한 것이다.

02 '나'가 유득공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인부들이 들이닥친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가 좁고 낡은 집 때문에 난처함을 느껴 왔던 것은 맞지만 '손님들의 방문을 꺼려 왔'는지는 알 수 없다. ② '나'는 서상수에 대한 소문과 마당에 부려진 나무들을 연결하여 서상수가 아끼던 책들을 처분한 이유를 추리하고 있다. 서상수가 미리 귀띔한 것이 아니다. ④ '나'는 미안해 할 뿐 못마땅해 하지는 않는다. ⑤ '나'가 아내에게 삯바느질을 시킨 것이 아니다. 아내가 삯바느질을 했을 것으로 추리했을 뿐이다.

03 ㉮는 비록 '좁은 방'이지만 자신을 배려하는 친구들의 우정이 담긴 공간에서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상황에 대해 기쁨과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방이 '화려'한 것도 그것에 '만족감'을 느낀 것도 아니다.

04 ㉯은 상황에 대해 난처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억울함'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호젓하다: (어떤 장소가) 인적이 없어 쓸쓸한 느낌이 들 만큼 고요하다. ② '서글서글하다'는 '생김새나 성품이 매우 상냥하고 너그럽다.'라는 뜻으로, 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담긴 말이다. ③ 겸연쩍다: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하다. ⑤ 상황을 반기는 아이들의 심정을 '표정이 환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05 '나'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여 서재를 지어 주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친구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정의 모습임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③·⑤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이다. ④ 작품에서 추리할 수 없는 내용이다.

06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가)는 '헐벗은 차림으로 구걸하는 사람', '유명인에게 달리는 악의적인 댓글' 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럼 상대를 동정할 때는 어떨까요?', (나)는 '왜 인공지능 로봇을 친구로 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등에서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습니다'와 같은 경어체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하듯이 전개하고 있다. ④ (가)는 니체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는 니체의 관점 소개에 초점을 맞춘 '설명하는 글'이고, (나)는 인공 친구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제시에 초점을 맞춘 '주장하는 글'이다.

07 ㄴ은 (가)에만 해당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으로 옮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는 모두 친구를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다만 그 도움의 내용이나 성격이 다를 뿐이다.

08 니체는 동정과 우정을 구분하였고 '상대를 대할 때 동정이 아니라 우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참된 우정은 상대를 진심으로 동정'한다는 서술은 니체의 생각과 어긋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인공 친구에게 동정의 마음이 없다고 비판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서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돕는 관계'로 본 니체의 관점에서, 상호 작용이 아님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하다. ③ '참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은 상대의 잠재력을 서로 믿'는다는 니체의 관점에서, 인공 친구가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비판한 것으로 적절하다. ④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가 '잠재력을 활발하게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는 니체의 관점에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존재'를 친구로 여긴다는 인간이 따끔한 충고, 즉 독려를 하는 인공 친구를 친구로 여길 것인지 비판한 것으로 적절하다. ⑤ '우정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를 동락'으로 본 니체의 관점에서, 인공 친구가 동락의 태도를 지닐 수 있을지 비판한 것으로 적절하다.

09 '상대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위로와 힘도 주겠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활발하게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설명에서 '안식을 주되 다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친구'임을 추리할 수 있다.

10 글쓴이는 인간이 불행한 처지에 빠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만족을 느끼기도 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은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과 불행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비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다.

오답 해설 ①~④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마음과 관련된 것이다.

11 '교감할 수 있는 이상적 친구'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친구'를 원하는 마음이 인공 친구를 만드는 상상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글쓴이가 이상적 친구로 여긴 것은 '교감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친구'이다.

12 ⓐ는 지능의 발달이 인류의 뇌가 커진 원인이라고 보지만, ⓑ는 지능의 발달이 인류의 뇌가 커진 핵심적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오답 해설 ① ⓐ는 호모사피엔스 시기에, ⓑ는 호모에렉투스 시기에 인류의 뇌가 커졌다고 본다. ② ⓐ는 지능의 발달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는 친구와 협동하게 된 것이 인류가 맹수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로 본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88~189쪽

01 (1) 상대를 생각하여 배려하는 존재 (2) 자신을 배려하는 친구들의 우정이 담긴 공간에서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상황에 대해 기쁨과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02** (1) 우정과 달리 동정에는 상대에 관한 믿음과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2) 안식을 주되 다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 **03** (1)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존재를 친구로 여기지만 현

실에서는 그런 친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이런 기능을 가진 인공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게 된 것이다. 즉 인공 친구에 대한 상상에는 이상적 친구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현실 상황과 결부되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04** ㉠: 친구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여 배려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 상대를 믿고 존중하며, 상대가 행복감을 느끼고 더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존재 ㉢: 나의 요구를 들어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존재

01 (1) 벗들은 '나'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서재를 지어 주고 있다.

02 (2) '야전 침대'는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는 데 사용되는 침대이다.

03 (1) 이상적인 친구를 갖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현실 상황과 연관되어 나타난 상상으로 보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90~19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01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04 '나'는 서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07 반성을 촉구하지는 않았다.

10 '교만한' 친구가 아니라 '좌절에 빠진' 친구가 대상이다.

12 니체는 우정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가 타인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 즉 동락이라고 보았다.

14 유명인에게 달리는 악의적인 댓글은 열등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19 호모사피엔스 가설은 지능 발달로 뇌가 커졌다고 보는 반면, 호모에렉투스 가설은 지능 발달이 뇌를 커지게 한 핵심적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5 소통하고 참여하라

01 매체 소통 문화와 공동 보고서 쓰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96~199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⑤ **07** ⑤ **08** ②
09 ⑤ **10** ① **11** ⑤ **12** ①

01 (가)에서 학생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로 스마트폰을 꼽고 있으며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나)의 1문단에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시간의 제약뿐 아니라 물리적 거리도 장벽이 되지 않음을, 2문단에서는 이 같은 매체의 변화로 인해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체의 종류와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서는 매체를 전달 내용에 따라 정보 매체와 오락 매체로, 전달 형식에 따라 활자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분류가 (가)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나)에서 미디어란 '의사소통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이어 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가)와 (나)에서 편지와 전자 우편을 비교하여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자 우편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2 (가)에서는 스마트폰, (나)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쇄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소통 개념 및 범위의 변화를 주제로 도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관해 다루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과 전망에 대해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에 관해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가)와 (나) 모두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의사소통의 확대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과거 매체와 비교하는 내용의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가)와 (나) 모두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의사소통의 확대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공동 보고서의 주제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

03 (가)에서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의 단점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전화나 문자 메시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데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연락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편지와 문자 메시지처럼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학생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답하고 있다.

04 현대인들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통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소통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에 따른 영향에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매체의 변화 과정과 그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가 궁금하다는 우진의 발언과 부합하는 계획이므로 적절하다. ④ 현대

인들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를 알면 그것을 통한 소통 방식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으며, 요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시간을 조사하려는 계획은 적절하다.

05 3문단에 따르면 익명의 다수를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를 대중 매체 혹은 매스 미디어라고 한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가 인터넷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등장한 용어는 디지털 미디어, 멀티미디어이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인터넷의 등장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라면 미디어라는 것에 신문이나 방송을, 학생들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떠올릴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활자를 종이에 인쇄해서 전달하는 것을 인쇄 매체, 전파를 이용하는 것을 방송 매체라고 한다는 것과 4문단에서 내용물을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 활자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로 구분하기도 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06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통 시간이 단축되고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으나 불필요한 메시지가 증가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전자 우편은 소통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주고 메시지 전달 범위를 넓혀주므로 의사소통 방식이 확장된 예에 해당한다. ②, ③ 인터넷을 통해 국가 간의 소통이 쉽고 빨라졌으므로 물리적 거리를 극복했다는 것은 매체의 변화로 인한 의사소통 방식의 확장 중 하나이다. ④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메시지에도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매체의 변화로 인한 의사소통 방식의 확장에 해당한다.

07 보고서의 결론은 조사 결과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므로 자세하게 풀어서 작성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쓰기 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글을 쓸 때 참고하거나 인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③ 공동 보고서는 모둠원의 역할을 분담한 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한 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08 편지와 전자 우편, 신문사나 방송사가 보내는 메시지에 대한 피드백과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피드백을 비교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매체의 변화와 그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나라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별 매체 활용 양상에 대해 제시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매체의 변화가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을 통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매체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매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매체에 관한 사람들의 통념은 제시되지 않았다.

09 인터넷을 통한 소통 방식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소통 방식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소통의 형태가 변화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편지 등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② 인터넷,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과거와 달리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2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③ 3문단에서 미디어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매체를 정보 매체와 오락 매체로 구분하고 있다.

10 (가)에서는 새로운 매체, 즉 인터넷의 영향으로 의사소통 방식의 확장,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양방향 의사소통, 디지털 미디어나 멀티미디어라는 용어의 등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메시지의 전달 범위가 확장되었으나 메시지 전달 용량이 증가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여 국가 간의 소통도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했으므로 메시지 전달 대상이 감소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클릭 한 번이면 메시지나 메일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소통에 필요한 노력이 증가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의사소통의 개인적 기능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클릭 한 번이면 메시지나 메일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소통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매체의 변화로 과거와 현재의 의사소통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했을 뿐 의사소통의 개념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11 보고서의 목차는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전개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① 보고서의 짜임새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요를 안내하는 것은 아니다. ② 독자에게 보고서의 짜임새, 즉 전체적인 구조와 전개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필요에 따라 결론 부분에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느낀 점을 제시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④ 보고서의 짜임새를 보여 주나 내용을 요약한 것은 아니다.

12 〈보기〉에서 학생들은 보고서의 주제와 자료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자료의 활용 계획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인터뷰, 설문 조사는 자료 수집 계획에 해당한다. ③ 우리반 친구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④ (가)를 읽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에 관해 보고서를 쓰려고 한다. ⑤ (가)를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모둠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주제로 선정하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200~203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④ 06 ① 07 ① 08 ③
09 ② 10 ①

01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글쓰기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등장 배경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매체의 변화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다는 우진의 말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사람들의 소통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은혁의 말을 통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소통 문화와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라는 (나)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②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전제로 그 해결 방안에 관해 다루고자 하고 있다. ④ (가)는 매체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는 반면 (나)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바람직한 사용 방안, 즉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임을 목차에서 예고하고 있다.

02 보고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 관찰, 조사, 연구, 실험 등의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글이므로 모둠원들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공동 보고서는 혼자 쓰는 글이 아니므로 모둠원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② 쓰기 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참고하거나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③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⑤ 보고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03 수민이네 모둠에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소통의 특성과 올바른 사용 방안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사용법을 설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해당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관련된다. ③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와 관련된다. ④ 조사의 필요성과 관련된다. ⑤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와 관련된다.

04 보고서에 사용할 자료는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여 수집하고 선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는 모두 수집한 자료를 선별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05 '자료 1'은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만(ㄴ) '자료 2'는 개인 방송의 위반 사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와 관련이 없다(ㄷ). 또한 '자료 3'은 출처가 명시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다(ㅁ).

오답 해설 '자료 1'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용이 늘어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ㄱ). '자료 2'는 개인 방송의 전자 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자료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용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라는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ㄹ).

06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바르게 이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가) 목차의 3-(3) 항목에 '바람직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에 따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③ 수집한 자료 중 '신문 기사'의 내용을 고려할 때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과 관련하여 주제를 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가) 목차의 3-(3) 항목과 (라) 1. 조사 동기와 목적의 내용을 통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라) 1. 조사 동기와 목적의 내용을 통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제시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07 ①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바르게 이용하는 방안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 실태와 관련된 ㉡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다. ①은 목차의 3-(3) '바람직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방안'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③, ④, 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부각시켜 사용 실태를 드러내는 데 적절한 자료들이다.

08 글을 쓸 때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나 자료를 활용한다고 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다양한 자료의 활용을 통해 생동감 있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④ 글로 풀어 썼을 때 복잡한 내용을 그림이나 도표 등으로 간결하게 보여 줄 수 있다. ⑤ 참신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09 (나)의 '자료 3'은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다)의 '복합 양식 자료 1'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매체 특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부분의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자료 1'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소통 방식이 변화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며 (다)의 '복합 양식 자료 1'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 둘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나)의 '자료 2'는 개인 방송 위반 사례에 관한 내용이므로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④ (나)의 '자료 3'은 스마트폰을 어디에 많이 활용하는지 보여 주는 자료지만 출처가 명시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다. ⑤ (다)의 '복합 양식 자료 2'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바람직한 사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10 (가)의 목차를 고려할 때, (라)의 3-(2)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의사소통의 특징 및 매체 특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있어 시간이 단축되고 물리적 거리의 한계도 극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라)의 3-(2)의 중심 내용은 '의사소통 방식의 확장'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소통 문화가 달라진 것이지 의사소통의 의미가 변화한 것은 아니다. ③, ④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매체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져야 하므로 메시지 전달 수단의 다양화나 새로운 매체 등장에 대한 예고 등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이를 통한 양방향 의사소통 실현 역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매체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소통으로 인해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이를 통한 양방향 의사소통 실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204쪽

01 예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현대인들의 소통 문화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관련한 그래프 자료를 활용할 것이고, 학급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02 예 인터넷 매체는 클릭 한 번이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잘못된 뉴스도 걸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점검하고 한번 더 생각한 뒤 게시물을 올려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01 제시문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의 주제로 정하고, 해당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책, 인터넷 검색, 전문가 면담,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주제에 맞는 표나 그래프, 사진, 그림, 동영상, 플래시 등의 복합 양식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02 시간적 제약, 물리적 거리의 극복, 즉각적인 피드백, 양방향 의사소통이 인터넷 매체의 특징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의 역기능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20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3 인쇄 기술의 발달로 지식이 대중화되었다.

05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는 익명의 다수 대중을 상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대중 매체 혹은 매스 미디어라고 말한다. 인터넷으로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미디어, 멀티미디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07 보고서의 목차는 독자를 고려하여 보고서의 짜임새를 안내하는 역할로, 개요 짜기와는 다르다.

10 공동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일차적으로 수집한 다음 보고서의 목적과 주제,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자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최종 점검 모의고사

제 1 회

본문 208~215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②	05 ④	06 ②	07 ④	08 ①
09 ③	10 ⑤	11 ③	12 ④	13 ②	14 ③	15 ③	16 ④
17 ②	18 ⑤	19 ①	20 ⑤	21 ④	22 ③	23 ②	24 ⑤
25 ④							

01 '춘한(春寒) 고열(苦熱)'과 '츄일(秋日) 동텬(冬天)'에서 계절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사계절 내내 임을 염려하는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계절에 따라 화자의 심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심경을 형상화한 것은 이 작품의 전편에 해당하는 〈사미인곡〉이다.

오답 해설 ① '낙월(落月)', '구ᄌᆞᆫ비'와 같은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②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 '내 ᄆᆞᄋᆞᆷ 둘 ᄃᆡ 업다 어드러로 가잣 말고' 등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③ 4음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 가사이다. ④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02 '반기시ᄂᆞᆫ ᄂᆞᆺ비치 녜와 엇디 다ᄅᆞ신고'에서 임이 변심했음을 알 수 있지만, 임에게 마음을 돌릴 것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다. 화자는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빠혀시니~조믈(造物)의 타시로다'에서 임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임에게 갈 뱃길을 알아보려 하고,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 임을 만나고, 죽어서 낙월이 되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모쳠(茅簷) ᄎᆞᆫ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 반벽(半壁) 쳥등(靑燈)은 눌 위ᄒᆞ야 볼갓ᄂᆞᆫ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님 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ᄒᆞ니~님 다히 쇼식(消息)이 더옥 아득ᄒᆞᆫ뎌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믈 ᄀᆞᄐᆞᆫ 얼굴이 편ᄒᆞ실 적 몃 날일고~기나긴 밤의 ᄌᆞᆷ은 엇디 자시ᄂᆞᆫ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여인 2'가 임과 이별한 문제 상황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출하리 싀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 님 겨신 창(窓) 안희 번드시 비최리라'로서 소극적인 사랑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인 1'이 조언하는 것은 '각시님 ᄃᆞᆯ이야ᄀᆞ니와 구ᄌᆞᆫ비나 되쇼셔'로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랑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멀리서 비추기만 하는 낙월이 되겠다는 '여인 2'의 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임에게 내려 적시는 궂은비가 되라며 진취적인 자세를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04 ㉡은 자신의 죄가 많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③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05 화자는 '꿈'에서 임을 만나기는 하지만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마음에 먹은 말을 하지 못한 채 깨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허망감을 느끼다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을 죽어서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꿈'에서 소망 실현을 경험한 것도, 현실에서 소망이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놉픈 뫼'에 올라가지만 '구롬'과 '안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 ② '놉픈 뫼'에서 실패한 화자는 '믈ᄀᆞ'를 대안적 공간으로 여기고 'ᄇᆡ길'을 알아보려 하지만 'ᄇᆞ람'과 '믈결' 때문에 또다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님 다히 쇼식(消息)이 더옥 아득'하다는 절망감을 재확인하게 된다. ③ 화자가 '모쳠(茅簷) ᄎᆞᆫ 자리'로 돌아오니 벽 가운데 청등이 쓸데없이 켜져 있는데 화자는 이 모습을 보며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절감하게 된다. ⑤ 잠에서 깨어난 화자는 '창(窓)'을 열고 밖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죽어서 '낙월'이 되어 임을 비추는 것을 소망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떠올린다.

06 '반벽 청등'은 화자의 인식 변화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뱃길마저 막혀 도저히 임의 소식을 알 수 없는 화자의 허전한 마음이 사공도 없는 '빈 배'라는 객관적 상관물에 투영되어 표현되고 있다. ③ '꿈'은 임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꿈속에서의 만남을 만들 만큼 간절함을 보여 준다. ④ '닭 울음소리' 때문에 화자가 꿈에서 깨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자신의 '그림자'만이 자신을 좇는다는 것은 자신의 외롭고 서글픈 처지를 재확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7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그런데 ④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③ 상징적 소재인 '구두'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는 열린 결말 방식을 통해 궁금증을 유발하는 한편 여운을 남기고 있다.

08 '나'는 강도의 어설픈 행동을 보고 그가 권 씨임을 눈치 챈다.

오답 해설 ② '나'가 강도의 요구에 적극 협조한 것은 강도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강도가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말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 오히려 '피치 못할 사정'의 내용을 언급한 것은 '나'이다. ④ '나'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권 씨를 강도로 대우하면서 그가 다시 당당한 태도로 '나'와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강도로 대우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⑤ 강도인 권 씨가 자취를 감춘 것은 자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 '나'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09 '나'가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 가라는 눈짓을 보'낸 것은 무모해서가 아니라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이다.

10 끝까지 남아 있는 아홉 켤레의 구두는 권 씨의 부재를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③ 권 씨에게 구두는 힘든 현실을 지탱하게 하는 자존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두를 바지에 문질러 닦는 것은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잘 닦인 일곱 중에서 비어 있는 하나'는 권 씨가 집을 나갈 때 신은 구두이므로, 행방불명된 권 씨를 의미한다.

11 ㉢은 상대가 가야 할 곳은 문간방이 아니라 대문임을 지적한 것으로, 강도의 본분에 맞게 행동해야 함을 일깨운 것이다. 이는 상대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함으로써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다.

오답 해설 ①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상대의 인물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다. ②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똑똑히 봤'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상대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의 대졸 학력을 언급한 것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상대의 정체를 알면서도 끝까지 강도로 대우한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았음을 자책하고 있다.

12 이 글은 '나(오 선생)'를 서술자로 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었고, 〈보기〉는 '나(권 씨)'를 서술자로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이 글에서 '나(오 선생)'는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에

서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반면 〈보기〉에서 '나(권씨)'는 이를 '사람을 여지없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투'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오 선생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나'는 주변 인물인 오 선생이고, 〈보기〉의 '나'는 중심인물인 권 씨이다. ② 이 글은 오 선생의 시각에서, 〈보기〉는 권 씨의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③ 1인칭 관찰자 시점인 이 글과 달리, 1인칭 주인공 시점인 〈보기〉에서는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권 씨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⑤ 이 글의 '나'는 권 씨에게 연민과 자책의 태도를, 〈보기〉의 '나'는 오 선생에게 분노와 원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Plus 〈보기〉 직선과 곡선_윤흥길

성격	현실 고발적, 사실적
주제	산업화 · 도시화 과정에서 생존의 절박함에 몰린 지식인의 변모
해제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 네 편 중 두 번째 작품으로, '권씨(권기용)'가 서술자가 되어 산업화 과정에서 점차 현실과 타협하며 변모해 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그림.

13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물 마르다 목 들여라.'에서 보듯이, 본관 사또는 어사가 출두하자 체통과 위엄을 잃고 허둥댄다.

오답 해설 ① '이때에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저리 가며 수군수군.'에서 은밀히 어사 출두를 준비함을 알 수 있다. ③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내 수청도 거역할까?"에서 알 수 있다. ④ "내려오는 관장마다~어서 바삐 죽여 주오."에서 알 수 있다. ⑤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어미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하랴.'에서 알 수 있다.

14 ⓒ는 작중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으로,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독자에게 말 걸기'에 해당한다.

15 ㉠은 원래 "어 추워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로 표현해야 할 것을, '바람'과 '문', '목'과 '물'을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언어 도치를 통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③도 원래는 '어서 가서 칼 가져오너라. 감 좀 깎아 먹자.'가 맞는데, '칼'과 '감'을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 남편을 뜻하는 '서방(書房)'이 방향을 뜻하는 '서방(西方)'과 동음이의어인 점을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방향을 뜻하는 '남방(南方)'까지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풍유법, 대구법 ④ 반어법 ⑤ 반복법, 의인법

Plus 〈참고〉 풍유법

개념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 비유법의 하나로, 속담이나 격언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16 ㉡에서 '대감'은 이몽룡의 아버지이다. ㉡은 '이곳은 아버지께서 다스리던 곳이니,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객사로 옮겨 업무를 보자.'라는 의미이다. 전관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이 담긴 말로 볼 수 있다.

17 [B]의 '남원 읍내 가을'은 변 사또의 수탈로 인해 위태로워진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만, [A]의 '층암절벽 높은 바위'는 절개를 지키는 춘향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A]의 '명관'은 상대방이 '명관'이 아니라는 생각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8 어사는 객사로 옮긴 후 바로 본관 사또를 봉고파직하고 있다. 본관 사또의 죄상과 관련된 대화나 심문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남원읍이 우글우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남문에서, "출두야."~"애고 박 터졌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인궤 잃고 강정 들고~칼집 쥐고 오줌 누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작품의 표면에 '나'로 등장하여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밖으로 쓸어 버린다(밖으로 버리며)',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를 반복 · 변주하고 있는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것이 아니다. '예'와 '미타찰'이라는 공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화자가 '예'에서 '미타찰'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한 것은 아니다. ④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에서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20 (나)에는 거미 가족의 재회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이라는 바람을 안고 마지막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고는 있지만, 춥고 어둡고 위험한 문밖에서 그들이 재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게 된다. 따라서 ㉮는 작품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가)의 5~8구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④ (가)의 9~10구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21 7~8구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생무상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있으매(있기에, 있기 때문에)'라는 인과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두려움('머뭇거리고')을 표현하고 있다. ② '어찌 갑니까'라는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죽음도 알리지 못하고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다. ③ '떨어질 잎'에서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죽음(소멸)'이라는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아아'라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정서를 전환하고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22 (나)는 시종일관 독백조로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쓸어 버린다, 짜릿한다' 등에서 보듯이, '-(ㄴ)다'라는 현재 시제로 표현하여 시적 상황과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문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④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 등에서 거미를 의인화하여, 거미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연을 거듭할수록 행수가 많아지는 구조를 통해 거미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심화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23 ㉡은 화자와 대상이 만나는 소망의 공간이다. 그러나 ㉣은 화자와 대상이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대상인 거미들끼리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와 누이의, ㉢은 거미들 간의 헤어짐이 발생하는 비애의 공간이다. ③ · ⑤ ㉢과 ㉣은 모두 대상의 안위를 위협하는 시련의 공간이다. 다만, ㉣은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24 화자가 내민 '손'은 연약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도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따라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향한 화자의 연민과 배려를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삶과 죽음이 갈리는 길인 것은 맞지만, '생존이 달린 위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지난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아니라 비애와 인생무상을 유도한다. ③ 같은 부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맞지만, 슬픔의 주체는 '큰 거미'가 아니라 화자이다.

25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보드라운 종이'에 받는 행위는, 공동체적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 삶의 회복'과 '공동체적 친근성의 회복'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공동체적 친근성'이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간의 동질감이나 정감, 유대감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2회

본문 216~225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②	05 ⑤	06 ③	07 ⑤	08 ②
09 ④	10 ①	11 ③	12 ③	13 ③	14 ③	15 ②	16 ⑤
17 ②	18 ②	19 ①	20 ①	21 ⑤	22 ③	23 ②	24 ②
25 ①							

01 개인적 쓰기 윤리(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와 사회적 쓰기 윤리(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함부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활용할 때는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⑤ 사회적 쓰기 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2 〈보기 1〉을 보면 소민이가 쓰고자 하는 글은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라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쓰기 계획에서 '목적'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의 필요성을 알린다.'와 같이 설득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의 개념을 알린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글의 목적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은 소민이의 첫 번째 말, ③은 소민이의 두 번째 말, ④와 ⑤는 진우의 두 번째 말에서 알 수 있다.

03 〈자료 3〉은 '독일은 반려견 자격시험 의무화 이후 개 물림 사고가 감소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와 같이, 쓰기의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은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강아지를 기르며 궁금해 하는 점이 많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는 '반려견을 기를 때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와 같이, 쓰기의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 2〉는 '반려동물 소음 민원이 많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다. 참고로, 〈자료 2〉는 '반려견이 내는 소음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즉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와 같이, 쓰기의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④ 〈자료 4〉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많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반려견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한다. 이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라는 쓰기의 맥락에 맞지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자료 5〉는 개 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보여 주는 자료로,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와 같이, 쓰기의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04 참새, 오리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서 '새는 알을 낳는다'는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귀납 논증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③ 논리적 오류 중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④ 논리적 오류 중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⑤ 유비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05 ⑤의 자료는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 그러므로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와 같이, 쓰기의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할 자료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④ 쓰기 맥락에 맞지 않으므로 추가해서는 안 된다.

06 '글의 내용과 전개 방식을 구상'하는 것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07 5문단에서는 '당신은 개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라는 물음의 형식을 활용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성격상 이는 독자의 성찰과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문학적인 글에서 주로 나타나는 역할이다.

오답 해설 ① 앞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뒷부분에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②·③ 2문단과 3문단은 병렬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는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를 보호자 자격시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08 ㉠에서는 '보호자가 바깥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아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 '반려견이 짖거나 뛰어다니며 소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자가 방치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구체적 사실들로부터 '보호자가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일반적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③ 논리적 오류 중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④ 논리적 오류 중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⑤ 유비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09 앞뒤의 문장이 인과가 아니라 역접의 관계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그러나'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되다'에 이미 피동의 의미가 있는데,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을 붙이면 이중 피동이 되므로 '되고'로 바꾸어야 한다. ③ '틀리다'는 잘못임을, '다르다'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다르다고'로 고쳐야 한다. ⑤ '개 물림 사고의 측면에서 독일과 우리는 유사하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실시해서 개 물림 사고가 감소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의 유사점에 근거해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앞부분에서 '독일과 우리의 유사점(개 물림 사고 발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속성(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의 효과 = 개 물림 사고 감소)'도 유사할 것이라고 서술해야 유비 논증이 된다. 따라서 '우리도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시행한다면 반려견과 관련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를 추가하면 유비 논증을 통해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10 '방긋'의 반론에 이유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방긋'의 댓글은 '나라 사랑'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볼 수 있다. ③ '방긋'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 ④ 댓글을 통해 반론을 펴는 것은 자유이고, 그 반론의 내용 또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므로 내용상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⑤ '방긋'은 '생각 없는 사람이네.'와 같이 예의에서 벗어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11 소방청 통계 자료는 3문단의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접수되었다고 합니다.'에서 활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터넷 게시판 자료는 2문단의 '반려견 관련 온라인 게시판을 보면~글이 많습니다.'에서 활용되고 있다. ② 서울특별시 통계 자료는 3문단의 '서울특별시는~발표했습니다.'에서 활용되고 있다. ④ 유기견 발생 현황 자료는 2문단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를 보면~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에서 활용되고 있다. ⑤ 신문 기사 자료는 4문단의 '독일의 한 지역에서는~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에서 활용되고 있다.

12 '배경지식 점검' 및 '쓰기 맥락에 따른 작문 계획 수립'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논증의 구조에서는 이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13 '반려견이 내는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은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과 내용상 중복되므로, ㉢을 '본론 2-가'에 합쳐 하나의 항목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반려견의 유형과 특징을 소개함.'은 쓰기 맥락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은 상위 항목에 포괄되고 근거 1에 기반한 내용이므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④ ㉣과 그에 대한 반박은 주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⑤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에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함.'은 '반려견 보호자 자격시험을 의무화하자.'라는 글의 주제와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14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협력하여 해결하는 것이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15 협상은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양보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타협안을 찾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16 인신공격은 '남의 신상에 관한 일을 들어 비난하는 것'으로, 올바른 협상의 태도로 볼 수 없다. 인신공격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인 행동이므로 상대 제안의 합리성 무너뜨리는 역할도 할 수 없다.

17 '시작하기' 단계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으로 진행한다.

오답 해설 ① '협상 전'에는 협상의 목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우리 측 입장에서의 최소 요구 사항, 예상되는 상대측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대안 등을 미리 분석하여 준비한다. 그러나 합의안은 '협상 후'에 합의 결과를 담아 작성하는 것이다. ③ '조정하기' 단계에서는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④ '조정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⑤ '해결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18 '합의안'은 협상의 결과를 문서화한 것이다. 협상은 설득과 양보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타협안을 찾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승리'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물론, 자신의 요구를 더 많이 관철하는 측은 존재한다). 합의안에 기술되는 내용도 양측의 합의를 기술하는 것이지 한 쪽의 시각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19 ㉠의 [입장]과 [최소 요구 사항]으로 볼 때 ㉠은 국립 공원 공사 구간 변경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②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 상대의 양보를 요구할 것은 ㉠이 아니라 ㉡이다. ③ 공사와 운행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은 ㉡이 아니라 ㉠이다. ④ ㉡의 [대안]으로 볼 때 ㉡은 철도 공사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고려하여 ㉠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의 양보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⑤ ㉡은 [최소 요구 사항]에서 최소 운행 속도를 200km/h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속 철도 공사 계획'의 300km/h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가능성, 즉 양보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20 ㉠과 ㉡의 [최소 요구 사항]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은 국립 공원 구간 변경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은 국립 공원 공사 구간보다는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 공원 구간 변경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있다(②). 그러나 ㉠이 국립 공원 구간에서의 공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이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 유지를 위해 이를 양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립 공원 구간 공사 방법'은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③ ㉠의 [입장]과 [최소 요구 사항] 두 번째 항목, ㉡의 [최소 요구 사항] 첫 번째 항목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④ ㉠의 [입장]과 [최소 요구 사항] 두 번째 항목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⑤ ㉠의 [입장]과 [최소 요구 사항] 두 번째 항목, ㉡의 [최소 요구 사항] 두 번째 항목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21 반대 위원회는 '공사 구간에 포함한 국립 공원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과 학교와 지역 주민이 겪게 될 피해에 관한 충분한 대안이 없다면 저희는 고속 철도 공사 계획에 반대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대안이 있다면' 고속 철도 공사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충분한 대안의 마련'이라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추진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된~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많은 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라며 상대의 입장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22 쟁점 2)와 관련하여 추진 위원회는 '학교와 주거지 아래 일부 구간만 진동이 없는 공법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지하 터널 구간은 발파 방식으로 공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그렇다면 지하 터널 전체 구간이 아니라 학교와 주거지 아래 일부 공사 구간만 공법을 변경하는 것은 어떠신지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현재 공사 계획에서 농경지가 있는 동측으로 구간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은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공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120km/h로 낮춰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그 속력으로 운행하면~200krn/h로 낮추겠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고속 철도 정차 역과 수목구 사이에 시간 단위로 운행되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반대 위원회는 당초 시간 단위로 운행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요구하였다.

오답 해설 ① ㉮와 ㉯ 모두 반대 위원회의 요구에 추진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③ 추진 위원회가 '고속 철도 개통 후 3개월 동안의 이용객 수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 횟수를 조정'하자고 제안하고 반대 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였다. ④ 연 1회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반대 위원회의 요구가 아니라 추진 위원회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다. ⑤ 추진 위원회와 반대 위원회가 바뀌어 진술되었다.

24 ㉡에 이어지는 '추진 위원회'와 '반대 위원회'의 말로 보아 '터널 내부로 토사와 지하수가 유입되어 땅 꺼짐 현상과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한 추측이다. ㉡은 이런 왜곡된 사실('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이런 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라고 상대를 비난한 것으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③ 상대를 '지역 이기주의자'로 매도하여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다. 철도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반대하는 것이고 이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논리로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여 비난하고 있다. ④ 국립 공원 노선 변경이라는 '호의'를 베푼 후에, 호의에 대해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는 심리(호혜성의 원칙)를 이용하여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구간 유지'라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⑤ 상대가 '□□ 학회'의 권위에 기대어 발파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자, '○○ 학회'의 권위에 기대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 권위에 기대어 주장을 펼치는 상대에 대해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25 합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길 경우의 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오답 해설 ⑤ 합의 사항 중 첫 번째 항목이 실제 협상의 내용을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 실제 협상의 내용에 부합하려면 '수목산 국립 공원 지하를 지나는 고속 철도 공사 구간을 동측 농경지로 변경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제3회

본문 226~231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①	05 ④	06 ④	07 ⑤	08 ③
09 ①	10 ⑤	11 ⑤	12 ②	13 ④	14 ⑤	15 ⑤	16 ④
17 ①	18 ④	19 ③	20 ③	21 ⑤	22 ①	23 ①	24 ④
25 ⑤							

01 ‘ㆍ내’는 현대어 ‘내가’에 해당하는 말로, ‘나’와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붙는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는 현대어 ‘제(저의)’에 해당하는 말로, 체언과 관형격 조사가 축약된 형태이다.

오답 해설 ③ 현대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이르고자, 여겨’가 되었다. 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형태인 ’위하여‘가 되었다.

02 ㉣는 이어 적기에 대한 설명인데, ㉤는 이어 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이어진 것이므로, 앞 음절의 종성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적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사ᄆᆞᆺ·디’는 ‘통하다’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다. ③ ‘ㅸ’처럼, 단어의 초성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자를 나란히 적었다. ⑤ ‘ㅇ’처럼,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자음자가 있었다.

03 ㉡의 ‘ᄅᆞᆯ’은 목적격 조사로, ‘이’에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자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나라 + ㅅ’으로, 현대 국어의 ‘우리나라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ㅅ’은 현대 국어의 ‘의’와 같은 기능을 하는 관형격 조사이다. ② ㉡은 현대 국어의 ‘말하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져’는 현대 국어의 ‘–고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연결 어미이다. ③ ㉢은 현대 국어의 ‘펴지’에 해당하는데, ‘ㄷ’이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⑤ ㉣은 ‘씀에’에 해당하는 말로, ‘쓰– + –움 + 에’로 분석할 수 있다. ‘–움’이 음성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로 쓰였다.

04 ‘말ᄊᆞᆷ’은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인 말’을 뜻했으나 오늘날에는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 또는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뜻하므로 의미의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의미의 확대가 아니라 의미의 축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④ ‘많다’라는 의미를 지닌 중세 국어의 ‘하다’는 사라졌으며, ‘ᄒᆞ다’에서 온 오늘날의 ‘하다’는 ‘많다’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05 「제1장」의 ‘六龍(육룡)’은 세종의 직계 여섯 조상을 비유한 것이다.

06 ‘ㆍ므ㆍ른’이 현대어에서 ‘물은’이 된 것은 원순 모음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 양상’에는 ‘원순 모음화가 나타남.’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ᄂᆞᄅᆞ샤’에서는 ‘–샤–’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시–’만을 사용한다. ② ‘불ㆍ휘’는 ‘뿌리’에 해당하는 말로, 현대 국어에서라면 주격 조사로 ‘가’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가 쓰이지 않으므로 ∅(영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③ ‘ᄇᆞᄅᆞᆷ’이 현대어 ‘바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 사용되던 모음자 ‘ㆍ’가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⑤ ‘바ㆍᄅᆞ래’는 모음 조화에 따라 ‘바ㆍᄅᆞᆯ’과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형태이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는 이런 의미의 부사격 조사로 ‘에’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애’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07 ‘ᄀᆞᄆᆞ래’는 체언 ‘ᄀᆞᄆᆞᆯ’과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형태로, 양성 모음 ‘ㅏ’ 뒤에 ‘애’가 결합하여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을 보면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점이 찍혀 있다. 점 2개는 상성으로,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점 1개는 거성으로, 높은 소리를 표시한 것이다. ② ‘뮈다’는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휘이다. ③ 8종성법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의 8개 자음만 받침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곶’의 종성 ‘ㅈ’은 8종성법의 8개 자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8종성법이 적용되지 않은 표기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④ ‘:됴·코’는 ‘ㄷ’이 반모음 ‘ㅣ[j]’ 앞에서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이다.

08 ‘:뭘·씨’는 ‘뮈– + –ㄹ씨’로, 받침이 없는 용언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진 것이므로 이어 적기와는 무관하다.

오답 해설 ① ‘깊– + –은’, ② ‘ᄇᆞᄅᆞᆷ + 애’, ④ ‘심 + 이’, ⑤ ‘믈 + 은’을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은 것이다.

09 ‘六龍(육룡)’이 자음 ‘ㅇ’으로 끝나므로 ㉮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 ‘六龍(육룡)·이’로 표기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불·휘’는 반모음 ‘ㅣ’로 끝나는 체언 ‘불·휘’ 다음에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표기이다. ③ ‘여·름’은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만약 주격 조사가 이어진다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므로 ㉮에 따라 ‘이’가 나타날 것이다. ④ ‘:싀·미’의 ‘심’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므로 ㉮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 것을 이어 적기 한 것이다. ⑤ ‘:내·히’의 ‘내ㅎ’은 ㅎ 종성 체언이므로 ㉮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다. ‘히’가 된 것은 앞 체언의 종성 ‘ㅎ’을 뒤의 조사 ‘이’에 이어 적었기 때문이지 조사 ‘ㅣ’가 결합된 때문이 아니다.

10 ⓐ가 포함된 구절은 ‘옛날의 성인과 서로 꼭 들어맞으시니’로 해석되므로 ⓐ는 ‘과’에 대응되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그런데 ⑤는 ‘성군의 자손이 (대를) 이으셔도 경천근민하셔야’이므로 이때의 ‘이’는 주격 조사이다. 따라서 ⓐ의 ‘이’와 그 기능이 다르다.

오답 해설 ①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라는 뜻으로, ‘라와’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②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라는 뜻으로,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③ ‘바다가 어젯밤보다 희기가 더 하고’라는 뜻으로, ‘도곤’은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④ ‘회양 옛 이름과 마침 같구나.’라는 뜻으로, ‘이’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11 독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법에 맞도록’ 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에서 표음주의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에서 표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꼬치], [꼰만]’으로 소리 나지만 ‘꽃이, 꽃만’으로 적은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③ ‘며칠, 구름’은 소리대로 적은 예에 해당한다.

12 ‘내치다, 두드리다’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고, ‘살았다, 무책임하다’는 ‘[사란따], [무채김하다]’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부엌[부억]’은 ㉡에, ‘사슴’은 ㉠에 해당한다. ③ ‘맛있다[마싣따/마딛따], 멋있다[머싣따/머딛따]’는 ㉡에, ‘분노, 겸손’은 ㉠에 해당한다. ④ ‘목련[몽년]’은 ㉡에 해당한다. ⑤ ‘목적[목쩍]’은 ㉡에, ‘가난, 부유함’은 ㉠에 해당한다.

13 ‘:내·히’는 ‘내ㅎ + 이’를 이어 적기 한 것이다. ‘내ㅎ’은 ‘ㅎ 종성 체언’이다.

오답 해설 ③ ‘돓– + –고’에서 ‘ㅎ’과 ‘ㄱ’이 합쳐져 ‘ㅋ’으로 바뀐 것이다. ‘돓–’은 ‘ㅎ’을 종성으로 가진 체언이 아니라 용언의 어간이다.

14 ‘무르팍’은 ‘무릎’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무릎’에서 온 말이다. ‘ㅍ’을 ‘ㅂ’과 ‘ㅎ’이 합쳐진 것, 즉 ‘ㅎ’의 흔적이 남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수ㅎ + 개 ② 안ㅎ + 밖 ③ 암ㅎ + 닭 ④ 살ㅎ + 고기

15 ‘제5항–다만’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만 된소리로 적는다. 그런데 '갑자기[갑짜기]'는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갑짜기'가 아니라 '갑자기'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④ 모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각각 '듬뿍', '산뜻하다', '물씬', '소쩍새'로 적는다.

16 〈보기 1〉의 '다만'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그런데 '쌉쌀한'은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고, '쌉'과 '쌀'이라는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된소리로 적어 '쌉쌀한'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제5항-1)'이므로 '해쓱했다'로 적어야 한다. ②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제5항-2)'이므로 '잔뜩'으로 적어야 한다. ③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므로(제5항-다만) '딱지'로 적어야 한다. ⑤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제5항-2)'이므로 '뭉뚱그려'로 적어야 한다.

17 ㉠ 성공률: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이므로 '률'로 적는다.
㉡ 실패율: 모음 뒤에 이어지는 '률'이므로 '율'로 적는다.

오답 해설 ㉢ 백분률 → 백분율 ㉣ 출석율 → 출석률 ㉤ 합격율 → 합격률

18 '전세(傳貰)'와 '방(房)'은 모두 한자어이다. 따라서 '전세 + 방'은, 결합하는 두 말 중 적어도 하나는 순우리말이어야 한다는 사잇소리의 표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전세방'으로 표기한다. 참고로, '전세 + 집'은, '집'이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2-(1)의 규정에 따라 '전셋집'으로 표기한다.

오답 해설 ① '바다 + 가[바다까/바닫까]'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1-(1)의 규정) '바닷가'로 표기한다. ② '뒤 + 머리[뒨머리]'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1-(2)의 규정) '뒷머리'로 표기한다. ③ '허드레 + 일[허드렌닐]'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1-(3)의 규정) '허드렛일'로 표기한다. ⑤ '제사 + 날[제산날]'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2-(2)의 규정) '제삿날'로 표기한다.

19 '옷감[온깜]'은 '옷 + 감'으로, 원래부터 'ㅅ'을 가지고 있는 말 '옷'이 합성된 것이다. 따라서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소아(小兒) + 과(科)[소아꽈]'는 결합하는 두 말이 모두 한자어이므로([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② '문 + 고리[문꼬리]'는 순우리말 합성어이지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④ '이 + 몸[인몸]'은 순우리말 합성어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1단계], [2단계],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⑤ '나무 + 잎[나문닙]'은 순우리말 합성어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이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1단계], [2단계],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20 ㉮ 집을, 달이(조사 '를'과 '이'를 그 앞말에 붙여 쓰고 있다.)
떠나온지 → 떠나온 지(의존 명사 '지'는 띄어 써야 한다.)
두달 → 두 달(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달'은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는 ㉠을 지켰지만, ㉡과 ㉢을 어기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와 ㉯는 띄어쓰기에 문제가 없다. ② 조사 '는, 처럼'을 앞말에 붙여 쓰면서 ㉠을 지켰다. 그러나 의존 명사는 없으므로 ㉡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④ 조사 '밖에'를 앞말과 띄어 썼으므로 ㉠을 어겼다. 그러나 의존 명사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없으므로 ㉡과 ㉢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⑤ 조사 '과, 마저, 에'를 모두 앞말에 붙여 썼으므로 ㉠을 지켰다. 그러나 의존 명사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없으므로 ㉡과 ㉢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21 ⑤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번'을 앞말과 띄어 쓰고('여러 번') 조사 '같이'를 앞말에 붙여 쓰면서('얼음장같이') 띄어쓰기를 잘 지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여기에서∨부터 → 여기에서부터('부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청소∨하자 → 청소하자('-하다'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 ② 달린지 → 달린∨지('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오∨분만에 → 오∨분∨만에('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쓰는데 → 쓰는∨데('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④ 교실에서∨만이라도 → 교실에서만이라도('만'은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22 ①에서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③ '만'은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④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⑤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23 어깨를 우산 밑에 댄 것이므로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의 의미를 지닌 '받치다'를 써야 한다. '바치다(신이나 웃어른에게 정중하게 드리다.)'나 '받히다(머리나 뿔 따위에 세차게 부딪히다.)'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안 되어'의 준말이므로 '안 돼'로 써야 한다. ③ 'ㄴ'이 아닌 받침 뒤에 '률'이 온 것이므로 '출석률'로 써야 한다. ④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 의미를 더하면서 다시 부사가 된 것이므로 부사의 원형을 밝혀 '일찍이'로 써야 한다. ⑤ 선택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가든지'로 써야 한다.

24 '저만은'에서 '만'은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표기를 잘못된 표기로 고쳐 쓴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한자어 '하교(下校)'와 순우리말 '길'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하굣길'로 적어야 한다. ②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면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몹시'로 적어야 한다. ③ '밖에'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혼자밖에'로 적어야 한다. ⑤ '거'는 '것'을 구어적으로 표현한 말이고,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 [꺼]로 발음된다. 그러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거라고'로 적어야 한다.

25 ⑤에서 '다립니다'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의 의미를 지닌 '다리다'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표기이다. '달이다(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남여노소 → 남녀노소(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은 한자음 '녀'는 원음으로 표기한다.) ② 야단법썩 → 야단법석('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면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 ③ 햇님 → 해님(파생어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④ 만듬 → 만듦(어간 '만들-'에 앞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ㅁ'이 결합한 경우로,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제4회

본문 232~241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⑤	05 ⑤	06 ④	07 ③	08 ②
09 ②	10 ③	11 ⑤	12 ⑤	13 ①	14 ②	15 ①	16 ⑤
17 ②	18 ⑤	19 ①	20 ③	21 ③	22 ⑤	23 ④	24 ①
25 ②							

01 문학 작품이 아니므로 '표현 방법의 독창성'은 비판적 읽기의 평가 사항이 될 수 없다.

02 글쓴이는 영국 언론 매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중립적'이지 않다고 평가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를 지속적 · 체계적 ·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후 문제와 관련된 언론의 역할이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것이어야 함을 지적하고 촉구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올바른 기후 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의 역할' 부분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올바른 기후 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의 역할' 부분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기후 위기'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말이라고 평가한 후 글쓴이 자신도 '기후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기후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를 전제로 내용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는 '부족한 심층 기획 기사와 검증 시스템', ⓑ는 '비판과 대안이 없는 기후 위기 보도', ⓒ는 '올바른 기후 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의 역할' 부분에 해당한다. 이 중 ⓑ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 서술하면서 '바람직한 언론 매체의 역할은 ~다. 하지만(반면에) 국내 언론 매체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형식의 내용 전개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등의 표지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언론 매체의 모습과 대조되는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하지만, 반면에' 등을 사용하여 부각한 것은 '바람직한 언론 매체의 모습'이 아니라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이다.

오답 해설 ① '부족한 심층 기획 기사와 검증 시스템', '비판과 대안이 없는 기후 위기 보도', '올바른 기후 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의 역할'이라는 소제목들을 통해 각 부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는 그래프, ⓑ는 표, ⓒ는 사진을 통해 복합 양식성을 구현하며 내용을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영국 언론 매체의 사례와 그렇지 못한 국내 언론 매체를 대조하여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04 '부족한 심층 기획 기사와 검증 시스템'의 내용으로 보아,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우리 언론 매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도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기업에 대한 홍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에 주력한다고 보고 있다. ②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③ 문제 제기 방식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 제기가 없다고 보고 있다. ④ '부족한 심층 기획 기사와 검증 시스템'의 내용을 보면, 보도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며 이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05 글쓴이는 언론 매체가 '대안과 희망을 주는 보도를 해야' 하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 나머지 대중에게 공포감이나 무력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 ② '비판과 대안이 없는 기후 위기 보도' 부분 2문단의 내용과 부합한다. ③ · ④ '비판과 대안이 없는 기후 위기 보도' 부분 3문단의 내용과 부합한다.

06 ㉡은 기후 위기와 관련된 재난을 보도하면서 공포감이라는 인간적 정서에만 호소하는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적 정서에 호소하지 않음을 비판'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은 기후 위기를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②) 국제적 행사 차원에서만 관심을 가지며(③) 일회성으로 다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은 기후 위기와 관련된 재난을 보도하면서 피해의 참상, 즉 현상적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 즉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며(⑤), 한때의 사건으로만 다룬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 ㉡은 모두 지속성과 심층성의 부재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①).

07 막대그래프는 기후 위기 보도가 국제 행사가 열리는 해에만 집중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②). 하지만 연도 제시에 자의적 편집과 왜곡(연도 간 간격에 차이가 크고 감소한 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이 있어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기후 위기 보도가 심층적 · 지속적이지 않음'을 단정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글쓴이가 막대그래프를 '기후 위기 보도의 심층성, 지속성'을 보여 주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③과 같은 평가는 적절하지 않으며, 제시된 기간 중 1996년에는 1992년 대비 기사 건수가 줄어들었으므로 기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진술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④ · ⑤ 표는 언론 매체가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위장한 기업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해 글쓴이의 주장을 단정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08 사진은 가뭄, 폭염 등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시각적 방식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③ 인물의 모습은 희망의 암시와는 거리가 있다. ④ 사회적 갈등은 글의 내용과 거리가 있으므로 사진을 활용한 의도로 볼 수 없다. 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언론의 올바른 역할'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

09 신재생 에너지 설비 폐기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분석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③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면 폐기물도 늘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논리로, 신재생 에너지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주고자 하고 있다. ④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골치', '골칫거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기사에서는 2020년보다 2030년에 패널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자료에서는 2030년의 패널 폐기물 양이 2020년보다 현저히 적다. 즉, 인용한 자료와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보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10 〈보기〉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광고가 아니라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광고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광고의 본래 목적도 잘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11 니체의 사상을 토대로 동정과 우정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장단점을 비교하거나 이를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헐벗은 차림으로 구걸하는 사람', '유명인에게 달리는 악의적인 댓글' 등의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동정이 아니라 우정!", "그대에게 고통받는 친구가 있다면~가장 많이 유용한 존재가 될 것이다." 등에서 니체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12 ⓐ는 통념과 배치되는 인물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궁금증을 유발

한 다음(③),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의를 환기하면서(①) 화제를 도입하고 있다(②). 그러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는 앞서의 서술을 요약하면서 주제를 부각하고(④)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의를 환기하면서(①)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②). 그러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3 3문단의 '니체가 상대를 대할 때 동정이 아니라 우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정에는 상대에 관한 믿음과 존중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 '상대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위로와 힘도 주겠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활발하게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친구의 역할을 '딱딱한 야전 침대'에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안식과 동시에 독려를 주어야 함'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B는 'A의 능력을 믿고 있으며 그가 반드시 좋은 배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를 믿고 존중하는(③) 우정의 태도이다. 따라서 믿음과 존중이 결여된 동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④ B는 A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동시에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⑤ B는 연기파 배우가 된 A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동락의 태도를 통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6 자신이 상대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의식, 즉 열등의식이 담긴 것이다.

17 (가)는 심미적 체험을 목적으로 읽는 '소설'이고, (나)는 판단이나 태도 강화를 목적으로 읽는 '주장하는 글'이다.

오답 해설 ③~⑤ (가)는 실존 인물인 이덕무의 삶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주인공인 이덕무를 서술자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반면 (나)는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고 있는 글로, 과학적 가설을 동원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8 '나'는 서재를 짓는 일을 마뜩잖아 한 것이 아니라 미안해 한 것이다. 또한 서재의 위용(위엄찬 모양이나 모습)에 만족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비록 좁지만 그 공간에 담긴 친구들의 우정과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상황에 만족감을 느낀 것이다. '마뜩잖다'는 '마음에 들 만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다.

오답 해설 ② '나'는 서상수에 대한 소문(사전 정보)과 마당에 부려진 나무들(현재의 상황)을 연결하여, 서상수가 나무를 마련하기 위해 아끼던 책들을 처분했다고 추리하고 있다. ③ 유득공이 설명해 주기 전까지 '나'가 서재를 짓는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19 ⓐ는 상대인 이덕무가 해야 할 행위(마당 빌려 주기)를, ⓑ는 자신들이 해야 할 행위(방 한 칸 만들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⑤ ⓐ는 서재를 짓겠다는 의도를, 마당을 빌리는 것으로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20 '출타한 아버님이 돌아오시면, 나는 찾아온 벗들과 함께 슬그머니 바깥으로 나와야만 했다.'로 보아, 출타한 아버님이 돌아왔을 때 바깥으로 나온 것은 '가족들'이 아니라 '나와 벗들'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추운 겨울날에는 칼바람이 그대로 몸에 감겨들었고'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② '우리 집은 바깥채가 따로 없이~형수와 조카들이 있는 방으로 건너가야 했다.'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④ '어쩌다 비좁은 방 안에~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⑤ '쌓였던 겨울 눈이~딱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21 '다양한 가설의 내용을 비교한 다음 절충적 관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최근의 가설에 따라 글쓴이의 생각을 제시'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왜 인공지능 로봇을 친구로 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등의 질문을 활용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② 상대 높임의 대화체 어투를 사용하여 대화하듯이 서술하고 있다. ④ '오늘날 온라인상에 있는 그 많은 친구는 내가 무언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나요? 클라라와 같은 인공 친구는 이런 질문에서 자유롭습니다.'에서 추리할 수 있다. ⑤ '이런 친구를 우리가 계속 구상하는 것은~인공적인 친구라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글쓴이는 '인간이 친구를 필요로 한 이유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서적 교감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는 ㉱의 진술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23 (나)의 글쓴이는 인간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친구'를 이상적인 친구로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기능을 지닌 로봇으로 만들어'진 인공 친구가 사람 친구보다 더 이상적인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공 친구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는 '호의적(좋게 생각해 주는)·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냉소적: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② 비관적: 앞으로의 일이 잘 안될 것이라고 보는. ③ 애상적: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⑤ 회의적: 어떤 일에 의심을 품는.

24 ㉮는 지능의 발달이 인류의 뇌가 커진 원인이라고 보지만 ㉯는 지능의 발달이 뇌를 커지게 한 핵심적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오답 해설 ② 인류의 뇌가 호모에렉투스 시절에 급격하게 커졌다고 본 것은 ㉯이다. ③ 인류의 뇌가 커진 것이 기억해야 할 정보의 양과 관련된다고 본 것은 ㉰이다. ④ 무기의 사용이 인류가 맹수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본 것은 ㉮이다. ⑤ ㉰는 인류의 뇌가 커진 핵심적인 원인이 친구라고 본다.

25 '벗들'이 상대의 변화를 독려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③ '벗들'은 상대의 사정을 헤아려(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여) 염려하고 배려하지만 '인공 친구'는 그렇지 않다. ④ '벗들'은 '나'와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하지만 '인공 친구'는 그렇지 않다. ⑤ '벗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만 '인공 친구'는 인간의 요구에 전적으로 따른다.

제5회

본문 242~245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④ 05 ③ 06 ④ 07 ② 08 ①
09 ③ 10 ④

01 (가)에 학생들 대부분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다)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예상 독자가 학생들임은 알 수 있으나 예상 독자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정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학생들은 매체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가 우진과 은혁의 궁금증을 반영하여 보고서의 주제를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에 제시된 보고서의 목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연령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용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다. ⑤ (다)의 '1. 조사 동기와 목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가)에서는 매체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 '주제를 정한 까닭'을 보면 학생들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의사소통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 보고서의 주제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용에 따른 문제를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③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삶에 미친 영향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으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용에 따른 문제를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④ (가)의 대화나 (나)의 '주제를 정한 까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⑤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용에 따른 문제를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03 보조 자료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의 목차가 보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목차를 작성해 봄으로써 보고서의 내용이나 구성이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다. ③ 조사 기간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④ 목차를 통해 보고서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전개를 알려 주기 때문에 빠지거나 중복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준다.

04 ④와 같이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인터넷 기사와 같은 자료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① (나)의 '바람직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용 방안'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나)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매체 특성'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나)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매체 특성'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나)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용 실태'와 관련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5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모둠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목차를 구성한 이후에는,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이어진다.

오답 해설 ① 보고서 작성 단계의 활동이다. ②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④ 자료를 수집, 선별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⑤ 자료를 수집, 선별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06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하며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특징을 제시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3문단에서 독자에게 질문하고 그에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편지, 전자 우편,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은 모두 매체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③ 3, 4문단에서 매체를 어떤 내용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정보 매체와 오락 매체로, 내용물을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활자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편지와 전자 우편을 비교하여 과거와 현재에 사용되는 매체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07 정보 매체와 오락 매체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를 기준으로 매체를 분류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2문단에서 신문사나 방송사가 익명의 다수 대중을 상대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피드백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고 속도도 매우 느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과거와 달리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1, 2문단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편지 대신 전자 우편을 활용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소통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메시지 전달도 과거에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가능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8 목차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바르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것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나)에서 우진과 은혁은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소통 방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보고서의 목차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매체 특성'을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다. ③, ④ 보고서의 목차에 '바람직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용 방안'이라는 내용을 통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09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라면 학생들과 달리 미디어를 신문이나 방송으로 이해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기성 세대가 매체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저항감을 느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 매체의 변화로 의사소통 방식이 확장되었다는 것이, (나)에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② (가)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나)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댓글로 소식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은혁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인터넷을 통해 소통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고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내용, (나)의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연락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된다.

10 (나)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라는 매체의 활용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매체와 우리 삶의 관계, 매체의 변화 과정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은 이해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대화를 통해 독서 활동을 나누고 있다. ② 매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화하고 있으나 매체를 활용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매체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으나 자신들이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Memo

Memo

Memo

Memo

Memo